
해외투자의 수출입유발효과 분석 및 정책 시사점에 관한 연구

2011. 7

한국수출입은행

— < 연 구 자 > —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김종호 해외투자분석반장
- 김유신 책임조사역
- 한경묵 조사역

- 이재우 선임연구원

<산업연구원>

- 하병기 선임연구위원
- 조진환 연구원

〈목 차〉

제 I 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활용 통계의 한계와 주의점	3
3.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5
제 II 장.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동향 및 구조	16
1. 해외직접투자 동향	16
2. 지역별 구조	18
3. 산업별 구조	21
4. 기업규모, 투자목적 및 형태별 구조	22
5. 요약 및 시사점	30
제 III 장. 해외현지법인의 경영 성과	36
1. 현지법인의 매출입	36
2. 현지법인의 이익	54
3. 현지법인의 한국투자자 앞 송금액	88
제 IV 장. 對현지법인 수출입의 현황 및 구조	106
1. 對현지법인 수출입 구조	106
2. 산업별 및 국가별 추이	123
3. 기업 규모별 및 설립형태별 분석	146
4. 연속 제출 기업 분석: 최근 5년간	151
5. 모기업 산업별 분석	158
제 V 장. 수출입 유발 효과 실증 분석	162
1. 이론 및 선행 연구	162
2. 실증 분석	172
제 VI 장. 요약 및 시사점	183
1. 요약	183
2. 정책 시사점	189
<참고 문헌>	197
<부록>	199
<참고 자료>	235

〈표 차례〉

<표 I -2-1> 기업 경영분석 통계의 국제비교	4
<표 I -3-1>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5
<표 I -3-2> 분석대상 현지법인 증가 현황	6
<표 I -3-3> 분석대상 현지법인 산업 대분류별 현황(현지법인수)	7
<표 I -3-4> 분석대상 현지법인 산업 대분류별 현황(투자잔액)	7
<표 I -3-5> 2009년 분석대상 현지법인 산업 중분류별 현황	8
<표 I -3-6> 분석대상 현지법인 지역별 현황(현지법인수)	9
<표 I -3-7> 분석대상 현지법인 지역별 현황(투자잔액)	9
<표 I -3-8> 분석대상 현지법인 국가별 현황(현지법인수)	10
<표 I -3-9> 분석대상 현지법인 국가별 현황(투자잔액)	10
<표 I -3-10> 분석대상 현지법인 산업/지역별 현황(현지법인수, 2009년)	11
<표 I -3-11> 분석대상 현지법인 산업/지역별 현황(투자잔액, 2009년)	12
<표 I -3-12> 분석대상 현지법인 투자자 기업규모별 현황	12
<표 I -3-13> 분석대상 현지법인 설립 형태별 현황	13
<표 I -3-14> 분석대상 현지법인 투자 방법별 현황	14
<표 I -3-15>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 현황	14
<표 I -3-16>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 산업별 현황(2009년말 기준)	15
<표 I -3-17>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 지역별 현황(2009년말 기준)	15
<표 I -3-18>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 기업규모별 현황(2009년말 기준)	16
<표 I -3-19>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 기업규모별 현황(2009년말 기준)	16
<표 I -3-20>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 기업규모별 현황(2009년말 기준)	16
<표 II -2-1> 지역별 투자 구조(2009년말 누적 기준)	21
<표 II -2-2> 산업별/지역별 투자 구조(2009년말 누적 기준)	22
<표 II -4-1> 주 투자자별 투자 구조(2009년말 누적 기준)	25
<표 II -5-1> 2010년 부문별 해외직접 투자 동향	34
<표 III -1-1> 조선업 및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출입 추이	37
<표 III -1-2> 일본 및 미국 현지법인 매출입의 對총수출 비율 추이	38
<표 III -1-3> 해외직접투자의 對GDP 비율의 국별 비교	39
<표 III -1-4> 산업 대분류별 매출액 추이	40
<표 III -1-5> 산업 대분류별 매입액 추이	41
<표 III -1-6> 2009년 산업 대분류별 매출입액 구조	41
<표 III -1-7> 제조업 중분류별 매출액 추이	42
<표 III -1-8> 제조업 중분류별 매입액 추이	43

<표Ⅲ-1-9> 2009년 제조업 중분류별 매출입 구조	44
<표Ⅲ-1-10> 2009년 소산업 현지법인의 지역별 매출입 구조	45
<표Ⅲ-1-11> 소산업 현지법인의 지역별 매출 추이	45
<표Ⅲ-1-12> 소산업 현지법인의 지역별 매입 추이	46
<표Ⅲ-1-13> 2009년 지역별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출입 구조	46
<표Ⅲ-1-14> 제조업 현지법인의 지역별 매출 추이	47
<표Ⅲ-1-15> 제조업 현지법인의 지역별 매입 추이	47
<표Ⅲ-1-16> 2009년 주요 국가별 소산업 매출입 구조	48
<표Ⅲ-1-17> 주요 국가별 소산업 매출 추이	49
<표Ⅲ-1-18> 주요 국가별 소산업 매입 추이	49
<표Ⅲ-1-19> 2009년 주요국별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출입 구조	50
<표Ⅲ-1-20> 기업 규모별 매출입의 추이	52
<표Ⅲ-1-21> 기업 규모별 매출입 비중의 추이	52
<표Ⅲ-1-22> 제조업 기업 규모별 매출입 비중의 추이	52
<표Ⅲ-1-23> 지분 인수 방식 현지법인 매출액 비중 추이	53
<표Ⅲ-2-1> 현지법인의 영업이익 추이	54
<표Ⅲ-2-2> 현지법인과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 추이 비교	55
<표Ⅲ-2-3>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 추이	55
<표Ⅲ-2-4> 산업 대분류별 영업이익	57
<표Ⅲ-2-5> 산업 대분류별 영업이익률	57
<표Ⅲ-2-6> 제조업 중분류별 영업이익 추이	58
<표Ⅲ-2-7> 제조업 중분류별 영업이익률 추이	59
<표Ⅲ-2-8> 주요 제조 업종의 현지법인과 국내기업 영업이익률 비교	60
<표Ⅲ-2-9> 지역별 현지법인의 영업이익 추이	61
<표Ⅲ-2-10> 지역별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 추이	61
<표Ⅲ-2-11> 주요 투자국가 현지법인의 영업이익 추이	62
<표Ⅲ-2-12> 주요 투자국가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 추이	62
<표Ⅲ-2-13> 투자자 기업규모별 영업이익 추이	63
<표Ⅲ-2-14> 투자자 기업규모별 영업이익률 추이	63
<표Ⅲ-2-15> 설립형태별 현지법인의 영업이익 추이	64
<표Ⅲ-2-16> 설립형태별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 추이	64
<표Ⅲ-2-17>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 추이	65
<표Ⅲ-2-18> 현지법인과 국내 기업의 당기순이익 추이 비교	66
<표Ⅲ-2-19>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률 추이	66
<표Ⅲ-2-20> 한국과 일본의 현지법인 당기순이익 추이 비교	68
<표Ⅲ-2-21> 일본의 현지법인 당기순이익 추이	69

<표Ⅲ-2-22 > 산업 대분류별 당기순이익 추이	70
<표Ⅲ-2-23 > 산업 대분류별 당기순이익률 추이	71
<표Ⅲ-2-24> 제조업 중분류별 당기순이익 추이	72
<표Ⅲ-2-25> 제조업 중분류별 당기순이익률 추이	72
<표Ⅲ-2-26> 현지법인과 국내기업의 제조업 당기순이익률 비교	73
<표Ⅲ-2-27>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현지법인 당기순이익률 비교	74
<표Ⅲ-2-28> 현지법인 지역별 당기순이익 추이	75
<표Ⅲ-2-29> 지역별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률 추이	75
<표Ⅲ-2-30> 일본 현지법인의 지역별 당기순이익(률) 추이	77
<표Ⅲ-2-31> 주요 투자국가의 당기순이익 추이	77
<표Ⅲ-2-32> 주요 투자국가의 당기순이익률 추이	78
<표Ⅲ-2-33> 투자자 기업규모별 당기순이익 추이	79
<표Ⅲ-2-34> 투자자 기업규모별 당기순이익률 추이	79
<표Ⅲ-2-35> 설립형태별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 추이	79
<표Ⅲ-2-36>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 추이	81
<표Ⅲ-2-37>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률) 추이	81
<표Ⅲ-2-38 >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 산업 대분류별 당기순이익	83
<표Ⅲ-2-39 >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 산업 대분류별 당기순이익률	83
<표Ⅲ-2-40> 5년 연속보고 제조업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	84
<표Ⅲ-2-41> 5년 연속보고 제조업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률 추이	84
<표Ⅲ-2-42>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의 지역별 당기순이익 추이	85
<표Ⅲ-2-43>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의 지역별 당기순이익률 추이	85
<표Ⅲ-2-44>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의 국가별 당기순이익 추이	86
<표Ⅲ-2-45>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의 국가별 당기순이익률 추이	86
<표Ⅲ-2-46>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의 기업규모별 이익 지표 추이	87
<표Ⅲ-2-47>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의 설립형태별 이익 지표 추이	87
<표Ⅲ-3-1> 현지법인의 한국투자자 앞 배당금 지급액 추이	88
<표Ⅲ-3-2> 현지법인의 한국투자자 앞 배당금수익률 추이	89
<표Ⅲ-3-3> 국내 기업의 배당률 및 배당성향	89
<표Ⅲ-3-4> 한국과 일본의 현지법인 배당금 비교	90
<표Ⅲ-3-5> 현지법인의 산업 대분류별 배당금 추이	90
<표Ⅲ-3-6> 현지법인의 산업 대분류별 배당수익률 추이	91
<표Ⅲ-3-7> 제조업 중분류별 배당금 추이	92
<표Ⅲ-3-8> 제조업 중분류 배당수익률 추이	92
<표Ⅲ-3-9> 일본 현지법인 주요 업종별 배당금 추이	93
<표Ⅲ-3-10> 현지법인의 지역별 배당금 추이	94

<표Ⅲ-3-11> 현지법인의 지역별 배당수익률 추이	94
<표Ⅲ-3-12> 일본 현지법인의 지역별 배당금 지급액	95
<표Ⅲ-3-13> 투자자 기업규모별 배당금 추이	95
<표Ⅲ-3-14> 투자자 기업규모별 배당수익률 추이	96
<표Ⅲ-3-15> 설립형태별 배당금 추이	96
<표Ⅲ-3-16> 설립형태별 배당수익률 추이	96
<표Ⅲ-3-17> 현지법인의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 추이	97
<표Ⅲ-3-18> 산업 대분류별 기타 지급액 추이	98
<표Ⅲ-3-19> 제조업 중분류별 기타 지급액 추이	99
<표Ⅲ-3-20> 일본 현지법인의 로열티 지급액 추이	100
<표Ⅲ-3-21> 지역별 기타 지급액 추이	100
<표Ⅲ-3-22> 투자자 기업규모별 기타 지급액 추이	101
<표Ⅲ-3-23> 설립형태별 기타지급액 추이	101
<표Ⅲ-3-24> 현지법인의 한국투자자 앞 이자 지급액	102
<표Ⅲ-2-25 > 산업 대분류별 이자 지급액 추이	102
<표Ⅲ-2-26> 산업 대분류별 대부투자 잔액 추이	103
<표Ⅲ-3-27> 제조업 중분류별 이자 지급액 추이	103
<표Ⅲ-3-28> 현지법인의 주요 업종별 대부투자 잔액 추이	104
<표Ⅲ-3-29> 지역별 이자지급액 추이	104
<표Ⅲ-3-30> 지역별 대부투자 잔액 추이	105
<표Ⅳ-1-1> 對현지법인 수출입 추이	107
<표Ⅳ-1-2> 對현지법인 수출입 증감률 비교	108
<표Ⅳ-1-3> 일본의 對현지법인 수출입 추이	110
<표Ⅳ-1-4> 미국의 對현지법인 수출입 추이	112
<표Ⅳ-1-5> 2009년 산업 대분류별 현지법인 수출입 구조	113
<표Ⅳ-1-6> 2009년 주요 중분류 산업의 수출입 구조	115
<표Ⅳ-1-7> 2009년 지역별 소산업 현지법인의 수출입 구조	118
<표Ⅳ-1-8> 2009년 지역별 제조업 현지법인의 수출입 구조	119
<표Ⅳ-1-9> 2009년 주요 국가별 對소산업 현지법인 수출입	121
<표Ⅳ-1-10> 2009년 주요 국가별 對제조업 현지법인 수출입	122
<표Ⅳ-1-11> 2009년 소산업 및 제조업 현지법인 비율 비교	123
<표Ⅳ-2-1> 산업 대분류별 對현지법인 수출입 추이	124
<표Ⅳ-2-2> 중산업 분류별 수출 구조의 추이	126
<표Ⅳ-2-3> 현지법인의 산업 중분류별 무역수지 추이	127
<표Ⅳ-2-4> 현지법인의 주요 세분류 업종별 수출 추이	129
<표Ⅳ-2-5> 현지법인의 주요 세분류 업종별 수입 추이	129

<표Ⅳ-2-6> 현지법인의 주요 세분류 업종별 무역수지 추이	130
<표Ⅳ-2-7> 대미국 현지법인 수출입 추이	131
<표Ⅳ-2-8> 주요 산업별 대미국 현지법인 수출입 구조 추이	132
<표Ⅳ-2-9> 對중국 현지법인 수출입 추이	134
<표Ⅳ-2-10> 주요 업종별 對중국 현지법인 수출 구조 추이	136
<표Ⅳ-2-11> 주요 업종별 對중국 현지법인 수입 구조 추이	137
<표Ⅳ-2-12> 주요 업종별 對중국 현지법인 무역수지의 추이	138
<표Ⅳ-2-13> 현지법인 수출에서 중국현지법인의 비중 추이	140
<표Ⅳ-2-14> 현지법인 수입에서 중국현지법인의 비중 추이	141
<표Ⅳ-2-15> 對베트남 현지법인 수출입 추이	143
<표Ⅳ-2-16> 對베트남 현지법인 수출입 구조 추이	145
<표Ⅳ-2-17> 주요 업종별 對중국 현지법인 무역수지의 추이	145
<표Ⅳ-3-1> 기업규모별 수출입 추이	147
<표Ⅳ-3-2> 기업규모별 무역수지 추이	147
<표Ⅳ-3-3> 지분 인수 현지법인의 수출입 비중 추이	149
<표Ⅳ-3-4> 지분 인수 현지법인과 무역수지 추이	149
<표Ⅳ-4-1> 5년 연속 보고 현지법인의 수출 추이 및 비교	152
<표Ⅳ-4-2> 5년 연속 보고 현지법인의 수입 추이 및 비교	153
<표Ⅳ-4-3> 5년 연속 보고 현지법인의 모기업 규모별 수출입 추이	155
<표Ⅳ-4-4> 주요 중분류 산업별 무역수지	156
<표Ⅳ-4-5> 주요 국가별 무역수지	157
<표Ⅳ-5-1> 모기업 산업별 무역수지	159
<표Ⅳ-5-2> 모기업 산업별 수출 비중 추이	161
<표Ⅳ-5-3> 모기업 산업별 수입 비중 추이	161
<표Ⅴ-1-1> 해외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164
<표Ⅴ-1-2> 해외직접투자 유형별 무역에 미치는 효과	168
<표Ⅴ-1-3> 해외직접투자 단계별 무역에 미치는 효과	169
<표Ⅴ-2-1> 분석자료의 요약 통계량	174
<표Ⅴ-2-2> 해외직접투자 수출유발효과 모형의 예상효과와 결과 비교	176
<표Ⅴ-2-3> 총투자규모에 따른 수출유발효과 분석결과(Pooling 분석)	177
<표Ⅴ-2-4> 총투자규모에 따른 수출유발효과 분석결과(고정효과 분석)	177
<표Ⅴ-2-5> 총투자규모에 따른 산업별 수출유발효과 분석결과 (Pooling 분석)	179
<표Ⅴ-2-6> 총투자규모에 따른 산업별 수출유발효과 분석결과(고정효과 분석)	179
<표Ⅴ-2-7> 총투자규모에 따른 기업규모별 수출유발효과 분석결과	180
<표Ⅴ-2-8> 투자유형별 규모에 따른 수출유발효과 분석결과(Pooling 분석)	182
<표Ⅴ-2-9> 투자유형별 규모에 따른 수출유발효과 분석결과(고정효과 분석)	182

〈그림 차례〉

<그림 I -3-1> 2009년 한일 현지법인의 지역별 분포 비교	17
<그림 II -3-1> 주요 산업별 투자 비중의 추이	23
<그림 II -4-1> 주 투자자별 투자액 및 신규법인 수 비중 추이	26
<그림 II -4-2> 투자목적별 투자금액 비중 추이	27
<그림 II -4-3> 투자목적별 신규법인 수 비중 추이	28
<그림 II -4-4> 설립형태별 투자 비중 추이	31
<그림 II -4-5 > 최근 5년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33
<그림 II -4-6> 2010년 지역별 해외직접투자동향	34
<그림 II -4-7 > 2010년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35
<그림III-2-1> 현지법인과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률 추이 비교	56
<그림III-2-2> 현지법인과 국내 기업의 당기순이익률 추이 비교	67
<그림III-2-3> 한국과 일본의 현지법인 당기순이익률 추이 비교	69
<그림III-2-4> 설립형태별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률 현황	80
<그림III-2-5> 5년 연속보고 기업과 전체 현지법인 당기순이익 비교	82
<그림III-2-6> 5년 연속보고 기업과 전체 현지법인 당기순이익률 비교	82
<그림IV4-4-1>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의 수출입 비중 추이	154
<그림VI-2-2> 전기전자 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조	160
<그림 V -1-1> 해외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개요도	164
<그림 V -1-2> 수평적 통합형 직접투자의 수출입 구조	166
<그림 V -1-3> 수직적 통합형 직접투자의 수출입 구조	167
<그림VI-2-1> OECD 경영분석 통계 조사대상 및 데이터	189
<그림VI-2-2> 동반진출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구조	193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50억 달러 내외로 정체 상태를 보였으나 2006년에는 116억 달러, 2007년 214억 달러, 2008년 229억 달러, 2009년 194억 달러를 기록함.
- 해외직접투자의 이러한 증가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침.
 - 예를 들면,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외환 유출로 나타나고 그 결과 외환 수급을 통하여 환율에 영향을 미침.
 - 실물적인 측면에서는 기업 혹은 생산의 대외이전 형태를 취함으로써 고용, 생산,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게 됨.
 - 기업 측면에서는 해외시장 진출로 규모의 경제와 지역간 분업을 통하여 생산의 효율성 제고와 구조조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글로벌 전략의 한 형태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요한 관심사항임.

- 최근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세는 결국은 기업의 수출입의 증가로 이어지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반면, 기업의 수출입에 관한 미시적 통계가 많지 않아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지 않았음.
-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의 기업내 무역 행태 및 구조 등을 분석하여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이는 무역의 안정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경영 활동에 관한 정책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가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의 수출입 통계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함.
 - 더하여 해외법인의 경영 실적이 결국은 모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분석도 병행함.
 - 현지법인의 경영 악화는 바로 기업내 수출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 본 연구는 기업 통계인 미시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거시 통계를 활용한 기존 연구와는 차이가 있음.
 - 기업 통계는 OECD에서 1990년대 세계화 지수에 대한 통계작업을 시작하면서 각국이 2000년 대 들어 수집 및 정비를 강화하고 있는 최신의 통계임.
 - 이러한 점 때문에 수집된 통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기존 분석도 많지 않아 분석의 오류 가능성도 존재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선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분석 및 평가에서 개선할 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함.

2. 활용 통계의 한계와 주의점

- 미국은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Bureau of Economic Analysis)이 매 5년마다 기본 설문조사(benchmark survey)를 실시하고 중간 해에는 축소된 설문조사를 기초로 통계를 추정함.
 - 그러므로 미국은 전수 조사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benchmark survey의 결과는 2004년 통계임.
- 이와 달리 한국은 모기업이 한국수출입은행 전산망에 접근하여 영업 활동 통계를 제출하고 이를 집계하고 있음.
 - 100만 달러 이상 투자된 현지법인의 영업통계로 투자 잔액 기준으로 60-70%에 달하므로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소액 투자의 경우 통계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다소 대규모 투자에 편중되어 있는 단점은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산업성이 기업 편람 등을 통하여 확보된 명단의 기업에게 설문서를 송부하여 집계함.
 - 매 3년마다 시행하는 기본 조사는 미국과는 달리 대상을 확대한 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집계된 현지법인 및 모기업의 숫자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사 대상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다만, 대규모 투자의 경우 대부분 집계되는 것으로 추측되어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I -2-1> 기업 경영분석 통계의 국제비교

통계 생산기관	조사 방법	대표성
한국수출입은행	응답기관이 입력한 내용을 집계	투자 잔액 기준으로 볼 때 대표성 있음.
미국 BEA	설문서를 배포하고 5년마다의 benchmark survey에 의거하여 추정	전체 통계로 간주
일본 경산성	설문서를 배포하여 3년마다 기본조사를 시행	대표성이 어느 정도 있으나 수출입은행보다 대표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 한국의 경우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수가 적으므로 산업 및 국별 분석에서 연도별로 오차의 가능성이 크므로 해석에서 주의가 필요함.
- 샘플의 수가 작을 경우 대규모 기업의 포함 여부, 그리고 특정기업의 경영실적에 따라 이 기업이 포함된 산업 및 국가 등의 통계가 좌우되는 단점이 있음.
- 본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산업은 기업이 속해있는 산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상품 분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예를 들면, 전기전자 산업에 속해있는 현지법인이 전자부품이 아닌 다른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라고 해도 본 보고서의 분석에서는 모두 전자부품으로 집계됨.
- 한편,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에는 수출입유발 효과가 미미한 금융 및 보험업은 제외되어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동 산업의 경영분석 통계는 별도 작성하고 있음.

3.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1) 개요

○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투자잔액은 2009년 기준으로 전체 현지법인 투자잔액의 67.5%(금융보험업 제외시 72.5%)에 달하므로 통계의 대표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전체 현지법인 중에는 영업 정지, 청산, 미결산 등의 현지법인이 상당수인 현실을 감안하면 통계의 대표성은 실제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투자금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지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지법인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바, 다소 대규모 투자에 편중되어 있는 단점이 있음.

<표 I -3-1>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단위: 개사, 백만 달러, %

연도	법인수			투자잔액		
	분석대상	전체	비중	분석대상	전체	비중
2005	1,468	26,905	5.5	24,639	46,692	52.8
2006	2,153	31,784	6.8	36,287	57,276	63.4
2007	2,951	36,990	8.0	48,373	77,289	62.6
2008	3,524	31,366	11.2	59,737	90,571	66.0
2009	3,654	33,424	10.9	73,053	108,226	67.5

○ 금번 연구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해외직접 투자 경영분석” 상의 표본 기업수를 확대하여 자료의 신뢰성이 크게 보완되었음.

- 최근 연도인 2009년 자료는 분석대상 기업수와 투자잔액이 5% 수준 증가한 수준이나, 2005년의 경우에는 약 20% 증가하였음.

<표 I -3-2> 분석대상 현지법인 증가 현황

단위: 개사, 백만 달러

연도	법인수			투자잔액		
	기존	금번	증감	기존	금번	증감
2005	1,172	1,468	296	20,739	24,639	3,899
2006	2,000	2,153	153	30,478	36,287	5,810
2007	2,710	2,951	241	42,969	48,373	5,404
2008	3,295	3,524	229	55,520	59,737	4,217
2009	3,481	3,654	173	70,241	73,053	2,812

주: 기준은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발간 당시 분석 대상임.

(2) 산업별 분포

○ 분석대상 현지기업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현지법인수는 2009년 기준으로 제조업이 56.8%, 비제조업이 43.2%를 차지함.

- 비제조업 중에는 도소매업 영위 현지법인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광업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투자잔액 측면에서는 제조업이 43.8%, 비제조업이 56.2%로 비제조업의 투자잔액 비중이 더 높았음.¹⁾

- 광업의 경우 현지법인수는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에 비해 현지법인 당 사업 규모가 커 투자잔액의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

1) 최근 광업, 부동산임대업 등 투자 비중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전체 누적 투자액도 2007년부터 비제조업이 제조업을 초과하였으며 그 차이도 확대되고 있음.

<표 I -3-3> 분석대상 현지법인 산업 대분류별 현황(현지법인수)

단위: 개사

산 업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조업	974	1,435	1,899	2,089	2,076
비제조업	494	718	1,052	1,435	1,578
도매및소매업	236	301	357	420	449
광업	26	47	72	109	133
부동산업및임대업	94	103	168	331	356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0	22	49	79	90
건설업	25	58	94	123	111
운수업	18	47	69	80	102
기타	85	140	243	293	337

<표 I -3-4> 분석대상 현지법인 산업 대분류별 현황(투자잔액)

단위: 백만 달러

산 업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조업	13,756	21,691	29,727	28,397	31,983
비제조업	10,883	14,599	18,646	31,340	41,070
도매및소매업	7,163	6,667	7,485	12,858	13,780
광업	678	1,358	3,293	4,471	8,703
부동산업및임대업	1,192	1,312	2,080	3,525	6,16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222	514	1,867	5,156	5,394
건설업	262	2,469	840	1,505	1,834
운수업	234	566	646	799	1,586
기타	1,132	1,713	2,435	3,025	3,611

○ 산업 중분류 상으로는 소매업²⁾ 잔액 비중이 가장 높음.

- 제조업 중분류로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인 전기전자와 자동차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소매업은 세부 업종으로는 무점포 소매업이 다수이며, 전기전자 업체의 해외 판매 법인이 다수임.

<표 I -3-5> 2009년 분석대상 현지법인 산업 중분류별 현황³⁾

산 업	현지법인수		투자잔액	
	개사	비중(%)	백만달러	비중(%)
소매업; 자동차 제외	251	6.9	9,101	1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96	10.8	7,973	10.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6	8.4	6,171	8.4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86	2.4	5,837	8.0
부동산업	272	7.4	5,160	7.1
전문서비스업	49	1.3	4,979	6.8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50	1.4	3,055	4.2
1차 금속 제조업	121	3.3	2,948	4.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71	4.7	2,034	2.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8	3.5	1,792	2.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1	1.1	1,790	2.5
종합 건설업	94	2.6	1,651	2.3
도매 및 상품중개업	148	4.1	1,624	2.2
금속 광업	20	0.5	1,483	2.0
식료품 제조업	86	2.4	1,367	1.9
전기장비 제조업	89	2.4	1,142	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2	3.3	1,079	1.5
광업 지원 서비스업	9	0.2	1,021	1.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6	1.3	1,019	1.4
임대업;부동산 제외	84	2.3	1,001	1.4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95	2.6	908	1.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3	4.2	889	1.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5	1.5	885	1.2

3) 이하에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전기전자 제조업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자동차 제조업 등으로 약칭함.

(3) 지역 및 국가별 분포

○ 분석대상 현지법인수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아시아 소재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어 북미와 유럽이 뒤를 잇고 있음.

- 2009년 기준 아시아 비중이 68.8%이며, 북미와 유럽은 각각 14.4%, 8.6%를 차지함.

<표 I -3-6> 분석대상 현지법인 지역별 현황(현지법인수)

단위: 개사, %

지 역	2005	2006	2007	2008	2009	비중
대양주	29	50	58	72	79	2.2
북미	216	292	392	495	528	14.4
아시아	1,046	1,550	2,160	2,502	2,514	68.8
아프리카	6	17	16	20	24	0.7
유럽	118	179	228	275	314	8.6
중남미	46	52	78	125	159	4.4
중동	7	13	19	35	36	1.0

- 투자잔액 면에서도 아시아 비중이 높긴 하나, 2009년 기준으로 아시아가 45.6%, 북미와 유럽이 각각 27.1%, 16.9%를 차지하고 있어 아시아 현지법인이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작음을 알 수 있음.

<표 I -3-7> 분석대상 현지법인 지역별 현황(투자잔액)

단위: 백만 달러, %

지 역	2005	2006	2007	2008	2009	비중
대양주	674	788	1,064	936	2,064	2.8
북미	7,554	9,406	8,295	15,042	19,790	27.1
아시아	11,990	19,903	28,467	30,411	33,286	45.6
아프리카	109	198	433	623	988	1.4
유럽	3,406	4,540	7,228	9,644	12,371	16.9
중남미	856	889	2,726	2,849	4,137	5.7
중동	51	563	162	233	416	0.6

- 주요 국가별 현지법인 분포를 보면, 중국 소재 현지법인이 전체 현지법인수의 37.2%, 투자 잔액의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 -3-8> 분석대상 현지법인 국가별 현황(현지법인수)

단위: 개사

국 가	2005	2006	2007	2008	2009	비중
미국	207	273	363	457	486	13.3
네덜란드	6	10	17	21	23	0.6
러시아	6	13	22	29	43	1.2
베트남	65	115	194	273	286	7.8
브라질	6	8	12	15	15	0.4
싱가포르	24	28	39	47	47	1.3
영국	20	21	23	28	26	0.7
인도	10	20	53	56	72	2.0
인도네시아	43	80	92	120	125	3.4
일본	46	66	102	111	124	3.4
중국	696	1,011	1,340	1,427	1,360	37.2
캐나다	9	19	29	38	42	1.1
홍콩	61	75	97	122	137	3.7

<표 I -3-9> 분석대상 현지법인 국가별 현황(투자잔액)

단위: 백만 달러

국 가	2005	2006	2007	2008	2009	비중
미국	7,377	9,160	7,723	14,719	17,067	23.4
네덜란드	139	216	893	1,370	1,616	2.2
러시아	85	227	515	410	877	1.2
베트남	513	755	1,532	2,209	2,447	3.3
브라질	188	196	495	761	1,515	2.1
싱가포르	628	661	1,086	1,603	1,527	2.1
영국	925	1,072	903	1,056	2,625	3.6
인도	125	398	634	618	891	1.2
인도네시아	560	795	967	1,289	1,284	1.8
일본	448	853	1,027	1,303	1,351	1.8
중국	7,236	13,420	18,793	15,823	16,990	23.3
캐나다	176	246	571	323	2,724	3.7
홍콩	1,542	1,804	2,466	4,566	5,159	7.1

○ 소산업에 걸쳐 아시아에 대부분의 현지법인이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 80.7%가 아시아 소재 현지법인임.

-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북미와 유럽에도 비교적 많은 현지법인이 분포하고 있으며, 광업은 대양주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임.

<표 I -3-10> 분석대상 현지법인 산업/지역별 현황(현지법인수, 2009년)

단위: 개사

산 업	대양주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중동
제조업	7	161	1,675	8	155	59	11
도매및소매업	12	113	207	5	85	20	7
광업	26	30	52	4	9	12	
부동산업및임대업	16	78	199	3	19	37	4
전문,과학및기술 서비스업		28	49	1	8	3	1
건설업	3	16	74	1	6	2	9
운수업	9	11	55	1	10	15	1
기타	6	91	203	1	22	11	3

○ 투자 잔액의 경우 제조업은 아시아, 유럽, 북미 순이나, 도소매업은 북미와 유럽이 아시아보다 높아 현지법인수 분포와는 다른 형태를 보임.

- 광업은 우리나라의 주요 해외자원개발 투자 지역인 북미, 중남미, 대양주 비중이 분석대상 현지법인 분포에서도 높게 나타남.

<표 I -3-11> 분석대상 현지법인 산업/지역별 현황(투자잔액, 2009년)

단위: 백만 달러

산 업	대양주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중동
제조업	121	4,234	21,050	39	5,092	1,314	134
도매및소매업	330	6,514	3,061	124	3,108	519	125
광업	1,247	4,028	816	699	635	1,278	0
부동산업및임대업	104	820	2,947	24	1,679	566	21
전문,과학및기술 서비스업	0	2,633	1,456	8	1,240	55	2
건설업	34	267	1,249	23	154	8	100
운수업	156	280	526	5	300	319	1
기타	72	1,016	2,181	66	164	78	33

(4) 기타

○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현지법인 비중이 52.7%로 가장 높은 반면, 투자잔액 면에서는 대기업 비중이 80.5%로 높게 나타남.

- 이는 중소기업의 현지법인 당 투자금액이 적기 때문이며, 조사 대상이 100만 달러 초과에 한정되어 있는 점과 통상 규모가 작을수록 조사 응답률이 낮은 경향도 반영됨.

<표 I -3-12> 분석대상 현지법인 투자자 기업규모별 현황

단위: 개사, 백만 달러, %

구 분	기업규모	2005	2006	2007	2008	2009	비중
현 지 법 인 수	대 기 업	793	1,037	1,197	1,419	1,498	41.0
	중소기업	655	1,049	1,617	1,863	1,927	52.7
	개인기업	5	17	30	37	24	0.7
	개 인	15	50	107	205	205	5.6
투 자 잔 액	대 기 업	21,195	25,560	36,148	47,748	58,792	80.5
	중소기업	3,408	10,579	11,214	11,369	13,478	18.4
	개인기업	4	26	81	99	71	0.1
	개 인	32	125	930	520	712	1.0

○ 설립 형태별로는 신설법인 설립 방식이 현지법인수의 87.5%, 투자 잔액의 84.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간접적이기는 하나, 기존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여 시작한 투자의 비중으로 투자형태 중 M&A투자의 비중을 측정할 수 있음.
- 설립 형태 중 가장 중요한 그린필드형 투자 혹은 M&A 투자의 비중에 관한 분석은 활용할 수 있는 통계가 여의치 않아 정확한 분석이 용이하지 않음^{4) 5)}

<표 I -3-13> 분석대상 현지법인 설립 형태별 현황

단위: 개사, 백만 달러, %

구분	설립 형태	2006	2007	2008	2009	비중
현지 법인수	지분인수	228	305	419	457	12.5
	신설법인	1,925	2,646	3,105	3,197	87.5
투자 잔액	지분인수	6,121	5,927	8,355	11,324	15.5
	신설법인	30,169	42,446	51,381	61,728	84.5

주: 기존법인 지분인수 방식(M&A) 여부는 2006년부터 조사

○ 투자 방법⁶⁾별로는 2009년 지분투자액 비중이 약 90.2%이고, 대부투자액은 9.8% 수준임.

- 이때 대부투자는 지분 투자한 투자자가 현지법인에 대하여 상환 기간을 1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의미함.

4) 해외직접투자는 개념적으로는 투자 형태로서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그린필드형 투자,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M&A 그리고 설비 확장 등으로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지만, 실제 통계 집계가 어려워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고 할 수 있음.

5) UNCTAD가 M&A 투자액을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Thomson Reuter의 DB에서 근거한 것으로 FDI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액수가 포함되어 있음. IMF와 OECD는 공식적인 M&A 통계를 집계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중임.

6) 동일 현지법인에 대해 지분투자와 대부투자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 현지법인 수 기준으로는 현황은 산출이 불가능함.

<표 I -3-14> 분석대상 현지법인 투자 방법별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투 자 방 법	2005	2006	2007	2008	2009	비중
지 분 투 자	23,385	32,328	44,224	53,474	65,919	90.2
대 부 투 자	1,254	3,962	4,149	6,263	7,134	9.8

(5) 5년 연속 자료 제출 기업 현황)

○ 5년간 연속으로 경영분석 자료를 제출한 현지법인은 777개사이며 2009년 말 현재 투자 잔액이 243억 7천만 달러로 전체 조사 현지법인 잔액의 33.4%임.

- 이 중 제조업 현지법인은 529개사이며, 투자 잔액은 151억 6천만 달러로 제조업 조사 현지법인의 47.4%임.

<표 I -3-15>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 현황

단위: 개사, 백만 달러

업 종	기업수	투 자 잔 액				
		2005	2006	2007	2008	2009
소 산 업	777	16,017	20,297	23,223	22,695	24,366
제 조 업	529	9,451	11,362	15,709	14,344	15,160

○ 5년 연속보고 기업의 업종별 투자 잔액을 전체 조사 대상과 비교하면 제조업, 도소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광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은 낮음.

7) 연속 자료 제출 현지법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규 해외투자와 무관한 현지법인의 영업활동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함.

<표 I -3-16>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 산업별 현황(2009년말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산 업	5년 DB		전체 DB	
	백만달러	비중(%)	백만달러	비중(%)
제조업	15,160	62.2	31,983	43.8
도매및소매업	6,590	27.0	13,780	18.9
광업	855	3.5	8,703	11.9
부동산업및임대업	709	2.9	6,161	8.4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81	0.3	5,394	7.4
건설업	205	0.8	1,834	2.5
운수업	90	0.4	1,586	2.2
기타	675	2.8	3,611	4.9
소산업	24,366	100.0	73,053	100.0

- 지역별 투자 잔액은 전체 조사 대상에 비해 아시아, 북미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나지 않음.

<표 I -3-17>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 지역별 현황(2009년말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산 업	5년 DB		전체 DB	
	백만달러	비중(%)	백만달러	비중(%)
대양주	594	2.4	2,064	2.8
북미	6,699	27.5	19,790	27.1
아시아	12,481	51.2	33,286	45.6
아프리카	40	0.2	988	1.4
유럽	3,436	14.1	12,371	16.9
중남미	1,080	4.4	4,137	5.7
중동	36	0.1	416	0.6
기타	24,366	100.0	73,053	100.0
전지역	24,366	100.0	73,053	100.0

- 5년 연속보고 기업의 업종별 투자 잔액을 전체 조사 대상과 비교하면 제조업, 도소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광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은 낮음.

<표 I -3-18>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 기업규모별 현황(2009년말 기준)

산 업	5년 DB		전체 DB	
	백만달러	비중(%)	백만달러	비중(%)
대기업	21,794	89.4	58,792	80.5
중소기업	2,493	10.2	13,478	18.4
기타	80	0.3	783	1.1

<표 I -3-19>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 기업규모별 현황(2009년말 기준)

산 업	5년 DB		전체 DB	
	백만달러	비중(%)	백만달러	비중(%)
대기업	21,794	89.4	58,792	80.5
중소기업	2,493	10.2	13,478	18.4
기타	80	0.3	783	1.1

<표 I -3-20>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 기업규모별 현황(2009년말 기준)

산 업	5년 DB		전체 DB	
	백만달러	비중(%)	백만달러	비중(%)
대기업	21,794	89.4	58,792	80.5
중소기업	2,493	10.2	13,478	18.4
기타	80	0.3	783	1.1

<참고> 일본 “해외사업활동 기본조사” 대상 현지법인 현황

○ 일본의 현지법인의 2009년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 비중이 46.1%, 비제조업 비중이 53.9%임.

- 세부 업종별로도 도매업(27.4%)과 운송기계(9.2%), 정보통신기기(5.3%), 전산기기(3.1%)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주요 업종의 투자 양상이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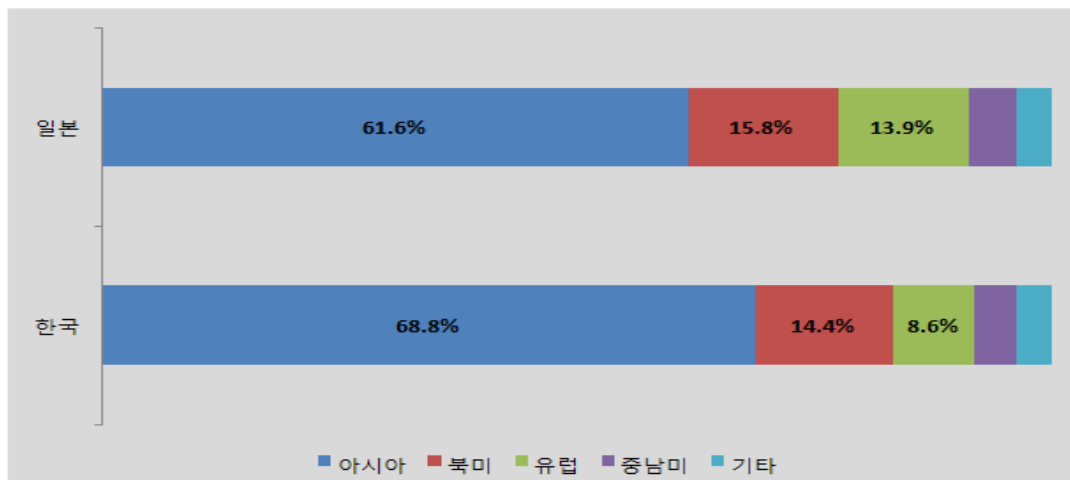
- 부동산업이 제외된 점과 화학 제조업, 정보통신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광업 비중이 다소 낮은 점 등이 다소 상이함.

* 일본은 지역, 산업별로 현지법인수만 발표

○ 일본 현지법인의 지역별 분포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한 가운데 아시아 비중은 소폭 낮고, 북미와 유럽 비중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국가별 비중은 중국 30.0%, 미국 14.6%로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브라질, 캐나다 등 비중도 그 차이가 크지 않음.

<그림 I -3-1> 2009년 한일 현지법인의 지역별 분포 비교



제 II 장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동향 및 구조

1. 해외직접투자 동향

-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90년 대 초반 급증이후 외환위기 이후 주춤하다가 2004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에 4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50억 달러 내외를 유지함⁸⁾.
 - 2004년 65억 달러, 2005년 71억 달러, 2006년 116억 달러, 2007년 214억 달러 그리고 2008년에는 229억 달러로 연속 신기록을 갱신
 -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부진하였던 2009년에도 195억 달러에 달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함.
- 그 결과 2009년 말 현재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1,376억 달러에 달하고 해외에 신규로 설립되거나 인수된 해외법인은 4만 5천개를 초과하였음.
 - 해외직접투자의 대GDP 비율도 2006년 1.2%로 처음 1%를 초과한 이후 2007년, 2008년, 2009년에는 각각 2.0%, 2.5% 그리고 2.3%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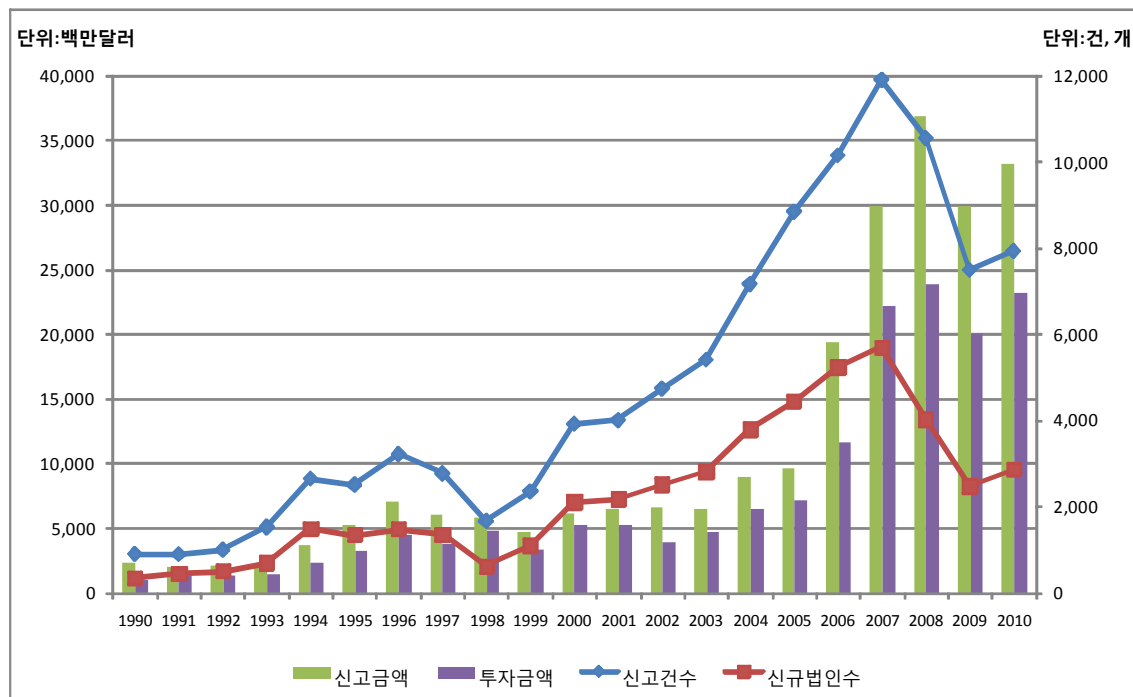
8) 2000년과 2001년 50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나, 2000년 리타워텍의 해외투자나 2001년 LG전자나 하이닉스의 구조조정에 따른 해외투자 재신고 등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는 50억 달러를 상회하였다고 하기는 힘들.

○ 신규로 설립되거나 인수되는 해외법인의 수도 투자액과 더불어 급증세를 나타내었음.

- 연중 신설되는 해외법인 수는 90년대 중반 1,000개사를 넘어서서 2007년에는 5,686개사로 가장 많은 해로 기록됨.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8년 4,022개사, 2009년 2,483개사로 감소함.

<그림 II-1-1> 최근 해외직접투자 추이



9) 활용된 해외직접투자 통계는 한국 수출입은행의 통계임.

2. 지역별 구조

- 국가별로는 미국이 2009년 말 현재 전체 투자누적액의 21.3%를 차지하여 최대 투자국이며 다음으로 중국이 20.8%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 기업의 對중국 투자는 2002년 이후 크게 확대되면서 2005년에는 전체 투자액의 39.7%를 차지하기도 하였지만, 2008년 이후에는 대규모의 자원개발 투자 프로젝트에 힘입어 미국이 다시 제일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음.
- 이외에도 베트남은 2009년 말 현재 전체 투자누적액의 4.0%를 차지, 제3의 투자대상국(홍콩¹⁰⁾ 제외)으로 위치
 - 對베트남 투자는 2005년 이후 붐을 형성하여 2007년에는 전체 투자의 6.1%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로 확대되었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국가별 편중 현상은 지역별 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2009년 말 현재 누적 투자금액은 아시아지역이 632억 달러로 46.0%, 다음으로 북미가 332억 달러로 24.1%, 유럽이 232억 달러로 16.8%를 차지
 - 특히,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는 규모가 법인 당 2백만 달러로 상대적으로 작아 신규법인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의 67.7%로 비중이 증가함.
 - 이와 반대로 對유럽투자는 규모가 법인 당 1천2백만 달러로 커서 신규법인 수 기준으로 비중이 4.1%에 지나지 않음.

10) 2009년 말 현재 對홍콩 투자 비중은 6.0%임.

- 아시아지역에 대한 법인 당 투자 규모가 작은 것은 지리적 및 문화적인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탓으로 분석됨.

<표 II-2-1> 지역별 투자 구조(2009년말 누적 기준)

구 분	투자금액		신규법인 수		법인당 투자금액
	백만달러	비중(%)	개사	비중(%)	백만달러
전지역	137,551	100.0	45,778	100.0	3.00
아시아	63,219	46.0	30,994	67.7	2.04
중국	28,600	20.8	20,101	43.9	1.42
홍콩	9,142	6.6	1,242	2.7	7.36
베트남	5,489	4.0	1,892	4.1	2.90
인도네시아	3,667	2.7	1,215	2.7	3.02
싱가포르	2,839	2.1	396	0.9	7.17
일본	2,759	2.0	1,615	3.5	1.71
인도	1,738	1.3	439	1.0	3.96
중동	1,828	1.3	351	0.8	5.21
북미	33,208	24.1	10,127	22.1	3.28
미국	29,295	21.3	9,655	21.1	3.03
캐나다	3,913	2.8	472	1.0	8.29
중남미	10,711	7.8	997	2.2	10.74
브라질	113,1	0.8	116	0.3	9.75
유럽	23,152	16.8	1,858	4.1	12.46
네덜란드	4,781	3.5	124	0.3	38.56
영국	4,198	3.1	233	0.5	18.02
러시아	1,396	1.0	326	0.7	4.28
아프리카	2,106	1.5	294	0.6	7.16
대양주	3,327	2.4	1,157	2.5	2.88

주: 법인당 투자금액은 투자금액을 신규법인 수로 나눈 수치임.

- 2009년 말 현재 누적투자액 기준 산업별 구조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아시아지역은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5.4%로 가장 높음.

- 일본을 제외하고는 개도국이어서 한국 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가깝다는 점에서도 생산기지로서 아시아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음.
- 아시아 다음으로는 유럽과 북미가 제조업 비중이 각각 42.0%, 28.8%의 순으로 이들 지역은 거대시장이어서 시장 접근형 투자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됨.
- 아프리카와 중동은 광업투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55.7%와 53.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매우 낮은 지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유럽과 중남미 지역의 경우에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의 비중이 각각 14.3%와 13.3%로 다른 지역보다 매우 높음.
- 이는 거대 지역의 현지법인들을 관할하는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가 많기 때문임.
- 중남미 지역의 경우 광업투자 비중이 22.4%로 높고 제조업은 이보다 낮은 19.0%이어서 제조업 투자가 활발하지 않음.

<표Ⅱ-2-2> 산업별/지역별 투자 구조(2009년말 누적 기준)

단위: %

지역	아시아	중동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대양주
농림어업	0.5	0	0.3	1.2	0.4	0.5	6.1
광업	4.5	53.6	16.8	22.4	6.5	55.7	42.7
제조업	55.4	14.2	28.8	19	42	10.1	7.5
건설업	3.6	13.1	1.7	0.7	1.8	1.9	4.1
도매및소매업	9.5	7.9	27.2	6.5	18.9	10.9	13.8
금융및보험업	7.6	0.6	1.9	24.6	2.2	0.4	2.7
부동산업 및 임대업	7.4	7.7	5.6	6.6	8	5.3	10
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업	2.9	0.4	6.4	13.3	14.3	0.5	0.1

주: 대분류 기준으로 주요 산업만 표에 포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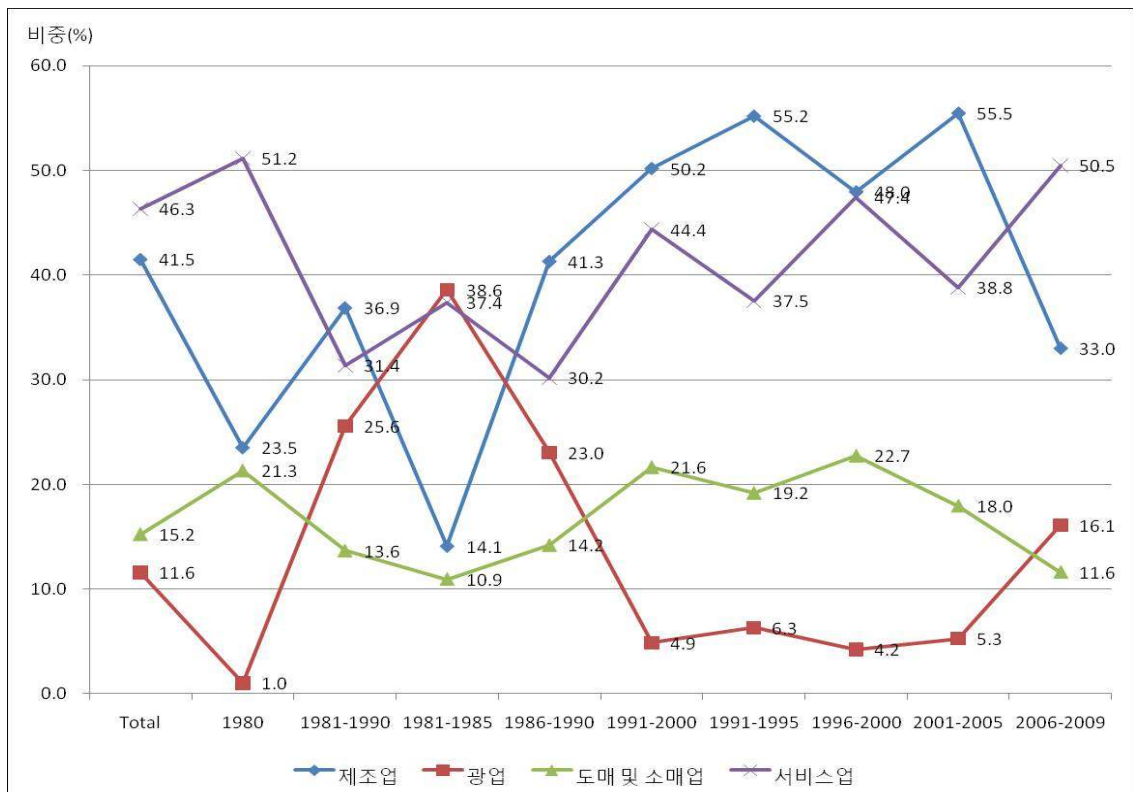
3. 산업별 구조

○ 산업별로는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누적액이 2009년 말 현재 571억 달러로 전체 투자의 41.5%를 차지하고, 도매 및 소매업이 15.2%, 광업이 11.6%의 순서임.

- 제조업의 경우에는 90년대 중반에는 전체 투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서비스업 및 광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비중이 40% 이하로 감소하였음.

<그림 II-3-1> 주요 산업별 투자 비중의 추이

단위: %



○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업종의 투자 비중이 누적 투자액 기준으로 각각 26.7%와 14.8%로 가장 큼.

○ 서비스업은 2009년 말 누적 투자액 기준으로 도매 및 소매업의 비

중이 32.9%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15.1%, 금융 및 보험업이 13.8%,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이 13.7%의 순임.

- 소분류 기준으로는 소매업이 22.2%, 부동산업이 11.3% 그리고 전문서비스업의 12.9% 순임.

4. 기업규모, 투자목적 및 형태별 구조

(1) 기업규모별 구조

- 2009년 말 기준으로 누적 해외직접투자를 주 투자자별¹¹⁾로 살펴보면, 투자액에서는 대기업이 70.9%, 중소기업이 24.7%를 차지함.

- 최근 부동산 투자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이 차지하는 투자액 비중은 3.5%임.

- 동년 기준으로 투자액을 보면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법인 수를 보면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해외법인 설립이 더 많음.

- 누적 신규법인 수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8%에 지나지 않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그 수치가 49.4%, 개인의 경우 그 수치가 32.4%에 이름.

- 이는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시행한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한국인의 해외진출이 상당히 활발하다는 증거이기도 함.

11) 동일 해외법인에 다수의 투자자가 투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장 큰 투자자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임.

<표Ⅱ-4-1> 주 투자자별 투자 구조(2009년말 누적 기준)

기업규모	투자금액		신규법인 수	
	백만달러	비중(%)	백만달러	비중(%)
합 계	137,547	100.0	45,770	100.0
대기업	97,584	70.9 (74.1)	4,957	10.8 (22.9)
중소기업	34,024	24.7 (25.9)	22,604	49.4 (77.1)
개인기업	879	0.6	3,322	7.3
개인	4,819	3.5	14,834	32.4
기타(비영리단체 등)	241	0.2	53	0.1

주: ()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합계로 한 비중임.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업 규모별 구조 추이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표Ⅱ-4-1>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을 분모로 하여 대기업의 투자액 및 신규법인 수 비중 추이를 표시함.

- 투자액에서는 대기업 비중(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합으로 한)이 80년대 초 중반 90%를 웃돌기도 하였으나 그 이외의 기간은 다소 변동성은 있으나, 70% 내외임.¹²⁾

- 대조적으로 신규법인 수에서 차지하는 대기업 비중(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합으로 한)은 80년 초반의 65% 내외에서 감소세를 나타내 2003년에는 10.9%로 최저를 기록함. 외환위기 다음 해인 1998년 이후에는 10~20% 사이에 머무름.

○ <그림Ⅱ-4-1>에는 전체 투자자가 창출한 투자액 및 신규법인 수 중 개인 투자자의 비중도 연도별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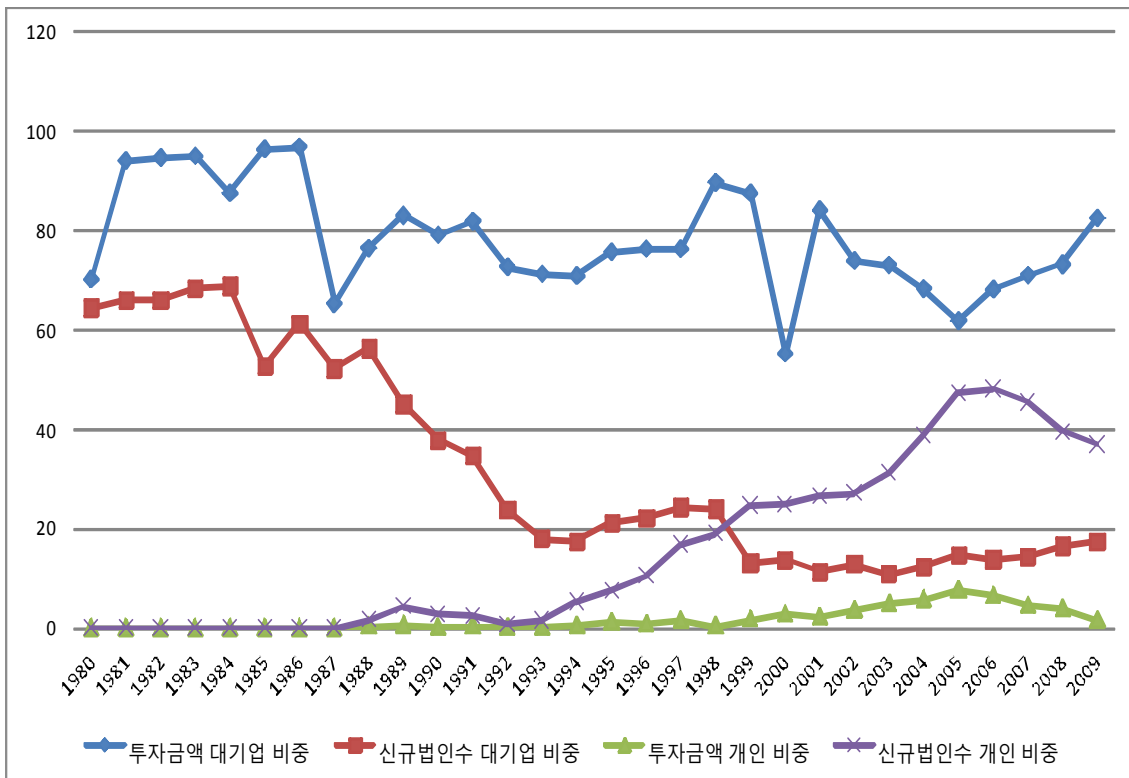
- 투자액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에 커지기는 하였으나 5% 내외에 그침.

12) 1986년의 경우 이 비중이 94.6%에 달하기도 하였음.

- 신규법인 수의 개인투자자 비중은 90년 중반 이후부터 상승하여 2006년 48.1%를 정점으로 이후 약간 하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2000년대 들어 개인 투자자의 해외진출이 어느 정도 활발한지를 보여 주는 것임.

<그림 II-4-1> 주 투자자별 투자액 및 신규법인 수 비중 추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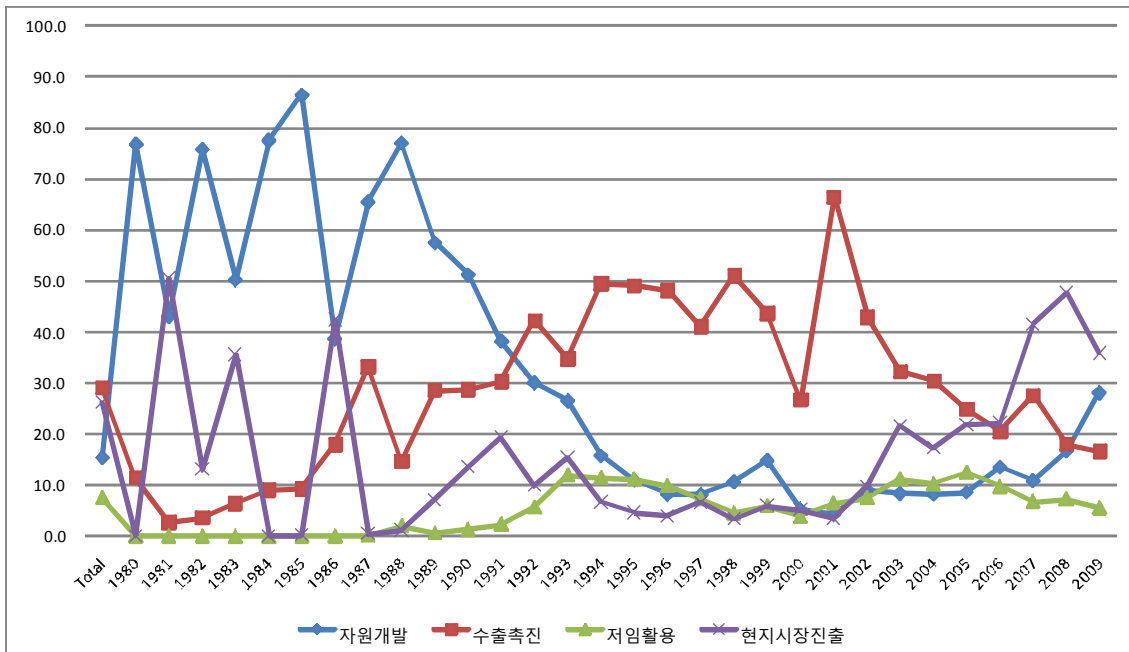
- 주: 1) 투자금액 및 신규법인 수 대기업비중은 전체가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에 의한 비중임.
- 2) 신규법인수 개인비중은 전체 신규법인 수 대비 개인 투자자의 신규법인 수 비중임.

(2) 투자목적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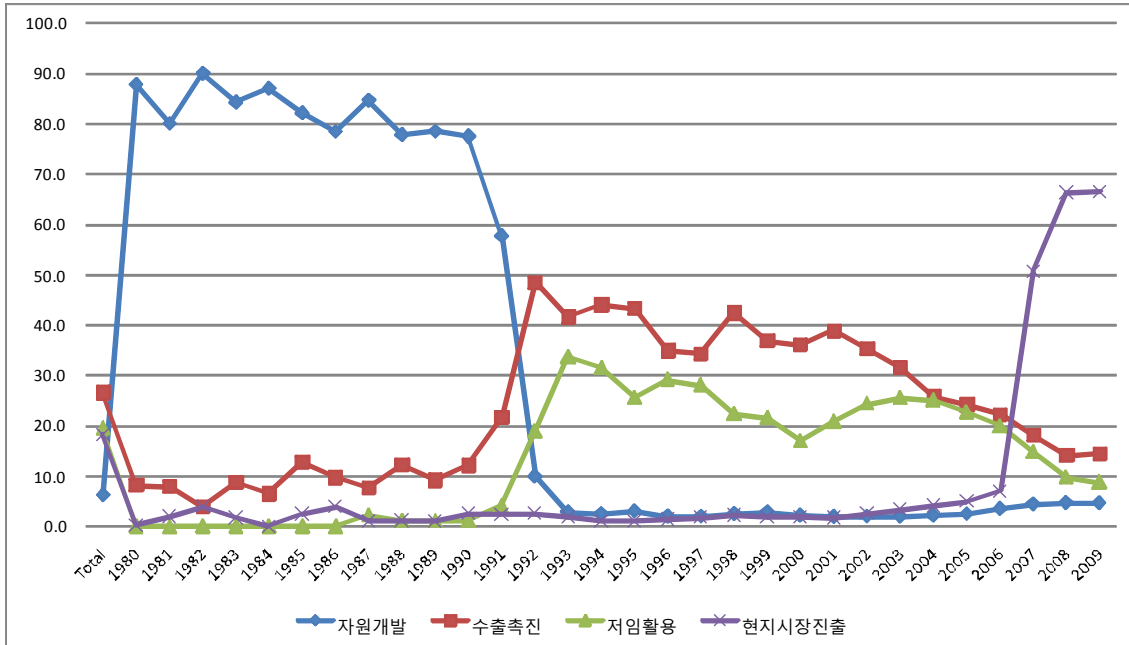
- 투자금액 기준으로 전체 기간 동안의 투자목적별 비중을 살펴보면, 수출촉진이 29.2%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현지시장 진출이 26.2%, 자원개발이 15.4% 순임.
- 신규법인 수 기준의 전체 기간 동안의 투자목적별 비중의 경우, 수출촉진이 여전히 가장 큰 2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저임활용이 19.5% 순서임.
- 투자금액 기준과 현지법인 수 비중에서 순서가 뒤바뀌는 것은 자원개발은 법인 당 투자액이 큰 반면, 기타나 저임활용은 소규모이기 때문임.

<그림 II-4-2> 투자목적별 투자금액 비중 추이

단위: %



<그림 II-4-3> 투자목적별 신규법인 수 비중 추이



○ 투자 목적별 시계열 자료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현지시장 진출의 비중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임.

- 투자금액의 경우 현지시장 진출 비중은 2005년에 21.8%, 2007년에 41.5%, 2009년에 35.8%로 2000년대 후반 들어 상당히 증가함.
- 신규법인 수의 경우 현지시장 진출 비중이 2005년 5.0%, 2007년 50.6%, 2009년 66.5%로 나타나, 그 증가가 매우 급격함.
- 이는 2000년 대 들어와 현지시장 개척이 주로 대규모 투자 중심이었다가 최근 들어 소규모 투자의 경우에도 현지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줌.
- 이전 시기에도 모두 투자금액 비중이 높아 대규모 투자가 현지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음.

- 80년대 초반 한때 투자금액 기준으로 현지시장 진출 비중이 20.6%로 높았던 적이 있지만, 신규법인 수 기준으로는 2.1%에 불과함.
 - 이는 최근에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목적 면에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려줌.
- 해외직접투자의 목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출촉진은 90년대에는 투자금액 기준과 신규법인 수 기준으로 모두 40%를 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임.
- 그 수치가 투자금액의 경우 2001년(66.4%), 신규법인 수의 경우 1992년(48.5%)에 최고치를 기록함.
 - 그러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9년 기간에는 각각 그 수치가 16.6%와 14.5%를 나타냄.
 - 이는 해외직접투자의 목적이 수출촉진에서 현지시장 진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요인으로 그동안 지적되었던 저임 활용을 시기별로 보면, 원화 평가절상이나 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던 90년대 초반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는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2000년대 후반에는 그 비중이 낮아짐.
- 2000년대 초반에는 투자 금액으로는 그 비중이 대략 10%(2001년 7.6%, 2003년 10.3%)정도에 머무르나, 신규법인 수로는 25% 내외에 이름(2002년 24.4%, 2003년 25.0%).
 - 그러나, 최근 들어 신규법인 수 기준으로 비중이 꾸준히 낮아져 그동안 저부가가치 산업의 구조조정이 상당 수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2007년 14.8%, 2009년 8.7%).

- 자원개발의 경우에는 1990년까지 비중이 70% 내외로 매우 높았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의 자원 가격 상승세를 기초로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가 1980년대까지는 주로 자원개발과 수출 촉진인 경우에 승인되었던 정책 및 제도의 특성을 반영함.
- 2000년대 후반에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자원개발의 비중이 비교적 상승세(2007년 10.9%, 2008년 16.8%, 2009년 28.1%)인데 반해, 신규법인 수 기준으로는 그 비중이 매우 낮음(2007년 4.4%, 2008년 4.7%, 2009년 4.7%)에 불과함.
- 이는 1980년대에 신규법인 수 비중이 더 높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공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많았기 때문임¹³⁾.

(3) 설립 형태별 구조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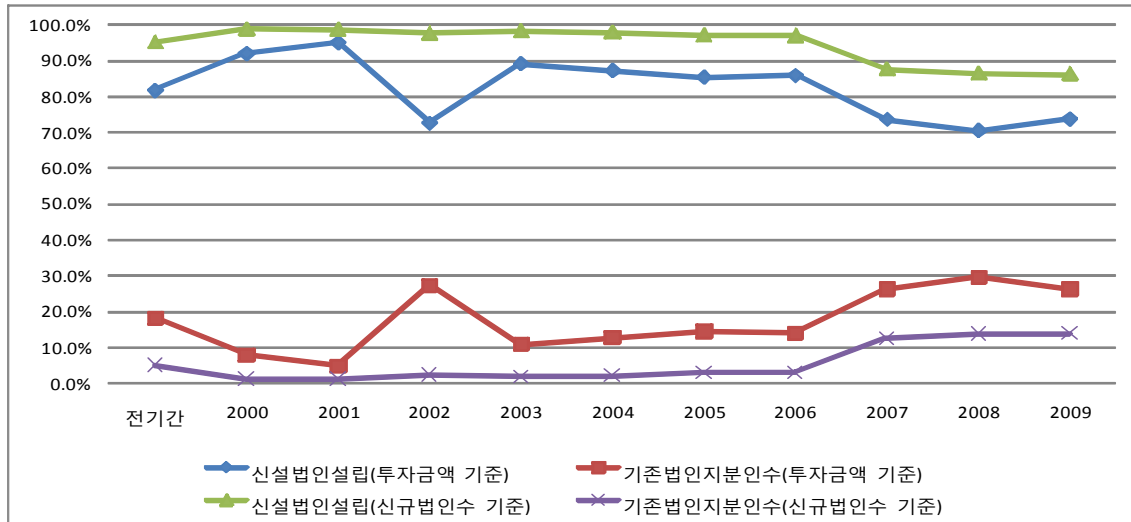
- <그림Ⅱ-4-4>의 설립형태 비중 추이를 종합해 볼 때, M&A가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신규법인수 기준으로 볼 때, 이 비중이 2000년대 초중반에 3% 미만(2001년 1.2%, 2003년 1.8%, 2005년 2.9%)이었으나, 2000년대 후반에 들어 10%를 초과함(2007년 12.5%, 2009년 13.9%)
- 투자금액 기준으로 볼 때, 2000년대 후반 들어 이 비중이 크게 상승함.(2007년 23.6%, 2009년 23.6%)
- 다만, 신설 법인 설립의 경우도 M&A가 있을 수 있기에 M&A 비중이 다소 과소 평가되었다고 할 수는 있음¹⁵⁾.

13) 공기업의 투자 동향은 한국수출입은행,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수은 해외경제」 2010. 8 참조.

14) 투자 유형별은 신규법인 수 기준으로 분석함.

<그림 II -4-4> 설립형태별 투자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전 기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신설법인설립 (투자금액 기준)	81.7	92.0	95.0	72.6	89.1	87.2	85.4	86.0	73.7	70.4	73.7
기존법인지분인수 (투자금액 기준)	18.3	8.0	5.0	27.4	10.9	12.8	14.6	14.0	26.3	29.6	26.3
신설법인설립 (신규법인수 기준)	95.0	98.8	98.8	97.7	98.2	97.9	97.1	97.0	87.5	86.3	86.1
기존법인지분인수 (신규법인수 기준)	5.0	1.2	1.2	2.3	1.8	2.1	2.9	3.0	12.5	13.7	13.9

- 15) 현행 통계에서는 신주 인수는 신설법인 설립으로 집계되지만, M&A 경우에 다양한 형태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임.

5. 요약 및 시사점

- 해외직접투자의 동향 및 구조 분석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현지시장 진출(과거: 수출촉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임.
- 두 번째로는 지주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 이는 한국의 다국적 기업이 점차 효율적인 투자를 추구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조조정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음.
- 세 번째로는 투자 대상국가가 중국 및 미국에서 점차 다원화된다는 점임.
- 이와 같은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우선, 투자목적의 변화를 고려, 현지시장의 분석과 정보제공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는 투자대상국의 다양화에 대비하여 아프리카, 남미 등 주요 투자대상국이 아닌 국가들에 대한 정보 생산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저임국가들에 대한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통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 2010년 해외직접투자 동향¹⁶⁾

○ 2010년 투자액 229.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였던 2008년 수준 근접

- 2009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15.7% 투자액이 감소했으나 2010년에는 14.3%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며, 5년간 연평균 20%대의 증가 추세

<그림 II-4-5 > 최근 5년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 해외자원개발, M&A, 금융업 투자 등으로 투자규모 대형화 추세

- 신규법인 건수 증가율(5.2%)에 비해 투자금액 증가율(14.3%)이 월등하게 나타나는 등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현상이 강화되고 있음.

○ 공기업, 국민연금 등 공공 부문의 투자 비중 증가 추세 지속

- 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와 국민연금의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36.2%로 급증

16) 본 보고서의 현지법인의 경영성과와 對현지법인 수출입 현황은 통계 활용이 가능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를 분석 기간으로 하였으며, 본문에서는 이와 비교가 용이하도록 우리나라 해외투자동향을 2009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표 II-5-1> 2010년 부문별 해외직접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민간 부문	10,427.4	20,847.7	21,804.1	13,522.5	14,796.4
공공 부문	1,192.5	1,372.3	2,041.0	6,571.3	8,389.6
공공기관	870.3	1,279.1	1,966.3	4,617.8	5,899.3
연기금	322.3	93.2	74.7	1,953.5	2,490.3

○ (지역별) 아시아와 중남미 투자 증가, 북미 투자 감소

- 전년도 특히 부진했던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각각 제조업, 광업 중심으로 되살아나며 전체 투자액 증가를 견인

·증가율: 아시아('09년△43.2%→'10년41.0%), 중남미(△50.5%→86.2%)

- 유럽 지역은 투자가 증가한 반면 북미는 감소하면서, 지역별 투자비중은 아시아 40.7%, 유럽 25.5%, 북미 19.4%, 중남미 8.4% 순

·투자상위 5개국(억달러): 영국(32.8), 미국(32.5), 중국(31.0), 말레이시아(15.6), 홍콩(12.5)

<그림 II-4-6> 2010년 지역별 해외직접투자동향

단위: 억 달러



○ (업종별) 광업, 제조업, 금융·보험업 상위 3개 업종 투자 증가

- 해외 자원개발 활성화에 힘입은 광업 투자 증가, 과거 2년간 감소했던 제조업 투자 증가,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등에 따른 금융·보험업 투자 증가가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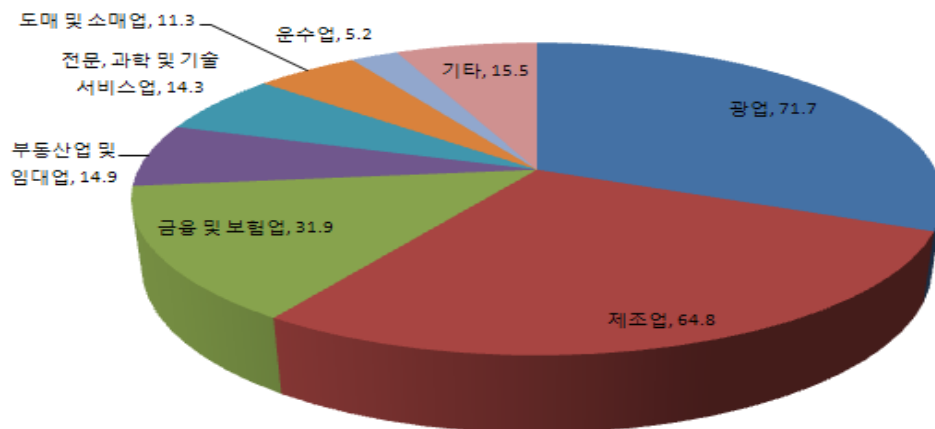
·투자액증가율: 광업(32.1%), 제조업(41.8%), 금융 및 보험업(80.0%)

-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투자비중 1위인 광업은 유럽, 중남미를 중심으로 2위, 3위인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은 각각 아시아, 북미를 중심으로 대폭 증가세를 보이며 투자비중을 더욱 확대

·투자비중: 광업(27.0%→31.2%), 제조업(22.7%→28.2%), 금융 및 보험업(8.8%→13.9%)

<그림 II-4-7 > 2010년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단위: 억 달러



제 III 장

해외현지법인의 경영 성과

1. 현지법인의 매출입

1) 개관

- 현지법인의 매출은 2009년에 3,712억 달러(3,654개 현지법인, 투자 잔액 730억 5천만 달러 기준)로 집계됨.
 - 이중 제조업 현지법인은 1,834억 4천만 달러(2,076개 현지법인, 투자 잔액 319억 8천만 달러 기준)로 전체 현지법인 매출의 49.4%에 해당함.
- 쏘산업 현지법인의 매출액은 2009년 총 수출 대비 102.1%,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출은 총 수출대비 50.5%에 달함.
 - 전수 통계가 아니어서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해외 직접투자가 2004년 이후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비율은 증가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쏘산업 및 제조업의 동 비율이 2005년 각각 69.3%와 29.8%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하였음.
- 현지법인의 매입은 2009년 3,152억 1천만 달러로 총 수출의 87.2%,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입은 1,508억 6천만 달러로 총 수출의 41.5%에 달함.
 - 마찬가지로 현지법인의 매입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 현지법인은 매출과 매입 모두에서 확대추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현지법인의 매출입 확대는 투자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법인 수가 증가함은 물론 법인 규모 자체도 확대되는데 따른 것임.

<표Ⅲ-1-1> 소산업 및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출입 추이

구 분		기업수	매출			매입		
		개사	백만 달러	증가율 (%)	비율 (%)	백만 달러	증가율 (%)	비율 (%)
소 산업	2009	3,654	371,272	3.5	102.1	315,212	8.3	86.7
	2008	3,524	358,673	14.8	85.0	291,097	13.0	69.0
	2007	2,951	312,456	5.2	84.1	257,593	-1.0	69.3
	2006	2,153	296,989	50.6	91.3	260,190	57.4	79.9
	2005	1,468	197,155	-	69.3	165,332	-	58.1
제 조 업	2009	2,076	183,430	10.8	50.5	150,864	9.3	41.5
	2008	2,089	165,503	6.2	39.2	138,035	16.7	32.7
	2007	1,899	155,863	-5.9	42.0	118,245	-18.7	31.8
	2006	1,435	165,692	95.7	50.9	145,528	101.3	44.7
	2005	974	84,656	-	29.8	72,280	-	25.4

주: 1)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비율 = 현지법인의 매출입 / 한국 총수출입

○ 통계 비교가 가능한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크게 뒤져 아직 우리 기업의 세계화가 확대될 여지가 많음.

- 미국의 경우 소산업 현지법인 매출이 2008년 총수출의 469.4%, 제조업 현지법인이 총수출의 209.9%에 달함.

- 일본의 경우 소산업 현지법인 매출이 2009년 총수출의 305.2%, 제조업 현지법인 매출이 총수출의 146.1%임.

·특히, 일본의 경우 2009년 총 수출이 엔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비33.1%나 감소하여 해외법인의 영업활동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여 이 비율이 크게 상승함.

○ 참고로 미국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대수출 매출 비율이 안정적이
고 일본의 경우 완만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일본의 경우 특히, 2008년에는 매출이 쉐업 및 제조업 모두 절
대액으로도(엔화 기준) 감소하였는데 이는 엔화의 평가절상에 기
인하는 것으로 판단
- 다만, 일본의 경우 전수 조사 통계가 아니어서 분석의 한계가 있
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세를 보여준
다고는 할 수 있음.
- 한국은 기업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세계화가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Ⅲ-1-2> 일본 및 미국 현지법인 매출입의 對총수출 비율 추이

단위: %

연도	일 본				미 국	
	매 출		매 입		매 출	
	쉐업	제조업	쉐업	제조업	쉐업	제조업
2009	305.2	146.1	231.9	108.3	-	-
2008	248.9	112.5	199.8	85.2	469.4	209.9
2007	281.4	132.3	224.8	99.6	474.9	213.8
2006	283.2	131.8	229.0	101.4	461.7	213.0
2005	281.4	133.0	224.1	98.6	480.9	225.8
2004	265.9	129.4	215.1	96.4	469.3	223.0
2003	266.1	130.2	209.9	93.6	458.0	216.4
2002	264.8	123.9	201.2	84.5	425.0	201.0
2001	275.3	130.6	207.1	89.2	404.0	183.8
2000	249.8	108.8	180.2	71.5	371.6	173.0
1999	250.8	106.9	181.5	70.8	375.4	184.5

자료: 일본 경산성, 미국 BEA

- 이와 같은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 스톡의 대GDP 비율을 살펴보면, 2009년 말 현재 한국은 14.5%로 일본의 14.6%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미국의 28.7%에 비해서는 크게 낮음.
- 이와 같은 통계에서도 한국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기업 세계화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일본 해외직접투자 스톡의 對GDP 비율이 낮은 것은 통계작성의 차이로 추정됨.
- 2007년 한국이 7.1%, 일본이 12.4%이었다가 그 이후 해외직접투자의 대GDP 비율이 양국간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2009년 비슷한 수준으로 된 것은 통계 측정상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

<표Ⅲ-1-3> 해외직접투자의 對GDP 비율의 국별 비교

단위: %

연도	해외직접투자/GDP			해외직접투자 스톡/GDP		
	한 국	일 본	미 국	한 국	일 본	미 국
2009	2.1	1.5	1.9	14.5	14.6	28.7
2008	2.2	2.7	2.4	10.5	13.9	26
2007	1.5	1.7	2.9	7.1	12.4	25.3
2006	0.9	1.2	1.8	5.2	10.3	22
2005	0.5	1	0.3	4.6	8.5	21
2004	0.6	0.7	2.7	4.5	8	21.1
2003	0.5	0.7	1.3	3.9	7.9	18.4
2002	0.5	0.8	1.5	3.6	7.8	17.5
2001	0.5	0.9	1.4	4	7.3	16.5

자료: IMF

2) 산업별 매출입

- 산업 대분류별로는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현지법인의 매출액 비중이 2009년 기준으로 각각 49.4%와 42.4%로 전체 매출액의 91.8%

를 차지하고 있음.

-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국내 제조업 대기업이 해외 시장에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현지법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투자잔액 대비해서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광업의 경우에는 투자잔액과 비교할 때 매출액 규모가 낮은 편인데, 이는 매출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탐사나 개발 단계의 유전, 광구에 대한 투자가 다수 포함되어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매입의 경우에도 위 두 업종의 비중 합계가 92.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하 대분류 분석은 매출액 상위 7개 업종을 선별하여 분석함.

○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금액면에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매출 증가분이 소산업 매출 증가분의 85.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09년 매출액을 2005년과 비교하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17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부동산업 및 임대업도 9.4배로 소산업 증가율 1.9배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표Ⅲ-1-4> 산업 대분류별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산 업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조업	84,656	165,692	155,863	165,503	183,430
도매및소매업	106,885	119,934	139,719	165,944	157,507
광업	1,454	1,767	2,193	4,116	7,605
부동산업및임대업	780	1,064	1,487	1,446	7,315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71	132	295	3,663	3,022
건설업	102	351	963	2,266	1,813
운수업	2,474	7,310	9,962	12,009	8,426
기타	632	740	1,975	3,727	2,153
소산업	197,155	296,989	312,456	358,673	371,272

<표Ⅲ-1-5> 산업 대분류별 매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산 업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조업	7,727	26,322	27,802	35,691	36,135
도매및소매업	16,501	11,952	15,567	20,859	16,396
광업	479	397	307	910	1,212
부동산업및임대업	148	213	263	326	23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1	13	21	29	834
건설업	0	4	12	308	144
운수업	232	408	436	954	907
기타	40	31	92	84	101
총산업	197,155	296,989	312,456	358,673	371,272

<표Ⅲ-1-6> 2009년 산업 대분류별 매출입액 구조

단위: 백만 달러, 배

업 종	매출액 법인수	매출액 투자잔액	매입액 법인수	매입액 투자잔액
제조업	88.4	5.7	72.7	4.7
도매및소매업	350.8	11.4	314.9	10.3
광업	57.2	0.9	30.4	0.5
부동산업및임대업	20.5	1.2	18.1	1.0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33.6	0.6	30.6	0.5
건설업	16.3	1.0	12.3	0.7
운수업	82.6	5.3	70.3	4.5
기타	6.4	0.6	3.6	0.3
총산업	101.6	5.1	86.3	4.3

○ 제조업 중분류별¹⁷⁾로는 전기전자 제조업이 515억 7천만 달러, 자동차 제조업이 408억 7천만 달러, 금속가공 제조업¹⁸⁾ 291.4억 달러 등이 매출액 규모가 크게 나타남.

- 동 업종들은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각각 28.1%, 22.3%, 15.9%로 총 6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매입액의 제조업 중분류별 추이와 비중의 경우에도 업종 대분류별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출액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남.

<표Ⅲ-1-7> 제조업 중분류별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업 종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기전자	26,762	33,302	37,693	47,609	51,571
자동차	13,933	19,193	37,922	26,522	40,874
1차금속	4,300	5,310	6,816	7,417	6,678
금속가공	13,042	17,408	24,346	24,686	29,143
화학	2,194	3,852	6,314	6,784	6,873
섬유	1,148	1,385	1,984	1,991	1,586
의복	978	1,668	2,160	2,158	2,006
식료품	764	1,095	1,696	2,318	2,616
비금속 광물	470	732	847	1,170	954
기타 기계	1,566	2,618	2,402	3,920	3,512
기타 운송장비	434	591	887	2,634	3,082
전기장비	619	1,170	1,736	5,335	5,307
고무 및 플라스틱	1,351	1,428	2,203	2,380	3,323
기타 제품	17,095	75,938	28,859	30,579	25,906
제조업 합계	84,656	165,692	155,863	165,503	183,430

17) 중분류별 분석의 경우 국내기업이나 일본과의 비교 가능성 및 통계치의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제조 업종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별하였으며, 세부 중분류별 추이는 <부록표1>에 수록하였음.

18) 금속가공 제품의 경우도 실제로는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 생산 현지법인이 다수 존재하는 바, 전기전자 관련 제조업의 매출액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표Ⅲ-1-8> 제조업 중분류별 매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업 종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기전자	22,703	29,781	32,348	37,783	43,640
자동차	12,119	13,760	19,655	22,432	34,186
1차금속	3,942	4,440	5,572	6,014	5,679
금속가공	10,286	14,649	18,774	20,284	24,143
화학	1,635	2,844	4,478	5,253	5,844
섬유	838	993	1,335	1,432	1,092
의복	610	938	1,348	1,439	1,401
식료품	536	730	982	1,140	1,857
비금속 광물	204	349	464	593	620
기타 기계	1,450	2,191	1,914	3,360	3,259
기타 운송장비	261	503	756	2,220	3,106
전기장비	425	785	1,340	5,261	4,566
고무 및 플라스틱	1,021	704	1,819	2,043	2,490
기타 제품	16,251	72,860	27,459	28,781	18,980
제조업 합계	72,280	145,528	118,245	138,035	150,864

○ 한편, 제조업 현지법인 당 매출액은 2009년에 9천만 달러를 기록, 도소매업의 3억 5천만 달러에는 못 미치나 타 업종에 비해서는 큼.

- 제조업 중에서는 금속가공 제조업 2억 3천만 달러, 자동차 제조업 1억 3천만 달러, 전기전자 제조업 1억 3천만 달러 순으로 높음.

- 제조업 중 노동집약적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섬유, 의복, 신발 등 제조업의 경우는 1천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 내외로 낮음.

○ 매출액 대비 투자잔액의 경우에도 도매 및 소매업의 11.4배와 비교할 때 낮으나, 법인 당 매출액에 비해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음.

- 제조업 중에는 금속가공 제조업이 도매 및 소매업보다 높은 16.3 배를 기록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동차 제조업, 전기전자 제조업 등이 소산업의 평균인 5.1배 대비해서 높게 나타남.

<표Ⅲ-1-9> 2009년 제조업 중분류별 매출입 구조

단위: 백만 달러, 배

업 종	매출액 법인수	매출액 투자잔액	매입액 법인수	매입액 투자잔액
전기전자	130.2	6.5	110.2	5.5
자동차	133.6	6.6	111.7	5.5
1차금속	55.2	2.3	46.9	1.9
금속가공	227.7	16.3	188.6	13.5
화학	40.2	3.4	34.2	2.9
섬유	16.7	1.7	11.5	1.2
의복	13.1	2.3	9.2	1.6
식료품	30.4	1.9	21.6	1.4
비금속 광물	20.7	0.9	13.5	0.6
기타 기계	28.8	3.3	26.7	3.0
기타 운송장비	75.2	1.7	75.7	1.7
전기장비	59.6	4.6	51.3	4.0
고무 및 플라스틱	60.4	3.8	45.3	2.8
기타 제품	97.0	13.0	71.1	9.6
제조업 합계	88.4	5.7	72.7	4.7

3) 지역별 매출입

○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9년 아시아 현지법인의 매출이 전 지역의 55.1%인 2,047억 5천만 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북미가 18.5%를 차지함.

- 아시아와 유럽은 매출비중이 투자잔액 비중보다 커서 이들 지역의 현지법인이 투자액 대비 매출이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음.

<표Ⅲ-1-10> 2009년 소산업 현지법인의 지역별 매출입 구조

지역	기업수	매출		매입		투자 잔액	
	개사	백만 달러	비중 (%)	백만 달러	비중 (%)	백만 달러	비중 (%)
대양주	79	4,879	1.3	3,770	1.2	2,064	2.8
북미	528	68,757	18.5	59,606	18.9	19,790	27.1
아시아	2,514	204,749	55.1	172,428	54.7	33,286	45.6
아프리카	24	1,714	0.5	1,447	0.5	988	1.4
유럽	314	76,222	20.5	66,720	21.2	12,371	16.9
중남미	159	11,868	3.2	8,400	2.7	4,137	5.7
중동	36	3,083	0.8	2,841	0.9	416	0.6
전지역	3,654	371,272	100.0	315,212	100.0	73,053	100.0

○ 2005년 대비해서 아시아 지역 현지법인의 매출액이 939억 5천만 달러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이어 유럽, 북미 순으로 이 들 세 지역의 증가 금액이 전 지역 증가분의 93.2%를 차지함.

- 증가율 면에서는 주요 투자 지역인 아시아, 북미, 유럽 지역이 2005년 대비 1.8배, 1.8배, 2.0배 증가하였으며, 기타 지역 중에는 중동 지역이 2.9배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

<표Ⅲ-1-11> 소산업 현지법인의 지역별 매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지 역	2005	2006	2007	2008	2009
대양주	1,778	3,663	5,003	4,166	4,879
북미	38,990	39,750	45,988	75,923	68,757
아시아	110,804	198,233	187,883	205,324	204,749
아프리카	1,045	1,176	1,498	1,542	1,714
유럽	37,619	44,852	60,927	58,903	76,222
중남미	5,840	8,319	9,287	9,811	11,868
중동	1,079	997	1,870	3,004	3,083

<표Ⅲ-1-12> 조선업 현지법인의 지역별 매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지 역	2005	2006	2007	2008	2009
대양주	1,452	2,962	3,832	3,347	3,770
북미	33,082	30,593	39,083	55,591	59,606
아시아	93,721	178,638	151,046	173,681	172,428
아프리카	766	913	1,145	1,084	1,447
유럽	31,015	39,294	53,549	47,071	66,720
중남미	4,272	6,816	7,202	7,762	8,400
중동	1,025	975	1,736	2,561	2,841

○ 제조업 현지법인만을 보면, 아시아 현지법인의 매출 비중이 전체 제조업 현지법인의 3/4에 육박할 정도로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음.

- 2009년 아시아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출은 전 지역의 73.9%인 1,354억 9천만 달러에 달함.
- 실적을 보고한 현지법인의 투자잔액이 전 지역의 65.8%로 2009년 말 현재 누계 투자액의 비중인 46.0%를 크게 상회하기는 하나, 최근 해외투자가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에 집중된 사실을 고려하면 적절하다고 추정됨.

<표Ⅲ-1-13> 2009년 지역별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출입 구조

지 역	기업수	매출		매입		투자 잔액	
	개사	백만 달러	비중 (%)	백만 달러	비중 (%)	백만 달러	비중 (%)
대양주	7	455	0.2	373	0.2	121	0.4
북미	161	10,696	5.8	9,163	6.1	4,234	13.2
아시아	1,675	135,486	73.9	110,081	73.0	21,050	65.8
아프리카	8	275	0.1	234	0.2	39	0.1
유럽	155	30,339	16.5	26,425	17.5	5,092	15.9
중남미	59	5,536	3.0	4,021	2.7	1,314	4.1
중동	11	644	0.4	568	0.4	134	0.4
전지역	2,076	183,430	100.0	150,864	100.0	31,983	100.0

<표Ⅲ-1-14> 제조업 현지법인의 지역별 매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지 역	2005	2006	2007	2008	2009
대양주	100	375	470	530	455
북미	4,434	7,879	10,312	11,936	10,696
아시아	63,993	139,673	121,734	127,628	135,486
아프리카	132	108	80	306	275
유럽	12,747	13,471	17,985	19,154	30,339
중남미	3,250	4,186	5,032	5,281	5,536
중동	0	0	250	667	644
전지역	84,656	165,692	155,863	165,503	183,430

<표Ⅲ-1-15> 제조업 현지법인의 지역별 매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지 역	2005	2006	2007	2008	2009
대양주	60	274	412	364	373
북미	3,594	5,957	7,866	10,016	9,163
아시아	55,578	123,630	90,349	107,393	110,081
아프리카	69	32	61	64	234
유럽	10,555	12,209	15,490	15,604	26,425
중남미	2,423	3,425	3,861	4,167	4,021
중동	0	0	207	427	568
전지역	72,280	145,528	118,245	138,035	150,864

- 국별로는 거대 투자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가운데 미국 현지법인의 매출은 중국에 비해 투자액 대비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중국 현지법인의 매출이 전체 현지법인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5.5%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미국 현지법인이 17.6%를 차지함.
 - 투자 잔액으로는 미국 현지법인이 23.4%이고 다음으로 중국 현지법인이 23.3%임.
 - 이는 미국의 물가가 높아 초기 투자규모가 크다는 점과 중국 투자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고, 그리고 법인당 투자규모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커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투자액 대비 매출액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표Ⅲ-1-16> 2009년 주요 국가별 소산업 매출입 구조

국 가	기업수	매출		매입		투자 잔액	
	개사	백만 달러	비중 (%)	백만 달러	비중 (%)	백만 달러	비중 (%)
미국	486	65,346	17.6	56,846	18.0	17,067	23.4
네덜란드	23	3,616	1.0	3,140	1.0	1,616	2.2
러시아	43	5,283	1.4	4,383	1.4	877	1.2
베트남	286	5,044	1.4	3,958	1.3	2,447	3.3
브라질	15	5,298	1.4	3,400	1.1	1,515	2.1
싱가포르	47	21,566	5.8	21,004	6.7	1,527	2.1
영국	26	7,288	2.0	5,732	1.8	2,625	3.6
인도	72	9,281	2.5	7,073	2.2	891	1.2
인도네시아	125	9,697	2.6	6,718	2.1	1,284	1.8
일본	124	19,430	5.2	12,875	4.1	1,351	1.8
중국	1,360	94,563	25.5	79,182	25.1	16,990	23.3
캐나다	42	3,411	0.9	2,760	0.9	2,724	3.7
홍콩	137	17,890	4.8	17,023	5.4	5,159	7.1
소계	2,786	267,714	72.1	224,094	71.1	56,072	76.8
전국가	3,654	371,272	100.0	315,212	100.0	73,053	100.0

<표Ⅲ-1-17> 주요 국가별 조산업 매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 가	2005	2006	2007	2008	2009
미국	37,109	37,541	44,056	72,471	65,346
네덜란드	1,624	1,491	2,704	3,519	3,616
러시아	38	275	2,300	4,961	5,283
베트남	1,537	1,955	2,805	3,793	5,044
브라질	2,454	3,409	3,997	4,391	5,298
싱가포르	23,992	32,226	33,266	34,456	21,566
영국	3,485	6,543	9,817	10,551	7,288
인도	1,397	3,741	6,421	5,515	9,281
인도네시아	3,058	4,984	6,189	7,578	9,697
일본	11,534	14,082	15,918	19,526	19,430
중국	38,993	101,663	79,808	85,449	94,563
캐나다	1,881	2,208	1,932	3,453	3,411
홍콩	17,432	19,111	16,563	20,630	17,890

<표Ⅲ-1-18> 주요 국가별 조산업 매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 가	2005	2006	2007	2008	2009
미국	31,488	28,753	37,460	52,763	56,846
네덜란드	1,384	1,406	2,527	3,289	3,140
러시아	3	199	1,791	4,898	4,383
베트남	978	1,147	1,878	2,559	3,958
브라질	1,872	2,878	3,106	3,435	3,400
싱가포르	17,877	31,902	33,045	34,062	21,004
영국	1,456	5,545	8,623	6,587	5,732
인도	1,021	2,841	4,881	4,155	7,073
인도네시아	1,775	3,293	3,981	5,259	6,718
일본	11,166	13,284	14,799	17,759	12,875
중국	32,750	89,175	53,154	65,585	79,182
캐나다	1,594	1,841	1,623	2,828	2,760
홍콩	16,932	18,103	15,170	18,206	17,023

○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출 구조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는 데 이는 지역별과 동일한 형태임.

- 중국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출이 전체 제조업 현지법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5.1%에 이르고 다음으로 미국 제조업 현지법인이 5.8%에 불과함.

<표Ⅲ-1-19> 2009년 주요국별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출입 구조

국 가	기업수	매출		매입		투자 잔액	
	개사	백만 달러	비중 (%)	백만 달러	비중 (%)	백만 달러	비중 (%)
미국	156	10,647	5.8	9,110	6.0	4,191	13.1
네덜란드	3	15	0.0	11	0.0	109	0.3
러시아	16	1,939	1.1	1,631	1.1	593	1.9
베트남	215	4,886	2.7	3,868	2.6	1,741	5.4
브라질	9	4,122	2.2	3,229	2.1	568	1.8
싱가포르	6	15,298	8.3	15,128	10.0	341	1.1
영국	4	68	0.0	64	0.0	22	0.1
인도	57	9,121	5.0	6,949	4.6	833	2.6
인도네시아	81	5,222	2.8	4,199	2.8	863	2.7
일본	24	5,542	3.0	208	0.1	146	0.5
중국	1,111	82,678	45.1	69,568	46.1	14,573	45.6
캐나다	5	49	0.0	53	0.0	43	0.1
홍콩	48	2,552	1.4	2,306	1.5	1,278	4.0
소계	1,735	142,139	77.5	116,323	77.1	25,302	79.1
전국가	2,076	183,430	100.0	150,864	100.0	31,983	100.0

4) 기업규모별 매출입

○ 기업 규모별 매출입 추이에서는 대기업의 비중이 축소되다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대기업 현지법인의 매출은 2005년 1,898억 3천만 달러에서 2009년에는 3,450억 달러로 4년간 81.7%(연평균 16.1%) 증가하였음.

○ 대기업 현지법인의 매출이 전체 현지법인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96.3%에서 2006년 79.8%으로 낮아졌으나 이후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93.4%와 92.9%로 증가하였음.

- 대기업 현지법인 비중이 2008년과 2009년에 큰 폭 증가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더 잘 대응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 매입에서도 이와 유사한 비중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 대기업 현지법인 매입이 전체 현지법인 매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97.4%였다가 2006년 축소되었다가 2009년에는 93.7%로 상승하였음.

○ 제조업 현지법인만의 기업규모별 매출입 비중을 살펴봐도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는데 쏠산업과의 차이점은 대기업의 비중 수치가 쏠산업보다 조금 낮게 조사됨.

- 대기업 제조업 현지법인 전체 현지법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의 93.5%에서 2006년 65.0%로 낮아졌다가 2009년에는 88.5%로 높아짐.

- 쏠산업과의 차이점을 예로 들면, 2009년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출 비중이 88.5%인데 비해 쏠산업은 92.9%, 매입 비중은 각각 89.3%

와 93.7%로 조사됨.

- 이는 도소매업 등 대규모 매출입을 시현하는 서비스업 현지법인이 대기업 현지법인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됨.

<표Ⅲ-1-20> 기업 규모별 매출입의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매출			매입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2005	189,833	7,249	73	160,964	4,329	39
2006	236,977	59,726	286	205,820	54,178	192
2007	276,032	32,656	3,767	241,132	12,945	3,516
2008	334,913	23,147	613	274,352	16,277	468
2009	344,999	25,093	1,180	295,214	19,104	893

<표Ⅲ-1-21> 기업 규모별 매출입 비중의 추이

단위: %

연도	매출			매입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2005	96.3	3.7	0.0	97.4	2.6	0.0
2006	79.8	20.1	0.1	79.1	20.8	0.1
2007	88.3	10.5	1.2	93.6	5.0	1.4
2008	93.4	6.5	0.2	94.2	5.6	0.2
2009	92.9	6.8	0.3	93.7	6.1	0.3

<표Ⅲ-1-22> 제조업 기업 규모별 매출입 비중의 추이

단위: %

연도	매출			매입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2005	93.5	6.4	0.1	94.9	5.0	0.0
2006	65.0	34.9	0.1	63.2	36.7	0.1
2007	78.6	19.1	2.3	87.0	10.1	2.9
2008	88.6	11.2	0.2	90.2	9.6	0.2
2009	88.5	11.0	0.5	89.3	10.3	0.5

4) 설립 형태별 매출입

- 지분 인수 방식으로 설립된 현지법인의 매출입이 전체법인 현지법인 매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특징을 들 수 있음.
- 지분 인수방식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출이 전체 제조업 현지법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의 7.5%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17.5%에 이름.
- 이에 반해 쏘산업 기준의 매출 및 매입, 서비스업의 매출 및 매입에서는 지분 인수 방식으로 설립된 현지법인의 비중에서 뚜렷한 특징을 찾아보기가 힘들.

<표Ⅲ-1-23> 지분 인수 방식 현지법인 매출액 비중 추이

단위: %

연도	매출			매입		
	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2009	17.0	17.5	15.0	10.8	7.7	13.0
2008	13.1	14.7	11.2	10.8	11.1	10.6
2007	11.9	8.8	14.9	11.3	6.2	15.5
2006	14.2	7.5	22.7	10.6	6.4	16.1

주: 전체 현지법인 매출입에서 지분인수 방식으로 설립된 현지법인의 매출입 비중임.

2. 현지법인의 이익¹⁹⁾

(1) 영업이익²⁰⁾

1) 개관

○ 현지법인의 영업이익은 2009년에 84.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5년의 17.7억 달러 대비하여 약 4.7배 증가한 것임.

- 분석 기간 5년 모두 제조업 현지법인이 비제조업 현지법인보다 영업이익 규모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2009년에는 제조업 현지법인 영업이익이 61.3억 달러로 전체의 73.0%까지 비중이 확대됨.

<표Ⅲ-2-1> 현지법인의 영업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조업	1,113	1,911	2,644	2,338	6,125
비제조업	661	1,644	2,340	1,641	2,268
총산업	1,774	3,554	4,984	3,979	8,393

○ 이는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이 분석 기간 중 1.4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크게 신장한 것임.

- 총산업의 국내 기업 영업이익 대비 현지법인 영업이익 비율이 2005년 1.9%에서 2009년에는 8.0%까지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2.2%에서 9.7%까지 증가함.

19) 현지법인은 다국적기업의 일부이므로 현지법인 경영성과 지표는 이전 가격 등으로 왜곡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보고서에 인용된 국내 기업이나 일본의 현지법인 이익지표 간 단순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 본 보고서 상의 현지법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그 계층적 구조로 인해 매우 유사한 추이를 보이므로 영업이익 부분보다는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보다 자세한 분석을 시행하였음.

<표Ⅲ-2-2> 현지법인과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 추이 비교

단위: 조 원, %

업종	연도	현지법인(A)	국내기업(B)	비율(A/B)
全산업	2005	1.8	94.3	1.9
	2006	3.4	89.2	3.8
	2007	4.6	101.7	4.6
	2008	4.4	124.0	3.5
	2009	10.7	134.2	8.0
제조업	2005	1.1	51.5	2.2
	2006	1.8	47.8	3.8
	2007	2.5	58.0	4.2
	2008	2.6	74.4	3.5
	2009	7.8	80.3	9.7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현지법인 영업이익률은 2009년 2.2% 수준으로 2005년 0.9%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임.

- 영업이익률도 영업이익 규모에서와 같이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특히, 2009년에는 비제조업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전년도 보다 0.4% 가량 증가한 1.2%를 기록하였으나, 제조업 현지법인은 전년도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3.3%를 기록함.

<표Ⅲ-2-3>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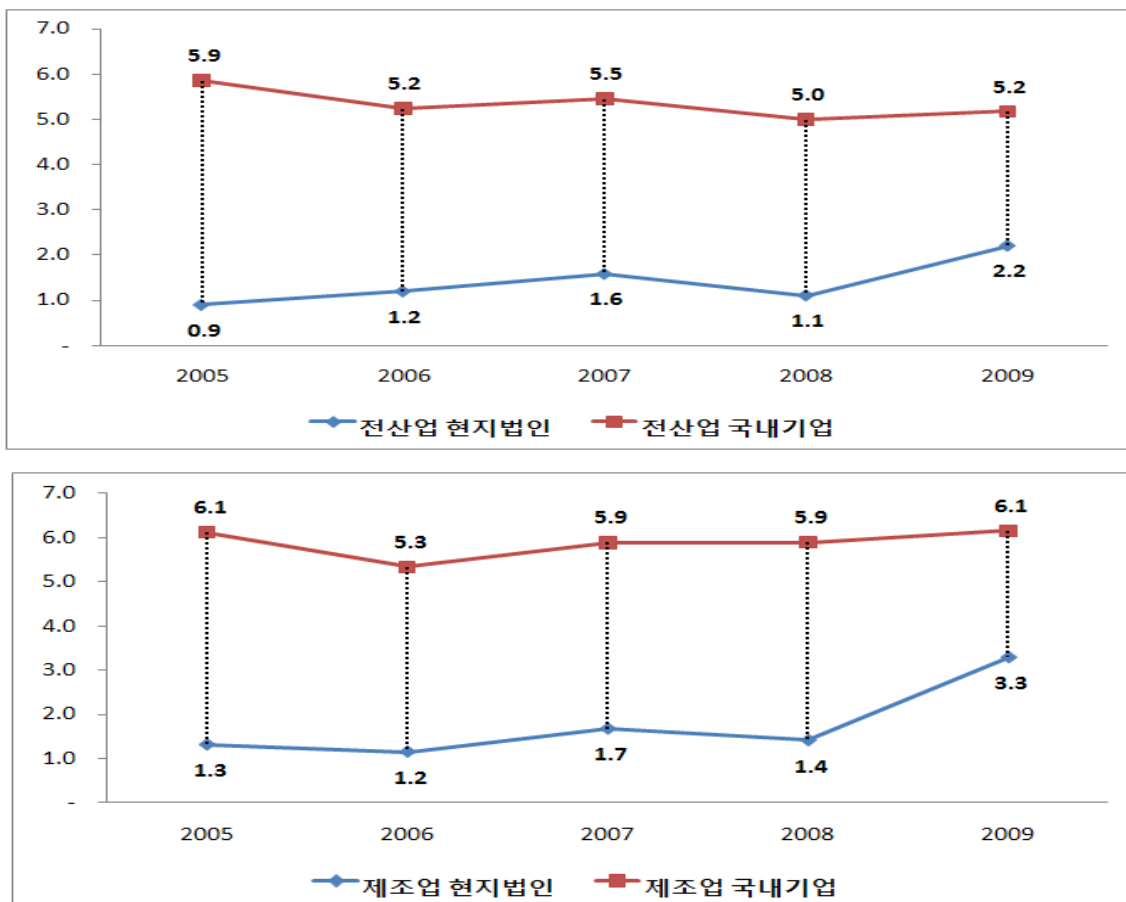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조업	1.3	1.2	1.7	1.4	3.3
비제조업	0.6	1.3	1.5	0.8	1.2
全산업	0.9	1.2	1.6	1.1	2.2

○ 2009년 소산업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이 2.2%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5.2%에 달하고 있음.

- 제조업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은 3.3%로 역시 국내 기업의 6.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나 소산업에 비해서는 차이가 크지 않음.
-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5%대에서 정체되고 있으나, 현지법인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영업이익률 차이가 점차 축소되고 있음.

<그림Ⅲ-2-1> 현지법인과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률 추이 비교

단위: %



2) 산업별 영업이익

○ 산업 대분류별 2009년 영업이익이익은 제조업이 61.3억 달러, 광업이 18.1억 달러, 도소매업이 11.4억 달러 순으로 규모가 크게 나타남.

- 지주회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현지 법인은 5년 연속으로 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영업이익률은 광업이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조업은 3.3%, 도매 및 소매업은 0.7%를 기록함.

<표Ⅲ-2-4> 산업 대분류별 영업이익

단위: 백만 달러

산 업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조업	1,113	1,911	2,644	2,338	6,125
도매및소매업	79	950	1,462	917	1,136
광업	489	520	649	871	1,812
부동산업및임대업	7	43	39	40	66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47	-27	-69	-258	-541
건설업	5	-12	14	256	81
운수업	94	193	204	-138	-193
기타	35	-22	41	-48	-94
총산업	1,774	3,554	4,984	3,979	8,393

<표Ⅲ-2-5> 산업 대분류별 영업이익률

단위: %

산 업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조업	1.3	1.2	1.7	1.4	3.3
도매및소매업	0.1	0.8	1.0	0.6	0.7
광업	33.6	29.4	29.6	21.2	23.8
부동산업및임대업	0.9	4.0	2.7	2.8	0.9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27.4	-20.6	-23.5	-7.0	-17.9
건설업	4.5	-3.5	1.5	11.3	4.5
운수업	3.8	2.6	2.0	-1.2	-2.3
기타	5.5	-2.9	2.1	-1.3	-4.4
총산업	0.9	1.2	1.6	1.1	2.3

○ 제조업 중분류로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제품인 전기전자 제조업과 자동차 제조업의 영업이익 규모가 크게 나타났고, 이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규모가 큰 편임.

- 2009년 영업이익률은 전기전자 제조업 3.9%, 자동차 제조업 4.9%, 금속가공 제조업 4.3% 등이 제조업 평균인 3.3% 대비 양호하게 나타났음.

-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1.5억 달러 내외로 그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최근 2년 연속으로 영업이익률이 6% 대를 초과하는 등 크게 개선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등은 최근까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표Ⅲ-2-6> 제조업 중분류별 영업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업종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기전자	541	524	1,111	916	2,025
자동차	193	191	639	687	1,996
1차금속	24	252	142	246	42
금속가공	269	437	618	418	1,247
화학	70	156	-96	14	295
섬유	-32	-16	110	-7	63
의복	4	36	52	-2	49
식료품	7	-3	47	149	160
비금속 광물	-99	-46	-18	-25	-66
기타 기계	24	70	140	64	118
기타 운송장비	29	-17	-87	-6	-242
전기장비	-2	0	-109	-93	154
고무 및 플라스틱	102	-2	48	-49	57
기타 제품	-17	329	46	25	227

주: 모든 중분류별 영업이익은 <부록표 2> 참조

<표Ⅲ-2-7> 제조업 중분류별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업종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기전자	2.0	1.6	2.9	1.9	3.9
자동차	1.4	1.0	1.7	2.6	4.9
1차금속	0.6	4.7	2.1	3.3	0.6
금속가공	2.1	2.5	2.5	1.7	4.3
화학	3.2	4.1	-1.5	0.2	4.3
섬유	-2.8	-1.1	5.5	-0.4	4.0
의복	0.5	2.1	2.4	-0.1	2.4
식료품	0.9	-0.3	2.8	6.4	6.1
비금속 광물	-21.0	-6.3	-2.2	-2.1	-6.9
기타 기계	1.5	2.7	5.8	1.6	3.4
기타 운송장비	6.7	-2.9	-9.8	-0.2	-7.8
전기장비	-0.4	0.0	-6.3	-1.7	2.9
고무 및 플라스틱	7.6	-0.1	2.2	-2.1	1.7
기타 제품	-0.1	0.4	0.2	0.1	0.9

○ 국내 제조업 영위 기업과 비교하면 전기전자 제조업과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현지법인 영업이익률이 국내기업보다 낮으나 그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임.

- 섬유와 식료품 제조업은 현지법인이 국내기업보다 영업이익률이 높거나 대응한 수준이었으며, 1차 금속, 화학, 금속가공 등은 국내 기업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Ⅲ-2-8> 주요 제조 업종의 현지법인과 국내기업 영업이익률 비교

단위: %

업 종	국내기업			현지법인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전기전자	5.4	3.6	5.7	2.8	1.9	3.9
자동차	4.3	3.9	4.5	1.7	2.6	4.9
1차금속	8.1	10.8	6.0	2.1	3.3	0.5
금속가공	5.5	7.1	7.1	2.5	1.7	4.3
화학	6.5	6.3	8.8	-1.5	0.2	4.3
섬유	1.8	2.8	4.2	5.5	-0.4	4.0
의복	5.5	5.8	6.0	2.4	-0.1	2.3
식료품	4.6	4.7	5.1	2.8	6.3	6.1
비금속 광물	7.0	9.4	13.0	-2.2	-2.1	-6.8
기타 기계	6.4	6.8	6.8	5.8	1.6	3.3
기타 운송장비	7.9	9.3	6.8	-7.9	-0.2	-7.8
전기장비	4.8	5.7	5.0	-6.3	-1.7	2.9
고무 및 플라스틱	6.0	5.5	5.9	2.2	-2.1	1.7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3) 지역 및 국가별 영업이익

○ 지역별 영업이익을 보면 2009년 중 아시아 소재 현지법인이 전체 현지법인 영업이익 중 75.6%에 해당하는 63.4억 달러를 시현

- 이어 유럽 10.4억 달러, 중남미 6.9억 달러 순으로 영업이익 규모가 크고, 북미의 경우는 전 기간에 걸쳐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2009년에는 영업손실을 기록함.
- 영업이익률 면에서는 광업 투자비중이 높은 대양주와 중남미가 각각 6.0%, 5.7%로 높게 나타났고, 아시아 지역은 이전 연도에 1% 대에 머물다 2009년에는 3.0%로 크게 상승하였음.

<표Ⅲ-2-9> 지역별 현지법인의 영업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지역	2005	2006	2007	2008	2009
대양주	67	196	281	77	328
북미	-39	494	289	48	-30
아시아	1,117	2,301	3,307	3,094	6,342
아프리카	26	22	16	112	18
유럽	281	119	468	159	1,040
중남미	318	438	595	407	686
중동	4	-16	28	81	11

<표Ⅲ-2-10> 지역별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지역	2005	2006	2007	2008	2009
대양주	3.8	5.4	5.6	1.9	6.0
북미	-0.1	1.2	0.6	0.1	-0.04
아시아	1.0	1.2	1.7	1.5	3.0
아프리카	2.5	1.9	1.1	7.2	1.0
유럽	0.7	0.3	0.8	0.3	1.4
중남미	5.4	5.3	6.3	4.1	5.7
중동	0.4	-1.6	1.5	2.7	0.3

○ 주요 국가별로 보면 중국 소재 현지법인의 영업이익이 35.7억 달러로 가장 높고, 이어 인도네시아가 16.8억 달러를 기록함.

- 이 외에도 개발도상국인 브라질, 인도, 베트남 등의 영업이익 규모가 크게 나타났으며,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서구 선진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익규모가 낮게 나타남.
- 이익률 측면에서도 BRICs 및 인도네시아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영업이익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9년에 16.9%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함.

<표Ⅲ-2-11> 주요 투자국가 현지법인의 영업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미국	-87	474	289	-114	-83
네덜란드	24	-39	74	74	-7
러시아	5	6	80	130	205
베트남	43	52	115	78	73
브라질	163	135	205	247	367
싱가포르	30	53	64	110	-24
영국	121	130	201	7	-15
인도	66	238	376	390	363
인도네시아	227	153	288	554	1,677
일본	37	81	121	95	266
중국	601	1,496	1,980	1,583	3,570
캐나다	48	20	1	163	53
홍콩	-103	33	61	-51	-102

<표Ⅲ-2-12> 주요 투자국가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미국	-0.2	1.3	0.7	-0.2	-0.1
네덜란드	1.5	-2.6	2.7	2.1	-0.2
러시아	12.1	2.3	3.5	2.6	3.9
베트남	2.8	2.6	3.7	2.1	1.3
브라질	6.6	4.0	5.1	5.6	6.9
싱가포르	0.1	0.2	0.2	0.3	-0.1
영국	3.5	2.0	2.0	0.1	-0.2
인도	4.8	6.4	5.8	7.1	3.9
인도네시아	7.4	3.1	4.6	7.3	16.9
일본	0.3	0.6	0.8	0.5	1.3
중국	1.5	1.5	2.4	1.9	3.7
캐나다	2.5	0.9	0.0	4.7	1.5
홍콩	-0.6	0.2	0.4	-0.2	-0.5

4) 투자자 기업규모별 영업이익

○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현지법인의 영업이익 비중이 2009년 94.7%에 달하는 등 압도적으로 높고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반면,

-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며, 기타(개인기업 및 개인)의 경우에는 최근 3년 연속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음.
- 영업이익률의 경우에도 5년 모두 대기업 현지법인이 중소기업 현지법인보다 양호하였으며, 최근 3년은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이익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Ⅲ-2-13> 투자자 기업규모별 영업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기업규모	2005	2006	2007	2008	2009
대기업	1,691	3,189	4,668	4,122	7,949
중소기업	78	356	377	-115	485
기타	5	9	-61	-29	-41

<표Ⅲ-2-14> 투자자 기업규모별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기업규모	2005	2006	2007	2008	2009
대기업	0.9	1.3	1.7	1.2	2.2
중소기업	1.1	0.6	1.2	-0.5	1.9
기타	6.5	3.0	-1.6	-4.7	-3.3

5) 설립형태별 영업이익

○ 설립 형태별 현지법인의 영업이익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신설법인 설립 방식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법인 지분인수 방식보다 영업이익 규모가 크게 나타남.

- 이익률 측면에서는 두 방식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2009년에는 신설법인 설립 방식이 소폭 향상된데 반해 지분인수 방식 영업이익률은 4.0%대로 크게 개선됨.

<표Ⅲ-2-15> 설립형태별 현지법인의 영업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설립형태	2006	2007	2008	2009
지분인수	469	645	372	2,615
신설법인	3,085	4,339	3,607	5,778

<표Ⅲ-2-16> 설립형태별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설립형태	2006	2007	2008	2009
지분인수	1.1	1.7	0.8	4.0
신설법인	1.2	1.6	1.2	1.8

(2) 당기순이익²¹⁾

1) 개관

○ 2009년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은 2005년 5.9억 달러 대비 7.8배 증가한 45.9억 달러를 기록함.

-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을 제외하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현지법인이 전반적으로 비제조업 현지법인보다 당기순이익 규모가 크게 나타남.
- 특히 최근 2년간은 제조업 현지법인과 비제조업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 차이가 크게 확대되었음.

<표Ⅲ-2-17>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조업	447	1,322	1,694	15	4,584
비제조업	144	1,135	1,765	-1,126	3
총산업	591	2,457	3,459	-1,111	4,587

○ 해외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7.8배 증가한 반면, 국내 기업은 동일 기간에 1.1배 증가하는데 그침.

- 국내기업 당기순이익 대비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 비율을 보면, 2005년 0.8%에서 2009년에는 6.6%까지 증가하였으며, 특히 제조업은 1.0%에서 9.2%까지 크게 증가함.

21) 영업이익이 기업 고유의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인데 반해 당기순이익은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자회사 지분법 평가손익, 유형자산처분손익, 세금 등을 포함하는 최종 이익 개념임.

<표Ⅲ-2-18> 현지법인과 국내 기업의 당기순이익 추이 비교

단위: 조 원, %

업종	연도	현지법인(A)	국내기업(B)	비율(A/B)
수산업	2005	0.6	78.6	0.8
	2006	2.3	72.0	3.3
	2007	3.2	80.8	4.0
	2008	-1.2	52.5	n/a
	2009	5.9	88.7	6.6
제조업	2005	0.5	44.3	1.0
	2006	1.3	39.9	3.2
	2007	1.6	48.1	3.3
	2008	0.0	30.6	0.1
	2009	5.8	63.9	9.2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률은 2009년 1.2% 수준으로 2005년의 0.3%와 비교하여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5년 평균 당기순이익률은 약 0.6%임.

- 2006년에는 비제조업 당기순이익률이 제조업 당기순이익률을 소폭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제조업이 더 양호한 편이며, 2009년에는 제조업 당기순이익률이 2.5%로 크게 개선됨.

<표Ⅲ-2-19>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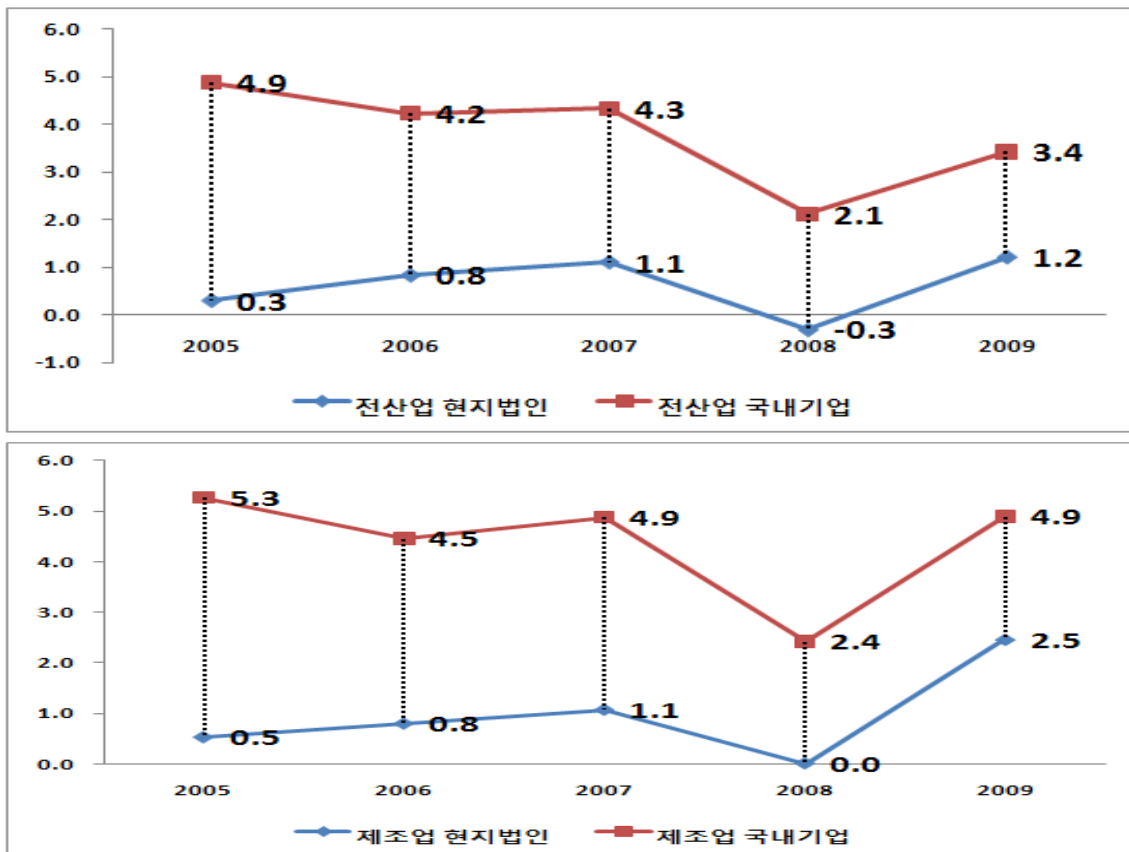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조업	0.5	0.8	1.1	0.0	2.5
비제조업	0.1	0.9	1.1	-0.6	0.0
수산업	0.3	0.8	1.1	-0.3	1.2

○ 현지법인 당기순이익률이 국내기업에 비해 열위한 편이나, 추세적으로는 국내기업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현지법인의 이익 기여도²²⁾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국내기업과 현지법인 간 당기순이익률 차이는 쉐산업이 2005년 4.6%에서 2009년 2.2%로, 제조업이 동일 기간 중 4.8%에서 2.4%로 축소되었음.

<그림Ⅲ-2-2> 현지법인과 국내 기업의 당기순이익률 추이 비교

단위: %



22) 기존에 설립된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영업권 상각 등 부담요인이 발생하나,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분율에 따라 모기업의 지분법평가이익에 반영되므로 현지법인 수익성 개선은 모기업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침.

○ 2009년 일본의 현지법인 당기순이익 규모가 500억 달러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2005년에 일본의 1% 대 수준이던 것이 2009년에는 우리나라 현지법인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일본의 9.1%, 특히 제조업은 17.7%까지 비율이 상승하였음.

<표Ⅲ-2-20> 한국과 일본의 현지법인 당기순이익 추이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업종	연도	한국(A)	일본(B)	비율(A/B)
全산업	2005	591	46,778	1.3
	2006	2,457	59,259	4.1
	2007	3,459	65,702	5.3
	2008	-1,111	43,396	n.a
	2009	4,587	50,311	9.1
제조업	2005	447	24,797	1.8
	2006	1,322	30,705	4.3
	2007	1,694	35,613	4.8
	2008	15	16,188	0.1
	2009	4,584	25,957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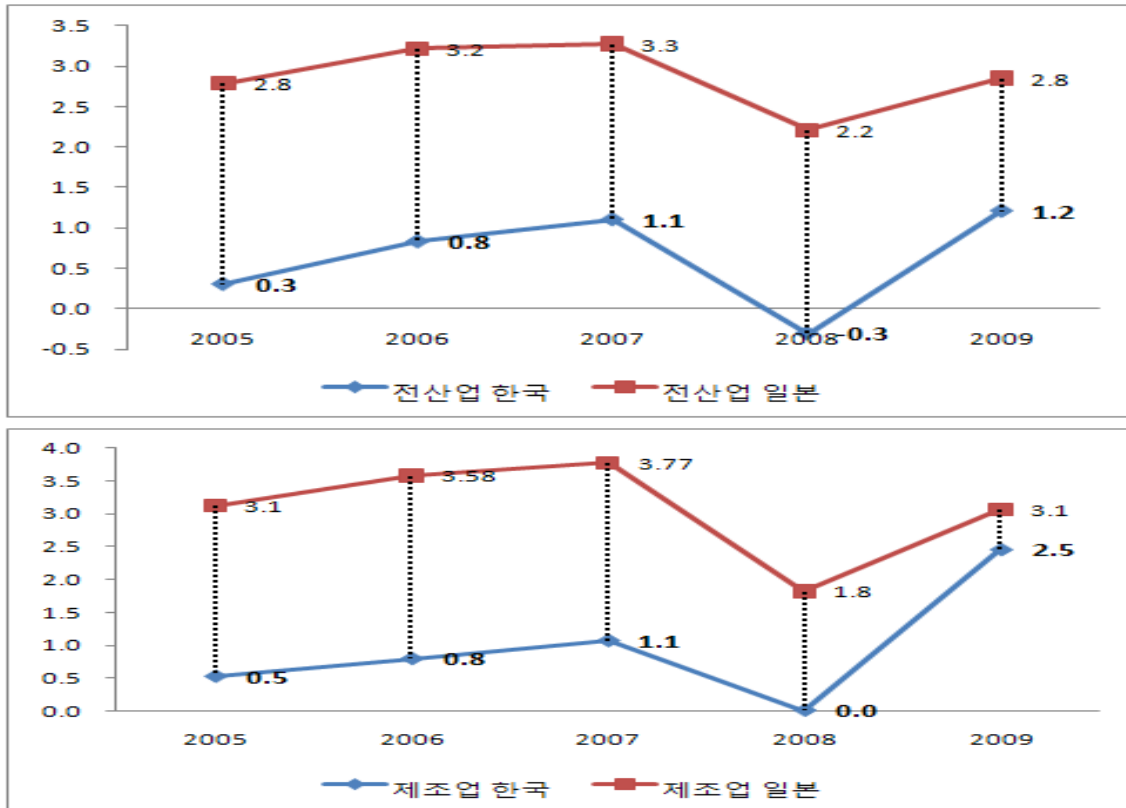
자료: 일본 경산성

○ 이익 규모 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률도 5년 모두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나 격차는 축소됨.

- 全산업의 경우 2005년 양 국가 당기순이익률 차이가 2.5%였으나, 2009년에는 1.6%로 줄었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2.6%에서 0.6%까지 축소되었음.

<그림Ⅲ-2-3> 한국과 일본의 현지법인 당기순이익률 추이 비교

단위: %



○ 한편, 일본의 경우 최고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던 2007년에 비해 2009년에는 39.1% 감소한 4.7조 엔에 그침.

- 이익 규모의 감소는 최근 2년간의 엔고 현상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달러화 환산시 동일기간 중 감소율은 23.4% 수준), 2001년에 기록한 8,400억 엔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라 할 수 있어 아직까지 증가 추세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음.

<표Ⅲ-2-21> 일본의 현지법인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백억 엔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조업	273	357	419	166	243
비제조업	242	331	331	280	229
총산업	515	689	773	445	471

2) 산업별 당기순이익

○ 2009년 업종 대분류 상 당기순이익은 제조업 현지법인 45.8억 달러, 광업 현지법인 11.8억 달러, 도매 및 소매업 현지법인 2.3억 달러 순으로 그 규모가 크게 나타남.

- 특히 2009년의 경우 제조업의 당기순이익이 쏠산업의 당기순이익의 99.9%를 차지할 정도로 기여도가 높아졌음.
- 지주회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현지법인은 당기순이익에서도 5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적자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임.
- 2009년 영업이익률은 광업이 14.3%를 기록하여 5년 연속 10%대를 상회하였으며, 제조업은 3.3%, 도매 및 소매업은 0.7%를 기록함.

<표Ⅲ-2-22 > 산업 대분류별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산 업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조업	447	1,322	1,694	15	4,584
도매및소매업	-107	825	1,258	11	226
광업	234	277	402	432	1,182
부동산업및임대업	-28	-8	81	-84	-93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39	-26	-107	-668	-800
건설업	0	-66	23	177	-20
운수업	73	152	109	-538	-260
기타	10	-21	-1	-457	-232
쏠산업	591	2,457	3,459	-1,111	4,587

<표Ⅲ-2-23 > 산업 대분류별 당기순이익률 추이

단위: %

산 업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조업	0.5	0.8	1.1	0.0	2.5
도매및소매업	-0.1	0.7	0.9	0.0	0.1
광업	16.1	15.7	18.3	10.5	15.5
부동산업및임대업	-3.6	-0.7	5.5	-5.8	-1.3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22.9	-19.6	-36.4	-18.2	-26.5
건설업	0.3	-18.7	2.4	7.8	-1.1
운수업	2.9	2.1	1.1	-4.5	-3.1
기타	1.6	-2.8	0.0	-12.3	-10.8
소산업	0.3	0.8	1.1	-0.3	1.2

○ 제조업 중분류별 당기순이익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제품인 전기 전자(2009년 제조업 중 41.6% 비중)와 자동차 제조업(33.1%)의 이익 규모가 두드러진 가운데, 금속가공 제품(25.9%)도 양호하게 나타남.

-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전기전자와 자동차 제조업이 2009년에 각각 3.6%와 3.7%를 기록하여 평균대비 양호하였고, 식료품 제조업은 최근 수익성 개선이 돋보임.
- 노동집약산업인 섬유, 의류 제조업은 이익 규모와 이익률이 다소 떨어지나 분석 기간 전체로는 흑자를 기록하였음.
- 반면, 비금속 광물제품, 기타 운송장비, 화학제품 제조업 등은 최근 수년간 연속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표Ⅲ-2-24> 제조업 중분류별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업종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기전자	238	403	828	154	1,907
자동차	160	106	411	267	1,517
1차금속	-52	212	47	16	-72
금속가공	191	353	528	274	1,188
화학	22	90	-182	-225	-46
섬유	-66	-52	110	-10	165
의복	-18	11	21	-22	34
식료품	-19	-18	18	132	167
비금속 광물	-117	-69	-113	-75	-238
기타 기계	20	58	135	26	100
기타 운송장비	0	1	-59	-156	-230
전기장비	-7	-10	-116	-205	47
고무 및 플라스틱	99	-20	36	-101	-66
기타 제품	-3	256	31	-59	112

주: 모든 중분류별 당기순이익이익은 <부록표 3> 참조

<표Ⅲ-2-25> 제조업 중분류별 당기순이익률 추이

단위: %

업종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기전자	0.9	1.2	2.2	0.3	3.7
자동차	1.1	0.6	1.1	1.0	3.7
1차금속	-1.2	4.0	0.7	0.2	-1.1
금속가공	1.5	2.0	2.2	1.1	4.1
화학	1.0	2.3	-2.9	-3.3	-0.7
섬유	-5.7	-3.7	5.5	-0.5	10.4
의복	-1.9	0.7	1.0	-1.0	1.7
식료품	-2.5	-1.6	1.1	5.7	6.4
비금속 광물	-25.0	-9.4	-13.3	-6.4	-24.9
기타 기계	1.3	2.2	5.6	0.7	2.9
기타 운송장비	-0.1	0.2	-6.7	-5.9	-7.5
전기장비	-1.2	-0.8	-6.7	-3.8	0.9
고무 및 플라스틱	7.3	-1.4	1.6	-4.2	-2.0
기타 제품	0.0	0.3	0.1	-0.2	0.4

○ 국내기업과 비교하면 전기전자, 자동차 제조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은 국내기업보다 낮으나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음.

- 특히, 이들 산업은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 간 차이가 크지 않아 금융비용 등의 영업외적 요인의 비용 소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섬유와 식료품 제조업은 국내기업보다 당기순이익률이 높거나 대등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개발도상국가에 주로 진출한 동 업종 현지법인들이 저임노동력 활용, 원재료 접근성 용이 등 원가 절감을 통해 양호한 수익성 실현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측됨.

-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규모 설비투자를 요하는 1차 금속 제조업과 화학 제조업은 국내기업에 비해 당기이익률이 상당폭 낮게 나타나 아직까지 해외 사업이 안정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표Ⅲ-2-26> 현지법인과 국내기업의 제조업 당기순이익률 비교

단위: %

업종	국내기업			해외법인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전기전자	5.6	0.3	6.5	2.1	0.3	3.6
자동차	3.8	1.7	4.9	1.1	1.0	3.7
1차금속	6.6	5.7	5.7	0.7	0.2	-0.9
금속가공	3.9	2.6	3.3	2.1	1.1	4.1
화학	5.5	3.2	6.7	-2.9	-3.3	-0.7
섬유	0.3	0.6	2.4	5.5	-0.5	10.4
의복	3.2	2.1	3.7	0.9	-1.0	1.6
식료품	3.3	1.7	4.2	1.1	5.6	6.4
비금속 광물	5.0	5.4	9.6	-13.3	-6.4	-24.5
기타 기계	4.6	0.6	1.3	5.5	0.7	2.8
기타 운송장비	7.8	6.4	4.2	-5.4	-5.9	-7.5
전기장비	3.3	2.4	2.7	-6.7	-3.8	0.9
고무 및 플라스틱	3.3	1.6	2.8	1.6	-4.2	-2.0

- 일본²³⁾과 비교하면 전기전자는 2009년에 우리나라 현지법인이 3.6%를 기록하여 일본의 1.3%보다 높아 3년 연속 당기순이익률이 일본을 상회하였음.
- 자동차의 경우는 과거 2007년과 2008년에는 일본보다 이익률이 낮았으나 2009년에는 3.7%를 기록하여 일본의 3.1%를 최초로 상회하였음.
 - 섬유 제조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현지법인 이익률이 일본보다 크게 높은 반면, 화학 제조업의 경우에는 일본에 비해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특징적임.
 - 아래 제시하지 않은 기계 관련 업종의 경우에도 일본 현지법인보다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표Ⅲ-2-27>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현지법인 당기순이익률 비교

단위: %

업종	한국			일본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전기전자	2.1	0.3	3.6	1.5	-0.5	1.3
자동차	1.1	1	3.7	3.8	1.3	3.1
1차금속	0.7	0.2	-0.9	5.2	2.9	1.4
금속가공	2.1	1.1	4.1	3.5	2.4	2.4
화학	-2.9	-3.3	-0.7	6.1	7.4	8.1
섬유	5.5	-0.5	10.4	2.0	-0.5	0.2
식료품	1.1	5.6	6.4	3.7	3.8	5.0
전기장비	-6.7	-3.8	0.9	4.7	2.4	3.9

23) 일본의 업종 분류가 우리나라와 상이하고 세부 분류 기준을 파악할 수 없어 유사 업종을 인용하였으나, 세부 구성 품목은 상이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일본 통계의 수송기계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기타 운송장비가 포함되어 있음.

3) 지역 및 국가별 당기순이익

○ 지역별로는 현지법인 당기순이익 대부분을 아시아 소재 현지법인인 시현(2009년 기준 85.7% 비중)하고 있고, 북미는 2006년을 제외하고는 순손실이 지속되고 있음.

- 당기순이익률 면에서는 2009년에 광업 투자비중이 높은 중남미가 7.5%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대양주도 3.6%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아시아 지역은 2009년에는 1.8%로 5년내 최고치를 기록함.

<표Ⅲ-2-28> 현지법인 지역별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지역	2005	2006	2007	2008	2009
대양주	58	151	147	-8	198
북미	-285	254	-125	-1,586	-928
아시아	700	1,953	2,781	1,361	3,930
아프리카	16	5	4	28	-14
유럽	-73	-21	273	-1,001	477
중남미	172	123	363	51	898
중동	3	-8	16	45	25

<표Ⅲ-2-29> 지역별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률 추이

단위: %

지역	2005	2006	2007	2008	2009
대양주	3.3	4.1	2.9	-0.2	3.6
북미	-0.7	0.6	-0.3	-2.1	-1.3
아시아	0.6	1.0	1.5	0.7	1.8
아프리카	1.5	0.5	0.3	1.8	-0.8
유럽	-0.2	0.0	0.4	-1.7	0.6
중남미	2.9	1.5	3.9	0.5	7.5
중동	0.2	-0.8	0.8	1.5	0.8

- 전반적으로 아시아,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 지역이 북미, 유럽 등 선진국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양호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선진국 지역이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 성장을 보였던 최근의 경제 환경의 영향과 더불어,
 - 개도국은 제조업 투자비중이 높고 저렴한 인건비, 원료 접근성 등 원가 절감 요인이 높은 반면, 선진국 지역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 모기업이 해외 판매를 목적으로 투자한 판매법인이 많아 현지법인보다는 모기업의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결과로 보임.
 - 한편, 후술할 지역별 수출입 구조와 비교하면 무역흑자가 크게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현지법인 수익성이 낮고,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현지법인 수익성이 높은 모습을 보임.
-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소재 현지법인의 수익성이 북미와 유럽에 비해 규모와 이익률 측면에서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주요 투자 지역에서 최근 5년간 흑자를 지속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서 해외 사업이 보다 안정화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음.
 - 다만, 일본의 해외투자가 우리나라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있고,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새롭게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해외투자의 국가 간 성과 비교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²⁴⁾

24) 설립초기에 설립 비용, 고정비 부담 등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 영업개시 3년 이상부터 영업기반이 안정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영업실적이 개선됨.

<표Ⅲ-2-30> 일본 현지법인의 지역별 당기순이익(률) 추이

단위: 백억 엔, %

구분	지역	2005	2006	2007	2008	2009
당기 순이익	북미	162.0	206.0	172.0	18.0	80.0
	아시아	197.0	244.0	305.0	219.0	271.0
	유럽	50.0	93.0	131.0	36.0	19.0
당기 순이익률	북미	2.4	2.8	2.2	0.3	1.5
	아시아	3.0	3.2	3.6	2.8	4.0
	유럽	1.3	2.0	2.6	0.9	0.6

○ 주요 투자국 중에는 중국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고,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를 포함한 BICIs 4개 국가의 당기순이익도 규모와 이익률 모두 양호하게 나타남.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저조한 편이어서 현지법인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개도국 투자 효과가 더 양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Ⅲ-2-31> 주요 투자국가의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미국	-305	259	-85	-1,637	-948
네덜란드	18	-47	50	-36	-94
러시아	1	8	49	-57	143
베트남	16	13	115	-35	74
브라질	114	26	73	127	766
싱가포르	54	102	78	110	4
영국	82	59	138	-107	-68
인도	33	190	422	150	254
인도네시아	68	66	81	189	832
일본	-21	-17	11	-276	24
중국	502	1,315	1,666	1,151	2,671
캐나다	20	-5	-40	51	21
홍콩	-110	101	241	-166	-381

<표Ⅲ-2-32> 주요 투자국가의 당기순이익률 추이

단위: %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미국	-0.8	0.7	-0.2	-2.3	-1.5
네덜란드	1.1	-3.1	1.8	-1.0	-2.6
러시아	1.4	3.0	2.1	-1.2	2.7
베트남	1.1	0.6	3.7	-0.9	1.3
브라질	4.7	0.7	1.8	2.9	14.5
싱가포르	0.2	0.3	0.2	0.3	0.0
영국	2.4	0.9	1.4	-1.0	-0.9
인도	2.4	5.1	6.5	2.7	2.7
인도네시아	2.2	1.3	1.3	2.5	8.4
일본	-0.2	-0.1	0.1	-1.4	0.1
중국	1.3	1.3	2.1	1.3	2.8
캐나다	1.1	-0.2	-2.1	1.5	0.6
홍콩	-0.6	0.5	1.5	-0.8	-1.9

4) 투자자 기업규모별 당기순이익

○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이 2009년에 45.9억 달러를 기록하여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중소기업은 투자 규모에 비해서도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며, 기타(개인기업, 개인)의 경우에는 3년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당기순이익률의 경우에도 5년 모두 대기업 현지법인이 중소기업 현지법인보다 양호하였고, 최근 3년간은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이익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Ⅲ-2-33> 투자자 기업규모별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기업규모	2005	2006	2007	2008	2009
대기업	623	2,238	3,610	-429	4,586
중소기업	-38	214	-92	-644	68
기타	6	5	-58	-38	-67

<표Ⅲ-2-34> 투자자 기업규모별 당기순이익률 추이

단위: %

기업규모	2005	2006	2007	2008	2009
대기업	0.3	0.9	1.3	-0.1	1.3
중소기업	-0.5	0.4	-0.3	-2.8	0.3
기타	7.6	1.8	-1.5	-6.2	-5.4

5) 설립형태별 당기순이익

- 설립 형태별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 현황을 보면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신설법인 설립 방식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당기순이익 대부분은 동 방식에서 발생함.

<표Ⅲ-2-35> 설립형태별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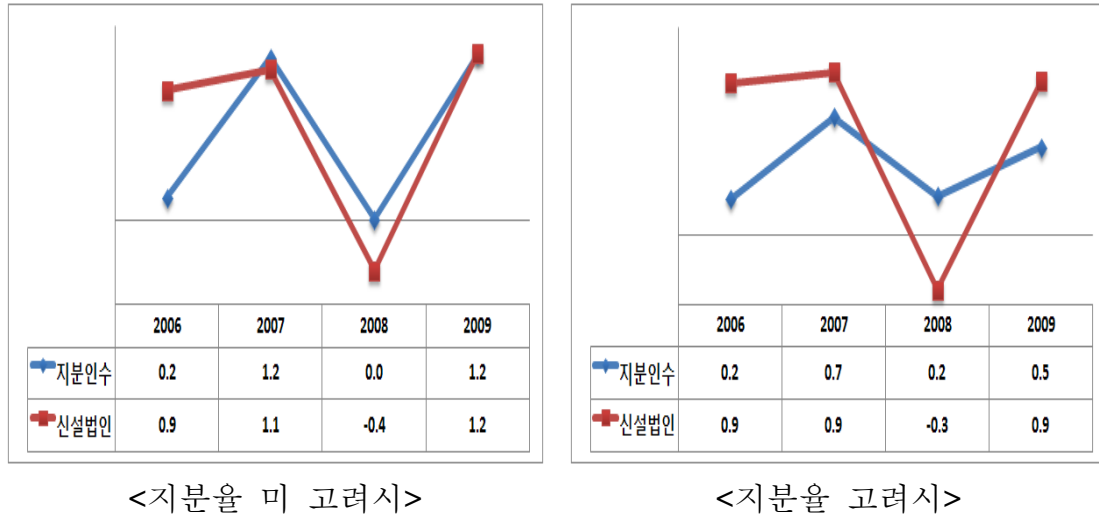
설립형태	2006	2007	2008	2009
지분인수	69	436	6	774
신설법인	2,388	3,023	-1,117	3,813

- 이익률 측면에서는 신설법인 설립 방식과 지분인수 방식 간에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다만, 현지법인 당기순이익에 한국 지분율을 반영한 투자자순이익의 개념을 적용하면 지분인수 방식이 수익성이 다소 낮은 대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Ⅲ-2-4> 설립형태별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률 현황

단위: %



○ 이러한 현상은 지분 인수 방식이 기존에 설립되어 영업 궤도에 오른 기업법인을 인수하는 형태이므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일 것이나,

-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영업권(인수 프리미엄)을 포함한 인수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다만,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최근 5년간 급속히 증가한 점과 설립형태와 관련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시점이 2006년부터로 분석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수익성의 우위 여부는 관련 통계가 보다 축적된 이후에 판단되어야 할 것임.

(3) 연속 제출 기업 분석: 최근 5년간

○ 5년간 연속으로 자료를 제출한 현지법인의 이익은 전체 현지법인의 이익이 크게 감소한 2008년에도 영업이익은 증가, 당기순이익은 흑자를 유지하였음.

- 5년 연속 보고 기업은 업력이 5년을 초과하는 사업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현지법인이므로 신설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표Ⅲ-2-36>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영업 이익	조선업	1,691	2,087	3,441	3,525	5,817
	제조업	1,081	973	2,189	2,137	4,202
	비제조업	610	1,115	1,252	1,388	1,615
영업 이익률	조선업	1.7	1.2	2.1	1.8	3.9
	제조업	0.7	1.1	1.1	1.2	1.4
	비제조업	1.1	1.1	1.6	1.5	2.6

<표Ⅲ-2-37>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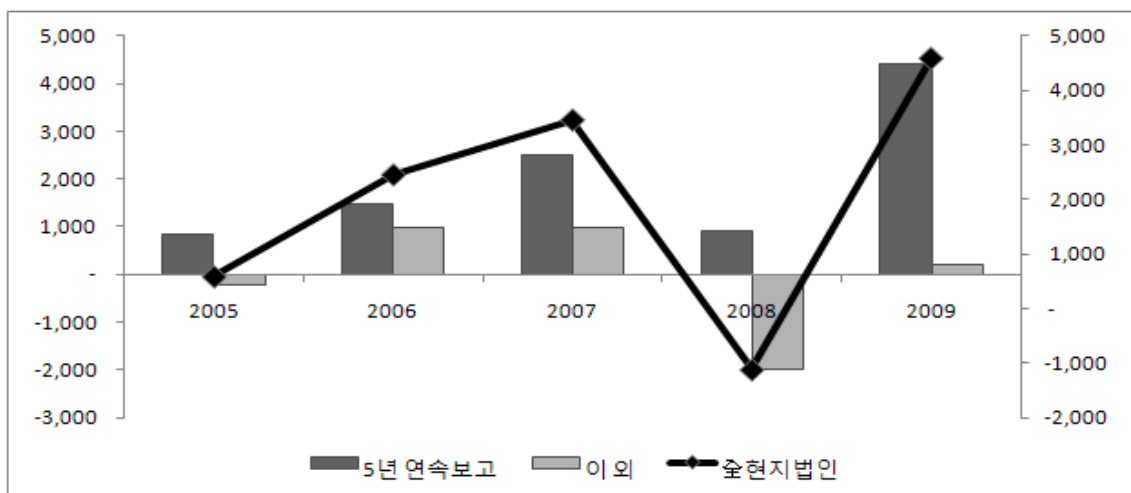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당기 순이익	조선업	823	1,462	2,494	896	4,401
	제조업	585	643	1,498	671	3,622
	비제조업	239	819	996	225	779
당기 순이익률	조선업	0.5	0.8	1.1	0.4	2.0
	제조업	0.9	0.8	1.5	0.6	3.4
	비제조업	0.3	0.8	0.9	0.2	0.7

○ 5년 연속보고 기업의 경우 기간 경과에 따라 이익 규모가 점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점임.

- 또한 당기순이익률의 경우도 이 외의 현지법인과 비교하여 등락의 흐름은 유사하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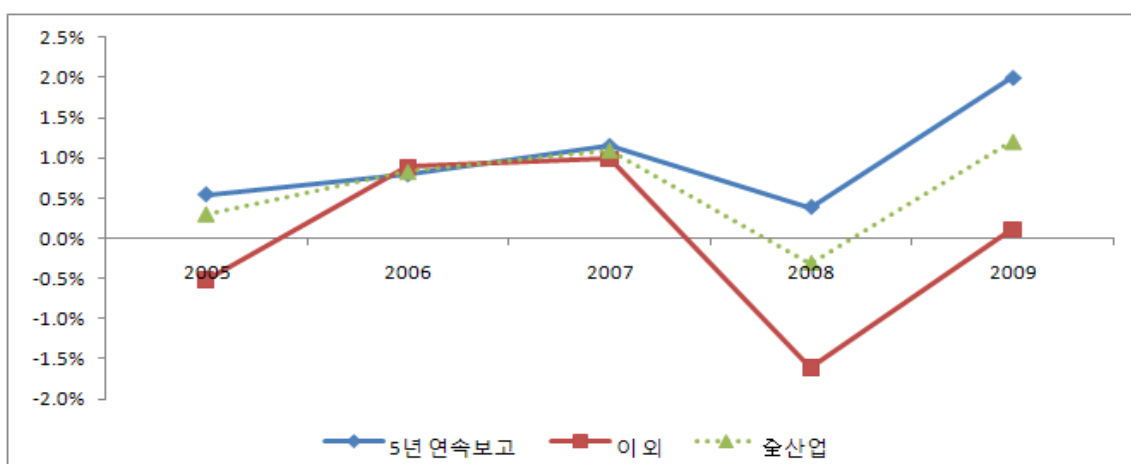
<그림Ⅲ-2-5> 5년 연속보고 기업과 전체 현지법인 당기순이익 비교

단위: 백만 달러



<그림Ⅲ-2-6> 5년 연속보고 기업과 전체 현지법인 당기순이익률 비교

단위: %



○ 5년 연속보고 기업의 경우 기간 경과에 따라 이익 규모가 점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점임.

- 제조업 중분류별 업종 대부분에서도 전체 현지법인보다 이익이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전체 현지법인이 5개 업종에서 5년 누적 적자를 기록한 반면 5년 연속 현지법인은 2개 업종에서만 누적 적자를 기록함.

<표Ⅲ-2-38 >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 산업 대분류별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 달러

산 업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조업	585	643	1,498	671	3,622
도매및소매업	90	725	821	273	415
광업	138	62	91	326	313
부동산업및임대업	5	19	28	6	65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6	-7	0	2	10
건설업	-4	-1	-10	-4	-45
운수업	7	13	9	-405	-9
기타	8	8	57	27	30
총산업	823	1,462	2,494	896	4,401

<표Ⅲ-2-39 >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 산업 대분류별 당기순이익률

단위: 백만 달러

산 업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조업	0.9	0.8	1.5	0.6	3.4
도매및소매업	0.1	0.7	0.7	0.2	0.4
광업	13.1	5.4	7.0	16.6	15.0
부동산업및임대업	1.3	3.7	4.7	0.8	1.0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4.0	-6.2	0.3	0.4	2.0
건설업	-5.3	-1.1	-6.2	-1.1	-13.9
운수업	0.5	0.8	0.4	-15.1	-0.3
기타	2.2	1.8	11.3	5.1	5.8
총산업	0.5	0.8	1.1	0.4	2.0

<표Ⅲ-2-40> 5년 연속보고 제조업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 달러

업종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제조업	585	643	1,498	671	3,622	7,019
전기전자	138	308	787	278	1,324	2,835
자동차	309	44	247	425	1,205	2,230
1차금속	30	62	21	39	6	158
금속가공	75	195	281	43	697	1,291
화학	39	77	111	23	139	389
섬유	-24	-5	95	26	168	260
의복	-7	4	17	4	47	65
식료품	-15	-19	-8	77	113	148
비금속 광물	-37	-45	-105	-78	-237	-502
기타 기계	3	19	27	14	15	78
기타 운송장비	-3	3	-17	-137	-73	-227
전기장비	-4	0	-22	-30	99	43
고무 및 플라스틱	88	-23	39	-68	40	76
기타 제품	-7	24	24	56	80	177

<표Ⅲ-2-41> 5년 연속보고 제조업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률 추이

단위: %

업종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조업	0.9	0.77	1.46	0.6	3.4
전기전자	0.6	1.3	2.6	0.8	3.9
자동차	3.5	0.4	1.7	2.2	4.8
1차금속	1.4	2.3	0.5	0.9	0.2
금속가공	0.8	1.6	1.7	0.2	4.4
화학	2.2	3.4	3.5	0.7	4.6
섬유	-5.1	-0.7	11.4	2.9	19.5
의복	-1.0	0.4	1.7	0.4	4.4
식료품	-3.5	-3.4	-1.1	7.6	9.8
비금속 광물	-11.8	-10.4	-20.3	-14.1	-50.2
기타 기계	0.9	3.0	3.4	1.7	2.2
기타 운송장비	-0.8	0.5	-2.0	-8.6	-5.1
전기장비	-0.7	0.1	-2.1	-1.9	4.6
고무 및 플라스틱	8.9	-1.9	2.5	-4.1	2.5
기타 제품	0.0	0.1	0.1	0.2	0.5

○ 지역별로는 전체 현지법인에서 누적 적자를 기록했던 유럽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북미도 적자 규모가 크지 않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전체 현지법인과 비교한 개선폭이 양호하게 나타남.

- 중동의 경우 전체 현지법인에서는 누적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은 적자를 나타냈는데, 분석대상이 15개사에 불과하며 그 중 소수 현지법인의 실적 악화에 기인하는 것임.

<표Ⅲ-2-42>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의 지역별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지역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대양주	33	117	57	12	104	323
북미	-25	147	103	-721	-122	-618
아시아	670	1,079	2,191	1,659	3,593	9,192
아프리카	5	9	4	7	12	37
유럽	40	92	50	-83	507	606
중남미	97	22	83	57	321	580
중동	4	-4	7	-35	-14	-42

<표Ⅲ-2-43>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의 지역별 당기순이익률 추이

단위: %

지역	2005	2006	2007	2008	2009
대양주	2.0	5.5	2.1	0.4	3.4
북미	-0.1	0.4	0.3	-1.9	-0.4
아시아	0.7	0.9	1.7	1.1	2.6
아프리카	1.0	1.7	0.6	1.0	1.6
유럽	0.2	0.4	0.1	-0.2	1.3
중남미	2.0	0.4	1.2	0.8	4.1
중동	0.4	-0.5	0.5	-2.0	-1.0

○ 주요 투자국 중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등에 소재하는 분석대상 현지법인은 당기순이익률이 전체 현지법인에 비해 양호하게 나타남.

- 반면, 러시아, 인도, 영국 등은 오히려 전체 법인보다 이익지표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임.

<표Ⅲ-2-44>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의 국가별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미국	-40	153	98	-792	-168	-749
네덜란드	17	25	29	25	29	125
러시아	-2	-2	-40	-50	78	-16
베트남	14	11	107	76	271	479
브라질	116	33	85	163	224	621
싱가포르	78	73	58	119	82	410
영국	4	-8	1	-6	27	18
인도	0	-2	3	-17	12	-4
인도네시아	89	79	101	233	398	900
일본	19	29	56	54	62	220
중국	466	621	1,526	837	2,486	5,936
캐나다	16	-5	5	71	46	133
홍콩	-126	122	174	106	75	351

<표Ⅲ-2-45>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의 국가별 당기순이익률 추이

단위: %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미국	-0.2	0.5	0.3	-2.2	-0.6
네덜란드	1.5	1.8	1.6	1.3	1.7
러시아	-12.1	-1.5	-11.9	-6.4	6.5
베트남	1.1	0.7	5.2	3.0	10.5
브라질	4.8	1.0	2.2	3.8	5.6
싱가포르	0.3	0.2	0.2	0.4	0.4
영국	0.4	-0.5	0.1	-0.4	1.8
인도	-1.6	-5.8	2.1	-2.9	1.8
인도네시아	3.4	2.0	2.1	4.3	7.5
일본	0.2	0.3	0.4	0.3	0.5
중국	1.5	1.7	3.4	1.5	4.0
캐나다	1.2	-0.4	0.3	3.4	2.5
홍콩	-0.8	0.7	1.2	0.7	0.5

○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전체 현지법인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의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지분인수 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현지법인보다 개선 속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지분인수 비용이 신설법인 설립 비용보다 통상 높은 것이 일반적임.

<표Ⅲ-2-46>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의 기업규모별 이익 지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당기순이익	대기업	727	1,352	2,333	856
	중소기업	92	107	157	35
	기타	4	3	4	5
당기순이익률	대기업	0.5	0.8	1.1	0.4
	중소기업	2.1	2.0	2.4	0.5
	기타	10.8	4.7	5.4	8.3

- 설립 형태별로 보면 전체 현지법인에서는 수익성의 우위를 판별하기 힘든 양상을 보였으나, 5년 연속 자료 제출 현지법인 자료에서는 지분인수 방식의 이익률 지표가 신설법인 설립 방식보다 양호하게 나타났음.

-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의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지분인수 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현지법인보다 개선 속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지분인수 비용이 신설법인 설립 비용보다 통상 높은 것이 일반적임.

<표Ⅲ-2-47>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의 설립형태별 이익 지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당기순이익	지분인수	202	334	198	1,116
	신설법인	1,260	2,160	698	3,284
당기순이익률	지분인수	0.7	1.2	0.8	2.8
	신설법인	0.8	1.1	0.3	1.8

3. 현지법인의 한국투자자 앞 송금액

(1) 배당금

1) 개관

○ 2009년 현지법인의 한국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액은 11.5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05년의 약 1.7배 수준임.

- 분석 대상 기간 5년 동안 현지법인의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규모는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고,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 합계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에도 배당금을 지급함.

- 최근 5년 배당금 합계는 47.8억 달러이며, 매년 제조업 현지법인(5년 합계 28.4억 달러)이 비제조업 현지법인(5년 합계 19.4억 달러)보다 많은 배당을 지급해 오고 있음.

<표Ⅲ-3-1> 현지법인의 한국투자자 앞 배당금 지급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조업	453	393	613	649	732
비제조업	210	383	484	439	422
총산업	663	776	1,097	1,088	1,154

○ 지분투자 잔액이 2005년에서 2009년까지 2.8배 증가한데 반해 동일 기간 중 배당금은 1.7배에 그치면서 지분투자 잔액 대비 배당금 비율(이하 “배당수익률”)은 2005년 2.8%에서 2009년 1.8%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²⁵⁾

- 제조업의 경우 2006년에 배당수익률이 1.9%로 크게 감소했다가 이후 소폭 증가하여 2009년에는 2.4%로 회복된 반면, 비제조업은 이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음.

25) 배당금과 이자지급액은 각각 지분투자액과 대부투자액의 반대급부임.

<표Ⅲ-3-2> 현지법인의 한국투자자 앞 배당금수익률 추이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조업	3.4	1.9	2.1	2.4	2.4
비제조업	2.1	3.4	3.2	1.7	1.2
총산업	2.8	2.4	2.5	2.0	1.8

○ 분석 대상 전체 기간의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지급액 비율은 총산업 69.5%, 제조업 54.1% 수준임.

- 이는 현지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의 절반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국내 기업이 수년간 15.0%에서 20.0%의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표Ⅲ-3-3> 국내 기업의 배당률 및 배당성향²⁶⁾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배당률	총산업	10.2	9.8	11.8	6.0	7.0
	제조업	12.4	11.9	15.3	9.5	12.4
배당성향	총산업	18.3	18.5	18.2	15.8	15.3
	제조업	19.0	19.2	20.9	17.2	16.4

○ 2009년 일본²⁷⁾의 현지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은 2009년 172.2억 달러(엔화 기준 1.6조 엔)에 달해 우리나라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큼.

- 일본의 경우에는 현지법인 이익이 2007년 이후 크게 감소했음에도 2009년에는 배당금 지급액이 전년대비 37.4% 증가하였음.

26) 국내기업 비교지표로 활용된 배당률은 배당금을 납입자본금으로, 배당성향은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이며, 이때 배당금은 해당 년도의 결의액임. 현지법인의 배당금은 현금 지급 기준이라는 점이 다르므로 연도별 비교보다는 분석기간 전체 누계액과 추세적 변화를 위주로 해석해야 함.

27) 일본은 모기업과 현지법인에 대한 설문지가 별도 분리되어 있으며, 모기업 설문 결과에 의하면 2009년 배당금이 2.2조 엔에 달함.

<표Ⅲ-3-4> 한국과 일본의 현지법인 배당금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업종	연도	한국(A)	일본(B)	비율(A/B)
조선업	2007	1,097	10,396	10.6
	2008	1,088	11,446	9.5
	2009	1,154	17,222	6.7
제조업	2007	613	7,028	8.7
	2008	649	7,399	8.8
	2009	732	12,290	6.0

자료: 일본 경산성

2) 산업별 배당금

○ 대분류상으로는 제조업 현지법인의 배당금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도매 및 소매업과 광업이 뒤를 이었음.

-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소매업은 2008년까지 증가하다 2009년에는 지급 규모가 줄었음.
- 배당수익률은 광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설업과 운수업도 비교적 높은 편임. 제조업은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소매업은 평균 대비 다소 낮은 수준임.

<표Ⅲ-3-5> 현지법인의 산업 대분류별 배당금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산 업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제조업	453	393	613	649	732	2,840
도매및소매업	61	123	240	298	103	825
광업	137	150	198	48	246	780
부동산업및임대업	1	9	2	32	7	50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0	0	1	0	0	1
건설업	1	0	19	14	43	76
운수업	3	16	5	22	16	61
기타	8	85	18	25	8	144
조선업	663	776	1,097	1,088	1,154	4,778

<표Ⅲ-3-6> 현지법인의 산업 대분류별 배당수익률 추이

단위: %

산 업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조업	3.4	1.9	2.1	2.4	2.4
도매및소매업	0.9	1.9	3.3	2.4	0.8
광업	26.8	24.2	11.3	1.9	3.8
부동산업및임대업	0.0	0.7	0.1	1.2	0.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0.0	0.0	0.1	0.0	0.0
건설업	0.4	0.0	3.6	1.8	4.2
운수업	1.2	3.0	0.9	3.3	1.4
기타	0.8	6.3	0.9	0.9	0.3
소산업	2.8	2.4	2.5	2.0	1.8

○ 제조업 중에서는 당기순이익 규모가 큰 전기전자, 자동차 제조업 현지법인의 배당금 지급액이 역시 높게 나타났는데, 두 업종의 5년 배당금 합계가 제조업 전체의 65.4%를 차지하고 있음.

- 전기전자, 자동차 제조업의 배당수익률은 제조업 전체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평균 3% 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속가공 제조업은 평균 6% 대를 기록하며 가장 높게 나타남.
- 섬유, 의복, 고무 및 플라스틱 등 노동집약적인 업종의 경우에는 배당액이 미미하며, 배당수익률 또한 0.2%~0.3% 대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Ⅲ-3-7> 제조업 중분류별 배당금 추이

단위: 백만달러

업종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전기전자	381	184	231	283	157	1,237
자동차	20	44	126	107	322	620
1차금속	26	32	28	27	17	131
금속가공	4	60	133	106	139	442
화학	2	31	46	70	19	169
섬유	0	3	3	3	1	10
의복	0	2	1	1	5	10
식료품	0	5	4	4	16	29
비금속 광물	12	0	0	5	4	22
기타 기계	1	7	12	16	12	48
기타 운송장비	0	1	4	4	2	10
전기장비	1	2	3	0	10	17
고무 및 플라스틱	0	3	1	2	0	6
기타 제품	4	19	21	19	26	90

<표Ⅲ-3-8> 제조업 중분류 배당수익률 추이

단위: %

업종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기전자	9.3	3.5	2.6	3.9	2.0
자동차	1.4	1.5	2.2	2.4	5.3
1차금속	1.6	1.8	1.5	1.2	0.6
금속가공	0.4	4.3	8.6	7.0	7.8
화학	0.3	1.1	2.4	3.4	1.0
섬유	0.0	0.4	0.3	0.4	0.1
의복	0.1	0.3	0.2	0.2	0.7
식료품	0.0	0.6	0.4	0.3	1.2
비금속 광물	3.2	0.0	0.0	0.7	0.5
기타 기계	0.2	1.6	0.9	1.7	1.2
기타 운송장비	0.0	0.2	0.5	0.2	0.1
전기장비	0.7	0.7	0.4	0.0	0.9
고무 및 플라스틱	0.0	0.5	0.1	0.3	0.0
기타 제품	0.5	0.8	0.9	1.0	1.3

○ 일본 제조업 현지법인의 최근 3년 배당금 지급액 현황을 보면, 수송기계 제조업의 배당금 지급액 비중이 제조업 전체의 45.7%로 가장 높고, 이어 화학 14.8%, 정보통신기계 10.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 현지법인이 동일 기간 중 전기전자, 자동차, 금속가공 제조업 순으로 각각 33.7%, 27.9%, 1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상이하며, 화학 제조업의 배당금 규모가 특히 큰 편임.

<표Ⅲ-3-9> 일본 현지법인 주요 업종별 배당금 추이

단위: 백만불

업종	2007	2008	2009	합계	비중
제조업	7,028	7,399	12,290	26,717	100.0
식료품	132	191	196	519	1.9
섬유	49	54	46	149	0.6
목재	95	113	106	314	1.2
화학	1,055	1,029	1,882	3,966	14.8
석유	8	25	10	43	0.2
요업 및 토석	128	147	59	334	1.3
철강	119	119	104	342	1.3
비철금속	246	318	606	1,170	4.4
금속제품	67	54	36	156	0.6
범용기계	147	160	103	409	1.5
생산용기계	461	112	287	861	3.2
업무용기계	201	170	183	555	2.1
전기기계	471	672	795	1,938	7.3
정보통신기계	951	1,019	887	2,856	10.7
수송기계	2,545	2,924	6,739	12,208	45.7
기타제조업	354	293	251	897	3.4
도소매업	2,674	2,656	3,505	8,836	100.0

3) 지역별 배당금

- 지역별로는 아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이 2009년 9.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배당금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당기순이익 규모가 크게 나타났던 중남미 현지법인의 배당금도 큰 편임.

<표Ⅲ-3-10> 현지법인의 지역별 배당금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지역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대양주	0	21	14	7	14	57
북미	5	126	8	2	11	151
아시아	514	465	795	1,007	945	3,726
아프리카	3	1	1	7	0	13
유럽	42	6	96	30	10	184
중남미	99	157	183	29	138	606
중동	0	0	0	6	36	42

- 배당수익률 측면에서는 아시아 현지법인이 평균대비 양호한 3% 내외를, 북미와 유럽은 1% 내외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2009년에는 중남미와 중동 현지법인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북미와 유럽은 0.1% 대로 낮게 나타남.

<표Ⅲ-3-11> 현지법인의 지역별 배당수익률 추이

단위: %

지역	2005	2006	2007	2008	2009
대양주	0.0	3.3	1.7	0.9	0.9
북미	0.1	1.7	0.1	0.0	0.1
아시아	4.5	2.5	3.0	3.6	3.1
아프리카	3.8	0.7	0.4	2.1	0.0
유럽	1.2	0.1	1.5	0.4	0.1
중남미	12.8	19.4	10.0	1.2	4.0
중동	0.0	0.0	0.0	4.7	13.7

○ 일본 현지법인의 최근 3년간 배당금 지급액 누계는 아시아 비중이 59.3%로 가장 높고, 북미와 유럽 비중은 각각 17.4%, 11.2% 수준임.

- 아시아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북미 비중도 상당히 높은 등 지역별 분포가 상대적으로 고른 편임.

<표Ⅲ-3-12> 일본 현지법인의 지역별 배당금 지급액

단위: 백만 달러, %

설립형태	2007	2008	2009	합계	비중
북미	1,708	1,332	3,741	6,782	17.4
아시아	5,839	6,735	10,573	23,147	59.3
유럽	1,184	1,850	1,348	4,382	11.2

4) 기업규모별 배당금

○ 대기업이 설립한 현지법인의 배당금 지급액이 전체 배당금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당수익률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현지법인보다 높은 수준임.

- 대기업 현지법인의 투자잔액 비중이 전체의 80% 수준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편이며, 중소기업 현지법인에 비해 양호한 이익 실현으로 배당금 지급 여력이 높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Ⅲ-3-13> 투자자 기업규모별 배당금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기업규모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대기업	606	704	994	993	1,053	4,350
중소기업	57	64	98	81	85	385
기타	0	8	5	14	16	43

<표Ⅲ-3-14> 투자자 기업규모별 배당수익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기업규모	2005	2006	2007	2008	2009
대기업	3.0	2.9	3.0	2.3	1.9
중소기업	1.9	0.8	1.0	0.9	0.8
기타	0.0	5.6	0.5	2.6	2.4

4) 설립형태별 배당금

○ 설립형태별로는 투자잔액이 큰 신설법인설립 방식 현지법인의 2009년 배당금 지급액이 8.5억 달러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함.

- 배당수익률의 경우 연도가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Ⅲ-3-15> 설립형태별 배당금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설립형태	2006	2007	2008	2009	합계
지분인수	58.7	166.2	67.8	306.0	598.6
신설법인	717.3	931.0	1,020.1	848.1	3,516.6

<표Ⅲ-3-16> 설립형태별 배당수익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설립형태	2006	2007	2008	2009
지분인수	1.0	3.3	1.0	3.0
신설법인	2.7	2.4	2.2	1.5

(2)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

1) 개관

○ 2009년 현지법인의 한국 투자자 앞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은 28.7억 달러로 집계되며, 이는 배당금 지급 규모의 2배를 초과하고 있어 현지법인으로터의 주요한 수익 원천이 되고 있음.

- 배당금과 마찬가지로 지급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고,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 합계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도 오히려 지급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매년 제조업 현지법인이 비제조업 현지법인보다 월등히 많은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을 지급하여 왔으나, 2009년에는 비제조업 현지법인 지급액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며 차이가 줄었음.

<표Ⅲ-3-17> 현지법인의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조업	961	1,308	1,758	2,043	1,707
비제조업	27	51	30	128	1,165
총산업	988	1,359	1,789	2,171	2,872

○ 통계 분석 결과 현지법인의 매출액과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의 상관 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나,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의 상당 부분이 로열티에 해당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 로열티의 경우 통상 기업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계약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임.

2) 산업별 기타 지급액

○ 배당금에서는 산업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나, 기타 지급액의 경우에는 5년 합계 기준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84.7%, 도소매업 비중이 13.0%로 두 산업에 집중되어 있음.

- 도소매업의 경우에도 2008년까지는 1억 달러 미만으로 지급액 규모가 작았으나, 2009년에 크게 증가한 것임.

<표Ⅲ-3-18> 산업 대분류별 기타 지급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산 업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제조업	961	1,308	1,758	2,043	1,707	7,777
도매및소매업	4	19	6	66	1,102	1,196
광업	0	0	0	0	1	1
부동산업및임대업	9	15	12	14	36	86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0	0	3	0	0	3
건설업	0	3	0	2	0	4
운수업	0	0	0	2	3	4
기타	14	14	10	45	23	107
총합계	988	1,359	1,789	2,171	2,872	9,179

○ 제조업 내에서도 전기전자, 자동차, 금속가공 제조업의 5년 기타 지급액 합계가 제조업 전체의 92.1%를 차지하고 있어 3개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배당금에서보다 더 강하게 나타남.

- 동 산업 제품의 경우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로써 주력 수출 품목일 뿐만 아니라,
- 현지법인의 매출 및 이익 등 양호한 경영성과를 통해 배당금과 로열티를 모기업에 지급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의 수익 원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Ⅲ-3-19> 제조업 중분류별 기타 지급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업종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전기전자	567	741	886	1,174	762	4,129
자동차	59	158	337	383	435	1,373
1차금속	3	3	5	3	5	19
금속가공	267	292	425	347	330	1,660
화학	3	5	4	6	8	26
섬유	5	12	18	21	38	94
의복	1	0	3	2	5	10
식료품	16	23	3	4	5	51
비금속 광물	7	4	2	1	2	16
기타 기계	2	9	4	2	5	21
기타 운송장비	9	13	18	13	37	90
전기장비	4	5	9	11	17	46
고무 및 플라스틱	18	34	44	68	45	208
기타 제품	1	9	2	10	16	36

○ 일본 현지법인의 로열티 지급액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임.

- 조사 항목의 차이²⁸⁾로 인해 비율 분석에 한계가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도 수송기계, 통신기계 등이 로열티 규모가 크게 나타났고, 이어 전기기계, 화학 제조업 등도 우리나라 현지법인에 비해 지급 규모가 큰 편임.

28) 우리나라는 “로열티 등 기타지급액”으로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로열티와 기타 지급액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음.

<표Ⅲ-3-20> 일본 현지법인의 로열티 지급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업종	2007	2008	2009	합계	비중
제조업	8,193	6,933	5,954	21,080	100.0
식료품	79	92	92	264	1.3
섬유	48	51	36	136	0.6
목재	10	7	10	27	0.1
화학	399	369	484	1,252	5.9
석유	9	8	7	23	0.1
요업 및 토석	36	38	66	140	0.7
철강	14	16	14	44	0.2
비철금속	109	105	99	313	1.5
금속제품	35	38	43	116	0.5
범용기계	72	106	71	249	1.2
생산용기계	212	85	48	345	1.6
업무용기계	242	242	236	720	3.4
전기기계	610	638	575	1,824	8.7
정보통신기계	1,463	1,178	1,018	3,659	17.4
수송기계	4,665	3,761	2,977	11,402	54.1
기타제조업	191	198	179	567	2.7

3) 지역별 기타 지급액

- 지역별로는 아시아 현지법인의 기타 지급액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2009년에는 아시아가 소폭 감소한 대신 북미는 크게 증가하였음.

<표Ⅲ-3-21> 지역별 기타 지급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지역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대양주	3	2	2	0	0	8
북미	6	11	18	24	1,081	1,140
아시아	803	1,307	1,619	1,944	1,444	7,117
아프리카	0	0	1	1	2	5
유럽	164	19	128	184	318	814
중남미	11	20	21	18	26	96
중동	0	0	0	0	0	0

4) 기업규모별 기타 지급액

- 대기업을 설립한 현지법인의 기타 지급액은 2009년 27.0억 달러에 달하며, 5년 누적으로는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Ⅲ-3-22> 투자자 기업규모별 기타 지급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기업규모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대기업	970	1,311	1,713	2,043	2,697	8,733
중소기업	18	48	76	128	175	445
기타	0.0	0.2	0.0	0.0	0.5	0.8

5) 설립형태별 기타 지급액

- 설립형태별로는 신설법인설립 방식 현지법인의 2009년 기타 지급액은 25.1억 달러로 전체의 66.1% 이상을, 4년 누적 금액은 80.9%를 차지함.

- 이는 신설법인 설립 방식의 투자잔액 비중이 90%를 초과한 점을 고려하면, 지분인수 방식의 기타 지급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 할 수 있겠음.

<표Ⅲ-3-23> 설립형태별 기타지급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설립형태	2006	2007	2008	2009	합계
지분인수	103	359	733	368	1,562
신설법인	1,256	1,430	1,438	2,505	6,629

(3) 이자 지급액

- 한국 투자자 앞 이자지급액은 2009년 0.6억 달러로 미미한 편임.

- 최근 2년간 비제조업 현지법인의 이자지급액이 제조업 현지법인의 이자지급액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분석대상에 포함된 비제조업 현지법인에 대한 대부투자 규모가 더 크기 때문임.
- 대부투자 잔액 대비 이자지급액 비율은 0.9%에서 1.4% 범위 내로 낮은 편인데, 통상 대부투자가 관계사 간의 장기 차입 형태로 이루어짐에 따라 시장 금리보다 낮은 이자를 투자자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Ⅲ-3-24> 현지법인의 한국투자자 앞 이자 지급액

단위: 백만 달러

산 업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조업	18	22	28	14	25
비제조업	14	14	24	40	36
총산업	32	36	52	55	61

- 이자지급액은 대부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산업이나 지역에서 크게 발생하는 바, 산업 대분류 상으로는 제조업과 광업에서 이자지급액이 크게 발생했음.

<표Ⅲ-2-25 > 산업 대분류별 이자 지급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산 업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제조업	17.9	21.8	28.0	14.3	25.0	107.0
도매및소매업	0.9	0.2	0.4	3.9	3.2	8.6
광업	8.2	5.8	10.1	21.5	10.9	56.5
부동산업및임대업	1.6	2.6	4.2	4.2	6.9	19.5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0.0	0.0	0.1	0.1	0.8	1.1
건설업	0.0	2.6	4.4	1.5	0.3	8.7
운수업	0.0	1.2	0.6	6.5	12.1	20.4
기타	2.7	1.8	3.9	2.9	2.0	13.2
총산업	31.5	36.0	51.5	54.8	61.2	235.0

<표Ⅲ-2-26> 산업 대분류별 대부투자 잔액 추이

단위: %

산 업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조업	605	637	854	881	1,038
도매및소매업	50	43	103	229	272
광업	167	739	1,536	1,927	2,217
부동산업및임대업	158	150	355	903	1,45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44	45	546	1,087	285
건설업	108	1,966	311	721	830
운수업	10	27	109	135	460
기타	112	355	335	379	581
총산업	1,254	3,962	4,149	6,263	7,134

○ 주요 업종 중에는 대부투자가 많은 전기전자 제조업, 의복 제조업, 비금속광물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의 이자지급액이 많았음.

- 배당금과 기타 지급액 규모가 컸던 금속가공 제조업의 경우는 대부투자가 거의 없어 이자 지급액도 매우 적은 규모임.

<표Ⅲ-3-27> 제조업 중분류별 이자 지급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업종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전기전자	0.4	1.6	10.0	2.4	3.2	17.6
자동차	0.0	2.1	-0.8	1.3	0.4	3.0
1차금속	2.3	3.3	1.7	0.7	0.4	8.4
금속가공	0.4	0.0	0.2	0.0	0.3	0.9
화학	0.1	0.3	1.9	0.1	2.1	4.5
섬유	0.9	0.4	0.9	0.4	2.1	4.7
의복	1.9	1.7	7.4	2.9	1.2	15.1
식료품	0.3	0.4	1.5	0.6	0.7	3.5
비금속 광물	3.7	6.7	2.8	1.9	0.5	15.6
기타 기계	0.2	0.1	0.2	0.2	0.1	0.8
기타 운송장비	2.9	1.9	0.0	0.1	8.4	13.3
전기장비	0.0	0.3	0.1	0.5	1.1	2.0
고무 및 플라스틱	0.2	0.0	0.1	0.2	1.3	1.8
기타 제품	4.6	2.9	2.1	3.0	3.2	15.8

<표Ⅲ-3-28> 현지법인의 주요 업종별 대부투자 잔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업종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기전자	235.1	280.0	305.3	112.1	207.8
자동차	12.0	10.5	15.1	53.5	88.1
1차금속	0.0	4.6	3.5	11.7	16.4
금속가공	6.8	8.7	77.1	28.2	10.5
화학	13.1	23.1	16.5	37.0	56.8
섬유	47.4	47.6	99.4	64.7	57.0
의복	109.3	73.9	98.0	143.4	116.1
식료품	49.8	13.4	20.8	50.5	55.6
비금속 광물	61.9	77.2	82.6	81.4	100.5
기타 기계	2.8	8.1	14.0	32.3	61.1
기타 운송장비	4.1	0.5	0.4	118.8	130.3
전기장비	0.4	9.2	12.5	12.2	24.4
고무 및 플라스틱	12.0	19.8	23.1	17.2	28.0
기타 제품	50.0	60.5	86.4	118.1	85.3

○ 지역별 양상 또한 대부투자 규모가 큰 아시아, 북미, 유럽 등에서 이자 지급액이 많이 발생하였음.

<표Ⅲ-3-29> 지역별 이자지급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대양주	4.8	0.8	6.0	6.8	6.6	25.0
북미	1.9	3.4	5.5	19.7	7.7	38.2
아시아	18.8	26.5	18.8	19.7	26.0	109.8
아프리카	0.0	0.0	0.0	0.7	1.7	2.4
유럽	2.5	2.6	3.9	0.7	11.8	21.5
중남미	3.5	2.5	15.1	6.8	7.4	35.3
중동	0.0	0.2	2.2	0.3	0.0	2.7

<표Ⅲ-3-30> 지역별 대부투자 잔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대양주	172	142	219	200	489
북미	311	2,012	440	1,035	1,266
아시아	608	1,058	1,595	2,390	3,175
아프리카	22	51	132	270	437
유럽	52	119	810	1,717	891
중남미	84	79	884	546	723
중동	4	501	70	105	152

제 IV 장

對現지법인 수출입의 현황 및 구조

1. 對現지법인 수출입의 구조

(1) 개관

- 2009년 중 對現지법인 수출은 1,303억 5천만 달러로 한국 전체 수출의 35.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 32.0%에서 소폭 상승하였음.
 - 2009년 중 對現지법인 수입은 559억 7천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17.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의 9.6%에서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비중 증가폭이 수출보다 큼.
- 對제조업 현지법인의 수출은 2009년 407억 9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11.2%에 달하고 있는데 2005년의 13.7%에 비해서는 비중이 하락하였으며 2007년 이후 정체 상태에 있음.
 - 제조업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은 2009년 361억 4천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11.2%에 달해 2005년의 3.0%에서 크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對現지법인 무역흑자는 쏠산업 기준으로 2009년 743억 8천만 달러로 2005년의 658억 5천만 달러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는 추세임.
 - 반면에 對제조업 현지법인 무역흑자는 2005년 313억 4천만 달러에서 2009년에는 46억 6천만 달러로 대폭 축소되었음.

- 이는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역수입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 특히,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표Ⅳ-1-1> 對현지법인 수출입 추이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백만달러	비중(%)	백만달러	비중(%)	백만달러
全산업	2009	130,350	35.9	55,966	17.3	74,384
	2008	127,020	30.1	59,161	13.6	67,859
	2007	120,630	32.5	44,500	12.5	76,130
	2006	98,717	30.3	39,340	12.7	59,377
	2005	90,985	32.0	25,137	9.6	65,847
제조업	2009	40,791	11.2	36,135	11.2	4,656
	2008	43,989	10.4	35,691	8.2	8,297
	2007	42,316	11.4	27,802	7.8	14,513
	2006	38,681	11.9	26,322	8.5	12,359
	2005	39,068	13.7	7,727	3.0	31,341

주: 비중 = 對현지법인 수출입 / 우리나라 총수출(수입)

○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은 전체 수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함으로써 우리 수출의 주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음.

- 2009년 우리나라 수출이 2005년 대비 27.8% 증가한데 비해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은 같은 기간 중 43.3% 증가하였음.
- 특히, 전년 대비 13.9%나 수출이 감소하였던 2009년에도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은 전년 대비 2.6% 증가함으로써 수출의 안정성에 기여하였음.
- 2009년 對현지법인 수입은 2005년 대비 122.6% 증가하여 우리나라 수입이 동일 기간에 23.7% 증가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함.

- 對현지법인 수입의 경우에도 2009년에 전년 대비 5.4% 감소하여 전체 수입 감소율 25.8%보다 안정성을 보임.
- 현지법인과의 수출입은 내부 거래이므로 외부 환경 악화에 민감도가 약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통계임.

<표Ⅳ-1-2> 對현지법인 수출입 증감률 비교

구 분		대현지법인 수출입		우리나라 총수출입	
		백만달러	증감률(%)	백만달러	증감률(%)
수출	2009	130,350	2.6	363,534	-13.9
	2008	127,020	5.3	422,007	13.6
	2007	120,630	22.2	371,489	14.1
	2006	98,717	8.5	325,465	14.4
	2005	90,985	-	284,419	-
수입	2009	55,966	-5.4	323,085	-25.8
	2008	59,161	32.9	435,275	22.0
	2007	44,500	13.1	356,846	15.3
	2006	39,340	56.5	309,383	18.4
	2005	25,137	-	261,238	-

- 일본과 비교하면 매출 비중과 마찬가지로 對현지법인 수출입의 비중이 모두 저조
 - 일본은 2009년 對현지법인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7.9%로 한국의 35.9%의 두 배가 넘음.
 - 수입의 경우에도 2009년 일본의 비중이 31.1%로 한국의 17.3%에 두 배가 조금 안되는 수준임.
- 일본 제조업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입 비중은 2004년 이후 하락하고 있는데 추세적인 현상인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음.
 - 일본 제조업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04년 33.6%에서 2008년 27.9%로 낮아졌다가 2009년에는 29.7%로 높아졌음.
 - 2009년의 경우 절대액 기준으로 2008년의 226조 4천억 엔에서 161조 엔으로 감소하였지만 엔고²⁹⁾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집계 기업수가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³⁰⁾ 크게 감소하였다고 분석됨 (달러표시로도 21.4% 감소).
 -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현지법인과 무역수지도 2008년 12조 3천억 엔에서 2009년에는 7조 1천억 엔으로 축소
- 일본의 對현지법인과 무역 규모가 2009년에 축소된 점을 보면, 한국 현지법인이 2009년에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올렸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모기업의 세계 시장 확대에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29) 엔화의 대달러화 환율은 연평균으로 2008년 103.359엔에서 2009년 94.570엔으로 하락하였음.

30) 집계된 현지법인 수가 2008년 15,680개사에서 2009년 18,201개사로 증가하였음.

<표IV-1-3> 일본의 對現지법인 수출입 추이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십억엔	비중(%)	십억엔	비중(%)	십억엔
全산업	2009	42,186	77.9	15,970	31.1	26,215
	2008	60,955	75.2	20,395	25.8	40,560
	2007	62,686	74.7	22,292	30.6	40,394
	2006	55,915	73.9	30,878	45.8	25,037
	2005	47,707	72.7	22,951	40.4	24,757
	2004	44,345	72.5	19,179	39.0	25,167
	2003	34,435	63.1	15,811	35.7	18,624
	2002	33,956	65.2	14,403	34.1	19,554
	2001	40,217	82.1	15,231	35.9	24,986
	2000	35,185	68.1	17,329	42.4	17,855
	1999	33,413	70.3	13,931	39.5	19,482
제조업	2009	16,104	29.7	8,988	17.5	7,117
	2008	22,641	27.9	10,340	13.1	12,301
	2007	25,398	30.3	11,023	15.1	14,375
	2006	23,903	31.6	11,407	16.9	12,496
	2005	21,979	33.5	9,307	16.4	12,672
	2004	20,561	33.6	8,674	17.6	11,888
	2003	16,912	31.0	6,799	15.3	10,114
	2002	15,091	29.0	6,352	15.1	8,739
	2001	17,281	35.3	6,045	14.3	11,236
	2000	14,216	27.5	6,113	14.9	8,103
	1999	13,397	28.2	5,272	14.9	8,124

주: 비중 = 일본의 對現지법인 수출입 / 일본의 총수출입

○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對현지법인 수출입 비중이 높음.

- 미국의 경우 쏘산업 및 제조업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비중이 1985년 각각 31.8%와 22.7%에서 낮아져 2008년에는 각각 20.7%와 13.0%를 기록
- 쏘산업 및 제조업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일정한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 않으나 이 기간 중 소폭 계속 낮아진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미국의 경우 對현지법인 무역수지가 80년대 중반의 흑자에서 2000년대에는 적자를 시현하고 있음.

- 제조업 현지법인과 무역수지는 1990년부터 적자로 전환하였으며, 쏘산업 현지법인과 무역수지는 2000년에 전환됨.

○ 미국의 對현지법인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추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현지법인, 특히 제조업 현지법인의 무역수지 추세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

- 분석 기간 중 쏘산업 현지법인과 무역 흑자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제조업 현지법인과 무역흑자는 2005년 313억 4천만 달러에서 2009년 46억 6천만 달러로 축소되었음.

<표IV-1-4> 미국의 對현지법인 수출입 추이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백만달러	비중(%)	백만달러	비중(%)	백만달러
全산업	2008	269,752	20.7	337,057	15.5	-67,305
	2007	256,147	22.0	323,903	16.0	-67,756
	2006	237,553	22.9	307,165	16.0	-69,612
	2005	217,157	23.9	295,302	17.0	-78,145
	2004	195,710	23.9	262,135	17.2	-66,425
	2003	183,976	25.4	232,522	17.8	-48,546
	2002	178,544	25.8	215,844	18.0	-37,300
	2001	197,967	27.2	216,899	18.4	-18,932
	2000	209,311	26.8	225,389	17.9	-16,078
	1999	196,499	28.2	194,511	18.4	1,988
	1990	106,426	27.0	102,150	19.8	4,276
	1985	69,618	31.8	68,181	19.3	1,437
제조업	2008	168,628	13.0	243,318	11.2	-74,690
	2007	166,799	14.3	244,063	12.1	-77,264
	2006	159,168	15.3	237,041	12.4	-77,873
	2005	141,662	15.6	228,998	13.2	-87,336
	2004	129,494	15.8	208,764	13.7	-79,270
	2003	126,836	17.5	187,606	14.4	-60,770
	2002	123,357	17.8	183,876	15.3	-60,519
	2001	132,671	18.2	183,816	15.6	-51,145
	2000	145,087	18.6	195,482	15.5	-50,395
	1999	139,075	20.0	169,366	16.0	-30,291
	1990	70,758	18.0	81,061	15.7	-10,303
	1985	49,587	22.7	48,431	13.7	1,156

주: 비중 = 미국의 對현지법인 수출입 / 미국의 총수출입

(2) 산업별 수출입 구조

- 산업 대분류별로는 2009년 對현지법인 수출입의 90% 이상이 제조업과 도소매업 두 산업에 집중되어 있음.

- 도소매업은 수출의 59.9%를 차지하고 있어 對현지법인 수출에 있어 중요 산업이며, 제조업은 수입의 64.6%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무역수지에서는 도소매업이 2009년 617억 달러로 압도적으로 큰 무역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조업은 46억 6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냄.
- 이외 업종 중에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경우는 약 53억 달러 무역 흑자를, 광업의 경우는 42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보임.

<표IV-1-5> 2009년 산업 대분류별 현지법인 수출입 구조

구 분	기업 수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백만달러
		백만 달러	비중(%)	백만 달러	비중 (%)	
제조업	2,076	40,791	31.3	36,135	64.6	4,656
도매및소매업	449	78,092	59.9	16,396	29.3	61,696
광업	133	324	0.2	1,212	2.2	-888
부동산업및임대업	356	5,556	4.3	237	0.4	5,319
전문,과학및기술 서비스업	90	366	0.3	834	1.5	-468
건설업	111	44	0.0	144	0.3	-100
운수업	102	5,128	3.9	907	1.6	4,221
기타	337	48	0.0	101	0.2	-53
총산업	3,654	130,350	100.0	55,966	100.0	74,384

○ 2009년 중 산업별 수출입 구조를 중산업 분류로 살펴보면, 소매업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606억 4천만 달러로 총산업의 46.5%, 제조업의 148.7%(중산업별 수출입 비중은 부록표 7 참조)에 이름.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과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합한 도소매업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의 비중은 59.9%에 이름.

- 이들 산업에는 80년대부터 수출 확대를 위해 설치한 무역업 현지 법인이 포함되어 수출에 크게 기여함.
 - 2009년 말 현재 누적투자액에서 소매업이 차지한 비중인 10.3% (분석대상의 투자잔액 기준으로 12.5%)에 비해 수출 비중이 매우 높는데 이는 투자목적이 수출을 위한다에 따른 것임.
- 전기전자 제조업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157억 달러로 전체의 12.0%, 제조업의 38.5%로 두 번째 큰 업종이자 제조업에서 가장 큰 업종임.
- 이 업종은 제조업 중에서 가장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한 업종으로 2009년 말 현재 쏜산업 해외직접투자 누적액의 11.1%(분석대상의 투자잔액 기준으로 10.9%)를 차지함.
- 자동차 제조업 현지법인 앞 수출은 80억 7천만 달러로 전체 6.2%, 제조업의 19.8%를 차지, 제조업에서는 두 번째 큰 업종임.
- 이 업종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은 겨우 4억 달러에 그쳐 제조업 무역수지의 핵심 업종임.
 - 이 업종은 2009년 중 쏜산업 해외직접투자 누적액의 6.1%(분석대상의 8.4%)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하며 상대적으로 수출이 큼.
- 수입에 있어서는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업이 152억 2천만 달러로 전체의 27.2%, 제조업의 42.1%를 차지, 중분류 산업 중 가장 수입이 많은 업종임.
-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소매업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 전체 수입의 25.1%로 수출 비중에 비해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IV-1-6> 2009년 주요 중분류 산업의 수출입 구조

산업 코드 및 산업명	기업 수	수출		수입		수지 백만 달러
		백만 달러	비율 (%)	백만 달러	비율 (%)	
총산업	3,654	130,350	319.6	55,966	154.9	74,384
10 식료품	86	43	0.0	170	0.3	-128
13 섬유	95	239	0.6	365	1.0	-126
14 의복	153	457	1.1	929	2.6	-472
15 가죽, 가방 및 신발	64	441	1.1	845	2.3	-404
20 화학제품	171	957	2.3	486	1.3	471
21 의약품 제조업	26	38	0.1	6	0.0	32
22 고무 및 플라스틱	55	1,081	2.7	1,076	3.0	5
23 비금속 광물	46	54	0.1	158	0.4	-104
24 1차 금속	121	1,196	2.9	345	1.0	851
25 금속가공	128	3,139	7.7	5,650	15.6	-2,510
26 전기전자	396	15,695	38.5	15,216	42.1	479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51	397	1.0	729	2.0	-332
28 전기장비	89	1,299	3.2	812	2.2	487
29 기타 기계	122	1,247	3.1	560	1.6	686
30 자동차	306	8,072	19.8	439	1.2	7,633
31 기타 운송장비	41	1,144	2.8	1,538	4.3	-394
32 가구 제조업	10	7	0.0	15	0.0	-7
33 기타 제품 제조업	75	109	0.3	262	0.7	-153
제조업	2,076	40,791	100.0	36,135	100.0	4,656
45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50	13,655	33.5	107	0.3	13,547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148	3,797	9.3	2,232	6.2	1,566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251	60,640	148.7	14,056	38.9	46,583
52 창고 및 운송관련	43	4,924	3.8	385	1.1	4,539
69 임대업;부동산 제외	84	5,556	4.3	237	0.7	5,319

주: 1) 비율 = 해당 산업의 수출입 / 제조업

2) 모든 중산업별 통계는 <부록표 4> 참조.

○ 현지법인과의 무역수지를 보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소매업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465억 8천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함.

- 이어서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과 자동차 제조업에서 각각 135억 5천만달러와 76억 3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임대업과 창고 및 운송 관련업종에서 각각 53억 2천만 달러와 45억 4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들 업종이 수출중개 혹은 수입된 제품으로 영업을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수출에서 두 번째,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업의 경우에는 4.8억 달러의 흑자에 그쳐 역수입이 활발함을 알 수 있음.
- 금속가공제품업도 활발한 역수입으로 인해 2009년 중 25억 1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80년대 말과 90년대 초반 해외생산에 나섰던 업종의 경우 역수입으로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2009년 중 섬유제품은 1억 2천만 달러, 의복 및 모피제품은 4억 7천만 달러, 가죽 가방 및 신발제품은 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2009년 중 현지법인과의 수출입을 중산업 분류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 현지법인과의 수출은 도소매업 현지법인과의 거래에 크게 의존하며, 소매업과 자동차 제조업이 투자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 및 무역수지에서 선전한 것으로 평가됨.
 -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업과 금속가공제품업에서 역수입이 활발하며 역수입 업종으로 고려되었던 의복, 가죽 등 사양제품에서 역수입으로 적자업종이기는 하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3) 지역별 수출입 구조

- 지역별로는 아시아소재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입이 가장 크나, 무역 흑자는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음.
 - 2009년 지역별 수출 비중은 대아시아 현지법인 수출이 41.4%, 대 북미 현지법인 수출이 27.4%, 對유럽 현지법인 수출이 25.0%를 차지
 - 수입의 경우에는 아시아가 88.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북미가 6.6%로 다음을 차지
 - 현지법인과 무역수지는 전지역에서 흑자이나, 대북미 현지법인과 거래와 對유럽 현지법인과 흑자가 각각 320억 6천만 달러와 306억 8천 만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
- 2009년 전체 수출에서 對현지법인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수출에서 전지역 평균이상으로 현지법인에 의존하는 지역은 북미와 유럽이고 수입에서는 아시아가 유일함.
 - 전체 수출중 對현지법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북미가 86.9%, 유럽이 58.3%를 차지하여 전지역 평균인 35.9%보다 높음.
 - 전체 수입중 對현지법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시아가 32.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북미가 11.3%임.
 - 북미와 유럽에서 수출비중이 높은 것은 주로 도소매업 법인에 대한 수출이 많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다음에 분석하는 제조업 비중은 크게 낮아짐.

<표IV-1-7> 2009년 지역별 소산업 현지법인의 수출입 구조

지역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백만달러	비중1	비중2	백만달러	비중1	비중2	백만달러
대양주	2,527	15.5	1.9	65	0.4	0.1	2,462
북미	35,727	86.9	27.4	3,672	11.3	6.6	32,055
아시아	54,016	28.3	41.4	49,504	32.1	88.5	4,512
아프리카	900	10.6	0.7	55	1.7	0.1	845
유럽	32,645	58.3	25.0	1,963	4.5	3.5	30,682
중남미	3,515	13.1	2.7	484	4.2	0.9	3,031
중동	1,021	4.2	0.8	224	0.4	0.4	797
전지역	130,350	35.9	100.0	55,966	17.3	100.0	74,384

주: 1) 비중1 = 해당지역 對현지법인 수출입 / 한국의 해당지역 수출입

2) 비중2 = 해당지역 對현지법인 수출입 / 전지역 對현지법인 수출입.

○ 제조업 현지법인과 수출입 구조를 보면, 투자 집중도를 반영하여 아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음.

- 對제조업 현지법인 수출에서 대아시아 제조업현지법인 수출은 282억 6천만 달러로 제조업 현지법인에 대한 전체 수출의 69.3%를 차지

- 다음으로 對유럽 제조업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전체의 16.7%를 차지하는데 對유럽 제조업 투자가 북미보다 많은 것도 요인이지만 유럽소재 현지법인의 대한국 수입이 활발한 것도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음.

○ 2009년 전체 수출에서 對제조업 현지법인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수출에서 전지역 평균이상으로 제조업 현지법인에 의존하는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이고 수입에서는 아시아가 유일함.

- 전체 수출중 對제조업 현지법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시아가 14.8%, 유럽이 12.2%를 차지하여 전 지역 평균인 11.2%보다 높음.

- 전체 수입중 對제조업 현지법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시아

가 2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북미와 유럽에서 對제조업 현지법인 수출비중이 對全산업 현지법인 수출비중보다 크게 낮은 것은 주로 도소매업 법인에 대한 수출이 많은 데 기인하는 것임.

○ 수입의 경우에는 대아시아 제조업 현지법인의 수입이 345억 5천만 달러로 제조업 현지법인에 대한 수입의 95.6%를 차지

○ 무역수지의 경우에는 대아시아 제조업 현지법인과 거래에서 62억 9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시현함.

- 반면에 對유럽 제조업 현지법인과 거래에서는 62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내 아시아지역 현지법인과 적자를 상쇄함.

<표Ⅳ-1-8> 2009년 지역별 제조업 현지법인의 수출입 구조

단위: 백만 달러, %

지역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백만달러
	백만달러	비중1	비중2	백만달러	비중1	비중2	
대양주	288	1.8	0.7	32	0.2	0.1	256
북미	3,242	7.9	7.9	281	0.9	0.8	2,961
아시아	28,257	14.8	69.3	34,546	22.4	95.6	-6,289
아프리카	37	0.4	0.1	39	1.2	0.1	-2
유럽	6,824	12.2	16.7	627	1.4	1.7	6,198
중남미	1,887	7.1	4.6	399	3.4	1.1	1,489
중동	256	1.1	0.6	212	0.3	0.6	44
전지역	40,791	11.2	100.0	36,135	11.2	100.0	4,656

주: 1) 비중1 = 해당지역 對현지법인 수출입 / 한국의 해당지역 수출입

2) 비중2 = 해당지역 對현지법인 수출입 / 전지역 對현지법인 수출입

(4) 국가별 수출입 구조

-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무역흑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미 전체 수출에서 현지법인의 비중이 큼.
 - 2009년 중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은 335억 1천만 달러로 대 미국 전체 수출의 89.0%, 해외 현지법인 전체에 대한 수출의 25.7%를 차지함.
 - 반면에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은 36억 달러로 대미국 수입의 12.4%, 대해외현지법인 전체 수입의 6.4%에 불과함.
 - 그 결과 2009년 중 미국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299억 1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임.
 - 미국 현지법인은 주로 무역업으로 제조업 현지법인과의 거래는 상대적으로 저조함.
-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은 2009년 중 189억 4천만 달러로 전체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의 14.5%를 차지한데 반해 수입은 252억 6천만 달러로 전체 현지법인 수입의 45.1%를 차지함.
 - 그 결과 2009년 중 중국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는 63억 2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
 - 중국 투자가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어 제조업 현지법인과의 거래가 대부분임.
-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무역적자를 보인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임.

<표IV-1-9> 2009년 주요 국가별 對全산업 현지법인 수출입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백만달러	비중1	비중2	백만달러	비중1	비중2	백만달러
미국	33,505	89.0	25.7	3,597	12.4	6.4	29,908
네덜란드	1,232	27.2	0.9	1	0.0	0.0	1,231
러시아	2,493	59.4	1.9	7	0.1	0.0	2,486
베트남	1,496	20.9	1.1	2,038	86.0	3.6	-542
브라질	1,696	31.9	1.3	45	1.2	0.1	1,651
싱가포르	7,622	56.0	5.8	7,410	94.1	13.2	211
영국	3,508	92.4	2.7	253	8.7	0.5	3,255
인도	1,080	13.5	0.8	83	2.0	0.1	997
인도네시아	946	15.8	0.7	2,580	27.9	4.6	-1,634
일본	4,893	22.5	3.8	6,497	13.1	11.6	-1,604
중국	18,943	21.8	14.5	25,259	46.6	45.1	-6,316
캐나다	2,221	64.6	1.7	75	2.1	0.1	2,147
홍콩	7,363	37.4	5.6	3,497	235.1	6.2	3,866
소계	86,998	39.2	66.7	51,341	29.2	91.7	35,656
전국가	130,350	35.9	100.0	55,966	17.3	100.0	74,384

주: 1) 비중1 = 해당국가 對현지법인 수출입 / 한국의 해당국가 수출입

2) 비중2 = 해당국가 對현지법인 수출입 / 전국가 對현지법인 수출입.

○ 全산업과는 달리 제조업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對중국 투자가 제조업에 집중된 결과로 2009년 중 중국 제조업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166억 3천만 달러로 對중국 전체 수출의 19.2%를 차지함.

- 수입은 231억 9천만 달러로 對중국 수입의 42.8%, 전체 현지법인 수입의 64.2%를 차지하여 해외생산을 통한 역수입의 전형적인 국가라 할 수 있음.

- 2009년 중 중국 제조업 현지법인과 거래에서 65억 6천만 달러의 대폭의 적자를 시현함.

<표IV-1-10> 2009년 주요 국가별 對제조업 현지법인 수출입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백만달러
	백만달러	비중1	비중2	백만달러	비중1	비중2	
미국	3,241	8.6	7.9	281	1.0	0.8	2,960
네덜란드	0	0.0	0.0	1	0.0	0.0	-1
러시아	782	18.7	1.9	0	0.0	0.0	782
베트남	1,489	20.8	3.6	2,031	85.7	5.6	-542
브라질	1,688	31.8	4.1	0	0.0	0.0	1,688
싱가포르	5,139	37.7	12.6	6,274	79.7	17.4	-1,135
영국	2	0.0	0.0	1	0.0	0.0	1
인도	1,045	13.0	2.6	15	0.4	0.0	1,030
인도네시아	922	15.4	2.3	1,506	16.3	4.2	-584
일본	94	0.4	0.2	4	0.0	0.0	90
중국	16,629	19.2	40.8	23,190	42.8	64.2	-6,562
캐나다	1	0.0	0.0	0	0.0	0.0	1
홍콩	1,027	5.2	2.5	425	28.6	1.2	602
소계	32,059	14.5	78.6	33,726	19.2	93.3	-1,668
전국가	40,791	11.2	100.0	36,135	11.2	100.0	4,656

주: 1) 비중1 = 해당국가 對현지법인 수출입 / 한국의 해당국가 수출입

2) 비중2 = 해당국가 對현지법인 수출입 / 전국가 對현지법인 수출(입)

○ 현지법인과 수출입거래를 소산업과 제조업에서 비교한 비율 분석에서 특징적인 것은 수출에서 러시아를 제외한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음.

- 이들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주로 제조업에 치중된 결과로 중국의 경우 전체 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말 현재 누적 투자액 기준으로 74.8%를 차지함.

- 특히, 2000년 초반 투자가 활발하였던 베트남의 경우에는 제조업의 비중이 99.5%를 넘어서서 한국의 對현지법인 수출입의 거의 대부분이 제조업 현지법인과 거래임.

-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에 수입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음.
- 최근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가 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실행되어 과거에 시장진입을 위해 무역업에 의존했던 것과의 차이를 반영한 것임.

<표Ⅳ-1-11> 2009년 쏘산업 및 제조업 현지법인 비율 비교

단위: %

국가	제조업수출 쏘산업수출	제조업수입 쏘산업수입	제조업무역수지 쏘산업무역수지
미국	9.7	7.8	9.9
네덜란드	0.0	100.0	-0.1
러시아	31.4	0.0	31.5
베트남	99.5	99.7	100.0
브라질	99.5	0.0	102.3
싱가포르	67.4	84.7	-536.8
영국	0.0	0.3	0.0
인도	96.7	17.5	103.4
인도네시아	97.5	58.4	35.7
일본	1.9	0.1	-5.6
중국	87.8	91.8	103.9
캐나다	0.0	0.0	0.0
홍콩	14.0	12.1	15.6
소계	36.8	65.7	-4.7
전 국가	31.3	64.6	6.3

2. 산업별 및 국가별 추이

(1) 주요 산업별 추이

- 산업 대분류로는 제조업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액이 400억 달러 내외에서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수입액은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음.

- 도소매업이 수출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금액과 비중 면에서 모두 높아지고 있으며, 해외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투자된 광업 현지법인인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적자요인이 되고 있음.

<표Ⅳ-2-1> 산업 대분류별 對현지법인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산 업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	제조업	39,068	38,681	42,316	43,989	40,791
	도매및소매업	50,703	57,661	72,381	77,181	78,092
	광업	13	24	261	1	324
	부동산업및임대업	49	82	111	144	5,556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66	124	27	255	366
	건설업	0	0	7	8	44
	운수업	1,041	2,112	5,457	5,360	5,128
	기타	45	33	71	83	48
	총산업	90,985	98,717	120,630	127,020	130,350
수입	제조업	7,727	26,322	27,802	35,691	36,135
	도매및소매업	16,501	11,952	15,567	20,859	16,396
	광업	479	397	307	910	1,212
	부동산업및임대업	148	213	263	326	23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1	13	21	29	834
	건설업	0	4	12	308	144
	운수업	232	408	436	954	907
	기타	40	31	92	84	101
	총산업	25,137	39,340	44,500	59,161	55,966
수지	제조업	31,341	12,359	14,513	8,297	4,656
	도매및소매업	34,202	45,709	56,814	56,322	61,696
	광업	-466	-373	-46	-909	-888
	부동산업및임대업	-99	-131	-152	-183	5,319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54	111	5	226	-468
	건설업	0	-4	-5	-300	-100
	운수업	810	1,704	5,022	4,406	4,221
	기타	5	1	-21	-1	-53
	총산업	65,847	59,377	76,130	67,859	74,384

○ 제조업의 수출입 비중의 경우 수출비중이 2005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 수입비중은 수출 비중보다 높지만 추세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음.

- 제조업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전체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의 42.9%에서 2009년에는 31.3%로 하락하였으며, 수입 비중은 60%를 웃도는 수준임.

- 제조업 현지법인 수입비중이 2005년 30.7%로 낮았던 것(서비스업 현지법인 수입비중이 67.3%로 높았던 것)은 서비스업 중 수입이 많았던 기업이 2005년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³¹⁾

○ 반면에 서비스업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 비중은 오히려 같은 기간 중 57.0%에서 68.5%로 증가함.

- 서비스업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 비중이 증가한 것은 소매업과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그리고 임대업의 비중 증가가 원인임.

- 90년대 이후 제조업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에서는 여전히 도소매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수입에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나타난(outlier) 2005년을 제외하면 구조적인 추세가 있다고 하기 힘들.

○ 제조업종 내에서는 주력 업종인 전기전자 제조업과 자동차 제조업의 수출 비중이 소폭 하락한 반면 전기전자 제조업은 수입 비중이 큰 폭으로 높아졌음.

31) 실적을 보고하는 현지법인의 수가 여전히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 실적을 가진 기업의 포함여부가 전체 통계치를 왜곡하는 경우임.

- 이 업종들의 수출비중 하락은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의 수출이 확대되었기 때문임.
 - 전자 부품 및 통신장비업의 수입 비중이 높아진 것은 역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정유업의 경우 실적 보고 기업의 수가 작은 반면 수출입의 규모가 크고 변동이 심해 추세 분석대상으로서 적합지 않음.(이런 이유로 미국은 실적 계상시 제외하는 경우도 있음)
- 서비스업종 내에서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창고 및 운송관련업 그리고 임대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였음.
- 최근 서비스업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음.

<표Ⅳ-2-2> 중산업 분류별 수출 구조의 추이

단위: %

업종	수출 비중					수입비중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	2006	2007	2008	2009
全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3 섬유	0.3	0.3	0.3	0.3	0.2	1.1	0.8	0.9	0.9	0.7
14 의복	0.4	0.5	0.5	0.4	0.4	2.6	2.7	2.7	1.9	1.7
19 정유	13.1	6.1	6.3	8.0	3.9	0.0	37.5	29.1	20.1	11.5
26 전기전자	13.9	15.0	13.1	11.7	12.0	14.6	14.5	16.1	21.6	27.2
30 자동차	8.2	9.1	6.3	5.1	6.2	1.1	1.0	1.1	1.1	0.8
제조업	42.9	39.2	35.1	34.6	31.3	30.7	66.9	62.5	60.3	64.6
45 자동차판매	16.0	12.9	15.1	13.1	10.5	0.3	0.2	0.2	0.2	0.2
46 도매	1.1	1.3	0.9	2.1	2.9	1.1	0.6	0.7	3.8	4.0
47 소매	38.7	44.2	44.0	45.6	46.5	64.3	29.6	34.1	31.2	25.1
69 임대	0.1	0.1	0.1	0.1	4.3	0.6	0.5	0.6	0.6	0.4
서비스	57.0	60.8	64.7	65.4	68.5	67.3	32.0	36.8	38.1	33.2

주: 모든 중산업의 통계는 <부록표 5~7> 참조

○ 산업별 무역수지 추이를 보면 제조업의 무역 흑자가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의 흑자는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 제조업의 무역 흑자는 2005년 313억 4천만 달러에서 2009년 46억 6천만 달러로 축소된 반면 서비스업의 무역흑자는 같은 기간 중 349억 8천만 달러에서 706억 2천만 달러로 확대됨.

○ 제조업 내에서는 전기전자 제조업의 무역수지 흑자가 축소되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소매업의 흑자가 확대됨.

- 전기전자 제조업 현지법인과의 무역 흑자는 2005년 90억 1천만 달러에서 2009년에는 5억 8천만 달러로 축소되었음.
- 소매업의 무역 흑자는 같은 기간 중 190억 6천만 달러에서 465억 8천만 달러로 확대되었음.

<표Ⅳ-2-3> 현지법인의 산업 중분류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산업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산업		65,847	59,377	76,130	67,859	74,384
13	섬유	-4	-68	-39	-126	-126
14	의복	-244	-580	-604	-580	-472
19	정유	11,963	-8,769	-5,324	-1,670	-1,327
26	전기전자	9,005	9,091	8,657	2,040	479
30	자동차	7,178	8,595	7,107	5,768	7,633
제조업		31,341	12,359	14,513	8,297	4,656
45	자동차판매	14,444	12,598	18,098	16,524	13,547
46	도매	694	1,095	761	352	1,566
47	소매	19,064	32,015	37,955	39,447	46,583
69	임대	-99	-131	-152	-183	5,319
서비스		34,978	47,399	61,673	60,479	70,624

주: 모든 중산업의 통계는 <부록표 8>참조

○ 위 2개 업종을 산업 세분류별로 살펴본 결과, 양 업종은 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전기전자 제조업(업종분류 26) 중 2009년 33.8%로 가장 수출 비중이 큰 전자부품업(업종분류 262) 현지법인과의 무역 흑자는 2005년 42억 9천만 달러에서 2009년에는 12억 3천만 달러로 축소되었음.

- 반면에 소매업(업종 분류 47) 중 96.0%로 가장 수출비중이 큰 무점포소매업의 무역 흑자는 같은 기간 중 186억 2천만 달러에서 442억 2천만 달러로 확대되었음.

○ 무점포 소매업의 모기업은 전자회사가 많고 또한 현지법인도 이들 모회사의 수출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함.

- 고부가가치 품목은 별도 판매법인을 통하여 수출하고 역수입은 기존 생산 법인을 통하여 수입함으로써 위와 같은 업종별 비중 및 무역수지 추이가 발생함.

- 결국, 한국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 네트워크 하에서 이와 같은 역할 분담이 분석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 하의 조정은 생산 및 분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예상하자면, 해외직접투자 및 현지법인의 생산 조정으로 고부가가치 품목의 생산 이전 및 역수입, 한국 생산의 첨단 품목 생산과 같은 호순환을 생각할 수 있음.

<표IV-2-4> 현지법인의 주요 세분류 업종별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업종		2005	2006	2007	2008	2009
26	전기전자 제조업	12,685	14,811	15,807	14,844	15,695
261	반도체 제조업	1,309	2,163	3,543	1,966	2,070
262	전자부품 제조업	5,045	3,612	3,653	3,814	5,312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852	1,510	1,227	1,422	1,397
264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3,951	5,255	5,699	3,974	4,505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1,528	2,270	1,683	3,668	2,410
47	소매업	35,228	43,643	53,128	57,933	60,640
471	종합 소매업	0	0	0	0	0
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2	2	3	15	10
47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447	297	662	3,519	2,368
474	섬유, 의복, 신발 소매업	0	2	1	1	12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0	0	0	0	2
479	무점포 소매업	34,779	43,343	52,461	54,390	58,242

<표 IV-2-5> 현지법인의 주요 세분류 업종별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업종		2005	2006	2007	2008	2009
26	전기전자 제조업	3,681	5,720	7,150	12,804	15,216
261	반도체 제조업	917	1,365	2,624	2,710	2,279
262	전자부품 제조업	756	1,562	2,392	2,714	4,080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352	413	554	655	2,445
264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921	1,267	380	2,696	5,079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734	1,113	1,201	4,028	1,332
47	소매업	16,164	11,628	15,173	18,487	14,056
471	종합 소매업	0	0	0	0	0
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0	0	0	0	27
47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0	0	1	3	18
474	섬유, 의복, 신발 소매업	0	0	0	2	7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0	0	0	0	0
479	무점포 소매업	16,163	11,628	15,172	18,481	14,004

<표IV-2-6> 현지법인의 주요 세분류 업종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업종		2005	2006	2007	2008	2009
26	전기전자 제조업	9,005	9,091	8,657	2,040	479
261	반도체 제조업	391	799	919	-744	-208
262	전자부품 제조업	4,288	2,050	1,262	1,099	1,232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500	1,097	673	767	-1,048
264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3,031	3,988	5,320	1,278	-575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795	1,157	483	-359	1,078
47	소매업	19,064	32,015	37,955	39,447	46,583
471	종합 소매업	0	0	0	0	0
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2	2	3	15	-17
47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447	297	661	3,515	2,350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0	2	1	-1	5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0	0	0	0	2
479	무점포 소매업	18,616	31,715	37,289	35,909	44,238

(2) 주요 국가별 추이 분석

1) 미국

- 미국의 경우 對현지법인 수출의 비중과 소매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무역수지 흑자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대미국 현지법인 수출이 전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의 45.2%에서 2009년에는 89.0%까지 증가하여 현지법인을 통한 수출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반면, 제조업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은 32억 4천만 달러로 전체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의 1/10에 못 미침.

-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수입은 2009년 중 36억 달러로 대미수입의 12.4%에 불과한데 이 비중은 2005년 11.0%에서 2006년 4.2%로 크게 하락하였다가 증가한 수치임.
-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거래에서 무역수지는 2005년 153억 1천만 달러에서 2009년에는 299억 1천만 달러로 확대됨.

<표IV-2-7> 대미국 현지법인 수출입 추이

구 분		기업수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백만달러	비중(%)	백만달러	비중(%)	백만달러
전 산 업	2009	486	33,505	89.0	3,597	12.4	29,908
	2008	457	30,541	65.9	3,403	8.9	27,138
	2007	363	23,099	50.5	1,783	4.8	21,316
	2006	273	14,985	34.7	1,427	4.2	13,558
	2005	207	18,671	45.2	3,356	11.0	15,314
제 조 업	2009	156	3,241	8.6	281	1.0	2,960
	2008	144	3,190	6.9	122	0.3	3,067
	2007	129	4,207	9.2	743	2.0	3,464
	2006	91	2,965	6.9	739	2.2	2,227
	2005	67	2,260	5.5	702	2.3	1,558

주: 비중은 한국의 대미국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산업별 구조에서는 도소매업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 對현지법인 수출 중 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32.6%에서 데다 2009년에는 56.4%까지 높아졌음.
- 對현지법인 수입액이 많지 않아서 대소매업 현지법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중 변동이 심함.

○ 이에 대한 반영으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2.1%에서 2006년에는 19.8%까지 높아지기도 하였지만 2009년에는 9.7%로 낮아짐.

- 對전기전자 제조업 현지법인 수출이 대미 현지법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5.9%에서 2007년 12.1%로 높아지기도 하였으나 2009년에는 5.3%로 낮아짐.
- 의외로 對자동차 현지법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데 2006년 4.1%에서 2009년에는 0.7%로 더욱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 이는 대미 자동차 및 동 부품의 수출이 소매업종으로 분류된 현지법인을 통한 수출이기 때문으로 분석됨.

<표Ⅳ-2-8> 주요 산업별 대미국 현지법인 수출입 구조 추이

단위: %

산업(코드)	수출					수입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	2006	2007	2008	2009
全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6 전기전자	5.9	11.0	12.1	5.6	5.3	20.2	50.5	39.8	2.3	2.5
30 자동차	2.4	4.1	1.9	1.7	0.7	0.0	0.0	0.0	0.0	0.0
제조업	12.1	19.8	18.2	10.4	9.7	20.9	51.8	41.7	3.6	7.8
45 부품중개업	49.6	38.8	38.3	24.2	24.5	2.1	6.2	5.0	3.1	2.9
46 도매업	1.5	2.6	0.8	2.0	1.5	0.0	0.1	0.2	9.1	0.7
47 소매업	32.6	38.6	34.5	56.6	56.4	70.7	27.3	41.4	78.7	76.8
서비스	87.9	80.2	80.8	89.6	89.4	79.1	48.2	58.3	96.4	92.2

2) 중국

- 중국 현지법인과의 수출입 추이에서는 對현지법인 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또한 對중국 투자가 제조업 위주라는 점에서 90%내외의 수출입이 제조업 현지법인과의 거래임.
- 對중국 현지법인 수출이 전체 對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의 22.7%에서 2009년에는 21.8%로 소폭 감소한 반면 對중국 현지법인 수입은 같은 기간 중 12.8%에서 46.6%로 높아졌음.
 - 對현지법인 수출액은 법인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의 140억 6천만 달러에서 2009년에는 189억 4천만 달러로 34.7% 증가한데 반해,
 - 對현지법인 수입은 같은 기간 중 49억 3천만 달러에서 252억 6천만 달러로 412.2%나 증가함.
 - 이는 역수입이 빠르게 확대되는 것으로 중국 생산품목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입이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중국의 비교우위가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중국 현지법인이 한국 수출 기지로서의 역할에서 수입 기지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이러한 비교우위 구도는 이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다국적 기업 내에서 이루어져 일반적인 구조조정보다는 기업 도산 등에 의한 고용 조정 비용이 작을 것으로 판단됨.

- 역수입의 증가는 기업 부도나 고용 조정보다는 모기업과 현지법인과의 역할 변화, 즉 모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해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거래에서 무역수지는 2005년 90억 9천만 달러 흑자에서 2008년 적자로 반전되어 2009년에는 65억 6천만 달러로 적자 폭이 확대됨.

- 對중국 현지법인과의 거래가 주로 제조업과의 거래이어서 제조업 무역수지는 쏠산업과 크게 차이가 없음.

- 예로서, 2009년 중 제조업 현지법인과의 무역적자는 65억 6천만 달러로 쏠산업 현지법인과의 63억 1천만 달러와 비슷함.

<표IV-2-9> 對중국 현지법인 수출입 추이

구 분		기업수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백만달러	비 중(%)	백만달러	비 중(%)	백만달러
전 산 업	2009	1,360	18,943	21.8	25,259	46.6	-6,316
	2008	1,427	19,903	21.8	20,955	27.2	-1,052
	2007	1,340	18,780	22.9	11,031	17.5	7,749
	2006	1,011	17,004	24.5	8,639	17.8	8,365
	2005	696	14,058	22.7	4,932	12.8	9,126
제 조 업	2009	1,111	16,629	19.2	23,190	42.8	-6,562
	2008	1,180	18,208	19.9	19,538	25.4	-1,330
	2007	1,131	17,760	21.7	10,666	16.9	7,094
	2006	870	16,628	23.9	8,417	17.3	8,212
	2005	607	13,945	22.5	4,854	12.6	9,090

주: 비중 = 對중국현지법인 수출입/ 한국의 중국 수출입

○ 對중국 현지법인 수출 중 중산업 분류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전자 제조업(분류코드 26)이 對중국 현지법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의 61.3%에서 2009년에는 47.8%로 하락하였음.

- 반면에 동 업종이 對중국 현지법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51.0%에서 2009년 55.8%로 증가하였는데 이 기간 중 크게 증가한 對중국 현지법인 수입의 주요 부문이라 할 수 있음.
 - 수출에서 비중이 저하된 것은 투자의 산업별 다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수입 증가는 역수입에 의한 것으로 중국과 이 산업 내 분업 구조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함.
 - 이로 인해 동 업종 현지법인과 무역수지는 2005년 60억 1천만 달러 흑자에서 2008년 27억 1천만 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어 2009년에는 50억 3천만 달러로 적자폭이 확대되었음.
 - 동 업종의 무역수지 흐름이 對중국 현지법인 전체 수지의 흐름을 결정하였다고 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자동차 제조업(분류코드 30)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은 2005년 12.9%에서 2008년에는 16.3%까지 높아졌다가 2009년에는 14.3%로 낮아졌음.
- 수입 비중은 2005년 5.3%(15억 5천만 달러)에서 2009년에는 1.7%(23억 달러)로 크게 낮아졌음.
 - 이에 따라 동업종 현지법인에 대한 무역수지는 2005년의 15억 5천만 달러 흑자에서 2008년 25억 9천만 달러로 확대되었다가 2009년에는 23억 달러로 폭이 축소됨.

<표Ⅳ-2-10> 주요 업종별 對중국 현지법인 수출 구조 추이

단위: %

산업 (코드)		2005	2006	2007	2008	2009
全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	식료품	0.0	0.0	0.0	0.0	0.0
13	섬유	1.4	0.8	1.4	1.5	0.8
14	의복	1.0	1.2	1.6	1.4	0.7
15	가죽,가방	1.5	0.4	1.5	1.2	1.0
16	목재,나무	0.0	0.0	0.0	0.0	0.0
17	펄프,종이	0.2	0.1	0.1	0.1	0.1
18	인쇄,기록매체	0.0	0.0	0.0	0.0	0.0
19	석유정제품	0.0	0.0	0.0	0.0	0.0
20	화학	1.0	2.1	2.8	2.9	2.8
21	의료,의약	-	0.0	0.1	0.1	0.1
22	고무, 플라스틱	0.6	0.8	2.0	0.5	0.4
23	비금속광물	0.0	0.1	0.1	0.0	0.1
24	1차금속	10.0	7.0	4.1	2.9	2.5
25	금속가공	4.2	8.7	8.0	7.1	4.5
26	전기전자	61.3	54.1	50.3	44.9	47.8
27	의료,정밀	0.2	2.3	2.0	3.7	1.7
28	전기장비	1.8	1.5	1.5	1.1	3.5
29	기타기계	2.8	3.8	4.2	4.8	5.0
30	자동차	12.9	14.0	14.2	16.3	14.3
31	기타운송	0.4	0.6	0.2	2.4	2.0
제조업		99.2	97.8	94.6	91.5	87.8
45	자동차,부품판매	0.0	0.9	3.6	3.3	3.8
46	도매,상품중개	0.3	0.5	0.9	4.3	7.0
47	소매	0.1	0.6	0.3	0.3	0.9
서비스		0.7	2.2	5.4	8.5	12.2

주: 모든 중산업의 수출 통계는 <부록표 9> 참조

<표Ⅳ-2-11> 주요 업종별 對중국 현지법인 수입 구조 추이

단위: %

산업 (코드)		2005	2006	2007	2008	2009
全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	식료품	0.3	0.5	0.3	0.2	0.1
13	섬유	2.8	2.2	1.8	1.5	0.9
14	의복	4.3	5.5	5.4	2.2	1.1
15	가죽,가방	3.9	1.1	4.6	1.6	1.2
16	목재,나무	0.2	0.2	0.1	0.1	0.0
17	펄프,종이	0.3	0.1	0.1	0.1	0.1
18	인쇄,기록매체	0.0	0.0	0.0	0.0	0.0
19	석유정제품	0.0	0.0	0.0	0.0	0.0
20	화학	1.4	1.6	2.2	1.2	1.3
21	의료,의약	-	0.0	0.0	0.0	0.0
22	고무, 플라스틱	2.4	1.4	1.9	1.4	1.0
23	비금속광물	1.9	1.0	0.8	0.6	0.6
24	1차금속	3.0	1.1	1.4	1.5	1.0
25	금속가공	13.2	13.3	6.2	11.1	16.0
26	전기전자	51.0	49.2	50.9	55.5	55.8
27	의료,정밀	0.8	5.2	6.2	3.5	2.9
28	전기장비	0.4	1.1	2.6	1.0	2.5
29	기타기계	4.7	6.5	5.7	3.6	2.1
30	자동차	5.3	3.8	4.3	3.1	1.7
31	기타운송	2.0	2.2	0.6	4.0	3.0
제조업		98.4	97.4	96.7	93.2	91.8
45	자동차,부품판매	0.0	0.0	0.0	0.0	0.0
46	도매,상품중개	0.0	0.3	1.1	5.1	6.4
47	소매	0.6	1.3	0.7	0.6	0.6
서비스		1.3	2.5	3.1	6.7	8.1

주: 모든 중산업의 수입 통계는 <부록표 9> 참조

<표Ⅳ-2-12> 주요 업종별 對중국 현지법인 무역수지의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산업 (코드)		2005	2006	2007	2008	2009
全산업		9,121	8,355	7,730	-1,052	-6,316
10	식료품	-16	-38	-26	-32	-26
13	섬유	56	-48	58	-29	-58
14	의복	-72	-267	-294	-170	-134
15	가죽,가방	15	-30	-221	-103	-125
16	목재,나무	-4	-13	-6	-14	-3
17	펄프,종이	11	12	12	7	-11
18	인쇄,기록매체	0	-2	-4	-8	-6
19	석유정제품	0	0	0	-6	-5
20	화학	70	209	282	317	205
21	의료,의약	-	8	9	8	23
22	고무,플라스틱	-37	16	164	-184	-171
23	비금속광물	-95	-78	-73	-125	-119
24	1차금속	1,262	1,088	620	251	234
25	금속가공	-71	324	810	-903	-3,186
26	전기전자	6,096	4,941	3,820	-2,709	-5,025
27	의료,정밀	-11	-49	-315	-4	-395
28	전기장비	234	166	-2	23	24
29	기타기계	168	78	153	200	417
30	자동차	1,550	2,051	2,188	2,594	2,298
31	기타운송	-48	-90	-17	-363	-385
제조업		9,085	8,201	7,075	-1,330	-6,562
45	자동차,부품판매	0	153	682	653	711
46	도매,상품중개	46	52	46	-209	-312
47	소매	-8	-14	-10	-74	24
서비스		37	159	664	280	250

- 중국 현지법인과의 거래 중요성을 분석하기 위해 세계 전체의 현지 법인과의 수출입에서 중국현지법인과의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여 본 결과 주력 업종에서는 수출 비중에 비해 수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기전자 제조업(분류코드 26)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의 68.0%에서 2009년에 57.7%로 소폭 하락한 반면 수입은 같은 기간 중 68.7%에서 92.6%로 대폭 증가하였음.
 - 중국 자동차 제조업(분류코드 30)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의 24.3%에서 2008년 50.3%까지 증가하였다가 2009년에는 33.6%로 하락하였고 수입 비중은 2009년에 95.0%에 달함.
 - 수출비중이 2009년에 하락한 것은 수출 자체가 감소한 탓도 있지만, 자동차 업계의 글로벌 생산이 다각화되어 상대적으로 對중국 수출의 비중이 낮아진 것이 더 큰 원인으로 분석됨.
 - 동 자동차 제조업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은 2008년 32억 5천만 달러에서 2009년 27억 2천만 달러로 그리고 對중국 현지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3%에서 14.3%로 감소하였음.
 - 對중국 현지법인 수입 비중이 높은 것은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인해 저부가가치 부품은 주로 중국에서 공급받기 때문으로 분석됨.
- 여타 산업으로는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분류코드 27), 전기장비 제조업(분류코드 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분류코드 29)의 수입 비중이 90% 이상이거나 증가하는 추세임.
- 반면에, 사양산업으로 분류되는 섬유제품 제조업(분류코드 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분류코드 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분류코드 15)은 비중이 낮아지거나 50% 내외에 머무름.
 - 이는 전통적인 노동집약적인 업종에서는 점차 생산이 인근 동남아 국가로 이전되고 의료 정밀 등 부가가치가 좀 더 높은 업종으로 현지법인의 생산이 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함.

- 이러한 추세는 중국 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비교우위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표Ⅳ-2-13> 현지법인 수출에서 중국현지법인의 비중 추이

단위: %

산업 (코드)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산업		15.5	17.2	15.6	15.7	14.5
10	식료품	12.4	6.1	8.9	5.8	3.1
13	섬유	70.6	56.3	70.0	68.4	65.9
14	의복	34.9	44.0	52.1	54.1	28.9
15	가죽,가방	55.5	31.9	60.9	55.6	41.8
16	목재,나무	23.5	16.2	9.5	5.9	78.6
17	펄프,종이	100.0	96.4	97.6	100.0	100.0
18	인쇄,기록매체	-	100.0	100.0	76.6	100.0
19	석유정제품	0.0	0.0	0.0	0.0	0.0
20	화학	33.1	64.1	64.8	61.7	54.9
21	의료,의약	-	29.9	38.1	49.5	71.1
22	고무, 플라스틱	18.5	22.9	44.2	17.1	6.5
23	비금속광물	2.4	34.8	19.3	5.1	45.9
24	1차금속	79.8	82.9	55.6	46.1	40.2
25	금속가공	28.7	51.0	35.2	38.7	27.4
26	전기전자	68.0	62.2	59.8	60.1	57.7
27	의료,정밀	69.7	93.5	87.3	90.6	83.1
28	전기장비	89.8	61.4	50.4	24.7	51.2
29	기타기계	57.2	60.3	80.1	63.8	76.0
30	자동차	24.3	26.5	35.0	50.3	33.6
31	기타운송	62.0	36.7	16.5	44.3	33.6
제조업		35.7	43.0	42.0	41.4	40.8
45	자동차,부품판매	0.0	1.2	3.7	3.9	5.2
46	도매,상품중개	4.9	5.8	15.6	32.9	34.7
47	소매	0.1	0.2	0.1	0.1	0.3
서비스		0.2	0.6	1.3	2.0	2.6

주: 對중국 현지법인 수출 / 전국가 현지법인 수출

<표Ⅳ-2-14> 현지법인 수입에서 중국현지법인의 비중 추이

단위: %

산업 (코드)		2005	2006	2007	2008	2009
全산업		19.7	22.0	24.9	35.4	45.1
10	식료품	97.5	85.3	48.0	36.6	16.0
13	섬유	49.5	59.2	49.4	58.1	59.1
14	의복	32.9	45.1	50.3	41.2	28.7
15	가죽,가방	60.4	49.9	66.6	49.2	36.6
16	목재,나무	56.4	56.7	33.1	52.8	40.5
17	펄프,종이	100.0	100.0	89.4	100.0	100.0
18	인쇄,기록매체	-	100.0	100.0	100.0	96.8
19	석유정제품	-	0.0	0.0	0.1	0.1
20	화학	45.2	57.2	70.1	60.5	65.9
21	의료,의약	-	0.0	8.7	66.5	71.1
22	고무, 플라스틱	98.3	96.2	98.7	97.2	22.3
23	비금속광물	99.8	99.8	90.6	99.9	90.6
24	1차금속	34.3	23.8	45.5	61.7	71.7
25	금속가공	55.2	83.2	42.6	73.4	71.6
26	전기전자	68.7	74.6	78.7	90.9	92.6
27	의료,정밀	99.3	99.4	99.5	99.9	99.5
28	전기장비	56.3	66.8	78.9	79.3	78.9
29	기타기계	97.4	98.1	96.7	97.4	94.7
30	자동차	98.4	87.0	97.1	96.1	95.0
31	기타운송	71.7	78.6	31.6	64.0	50.0
제조업		63.1	32.1	38.5	54.7	64.2
45	자동차,부품판매	0.0	0.3	0.3	0.3	0.2
46	도매,상품중개	0.0	10.8	39.8	47.2	73.0
47	소매	0.2	0.9	0.5	0.7	1.0
서비스		0.4	1.7	2.1	6.2	11.1

주: 對중국 현지법인 수입 / 全국가 현지법인 수입

3) 베트남

- 베트남 해외직접투자가 2005년 이후 본격화되어 분석 기간 중 포함되는 현지법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분석을 해석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 현지법인과의 수출입에서 수출입의 99% 이상이 제조업 현지법인과의 거래이고, 무역수지는 2008년 이후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점이 특징임.
 - 이는 베트남이 주로 제조업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임.
 - 2009년 말 누적 투자액 기준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54.7%, 광업의 비중이 19.2%이나 본격적인 투자가 2005년 이후 시작되어 경영활동이 본격화되기 이전이라는 점도 있음.
- 對베트남 현지법인 수출이 전체 對베트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의 10.8%에서 2009년에는 20.9%로 증가한 데 비해 對현지법인 수입 비중은 같은 기간 중 36.6%에서 86.0%로 급증하였음.
 - 對현지법인 수출액은 법인수의 증가와 더불어 2005년의 3억 6천만 달러에서 2009년에는 15억 달러로, 對현지법인 수입은 같은 기간 중 2억 5천만 달러에서 20억 4천만 달러로 급증함.
 - 특히, 對베트남 수입의 대부분을 한국 현지법인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 수입을 단순히 외국제품으로 보기보다는 한국 기업 제품이 상당부분, 그리고 한국 문화가 흡수된 한국제품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국제 분업 구조상에서 베트남이 한국의 저부가가치 품목의 생산기지화가 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음.

- 베트남 현지법인과의 무역수지는 2005년 1억 1천만 달러 흑자에서 2008년 1억 1천만 달러의 적자로 전환하고 2009년에는 적자폭이 5억 4천만 달러로 확대됨.

<표IV-2-15> 對베트남 현지법인 수출입 추이

구 분		기업 수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백만달러	비중(%)	백만달러	비중(%)	백만달러
全산업	2009	286	1,496	20.9	2,038	86.0	-542
	2008	273	738	9.5	850	41.7	-112
	2007	194	721	12.5	625	44.9	96
	2006	115	380	9.7	328	35.4	52
	2005	65	369	10.8	254	36.6	116
제조업	2009	215	1,489	20.8	2,031	85.7	-542
	2008	210	734	9.4	845	41.5	-111
	2007	162	719	12.5	625	44.9	94
	2006	107	380	9.7	328	35.4	52
	2005	59	369	10.8	254	36.6	116

주: 비중 = 對베트남현지법인 수출입 / 한국의 베트남 수출입

- 베트남 현지법인과의 수출입 구조 추이를 보면, 제조업의 비중이 2005년 이후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2009년 對제조업 현지법인 수출 비중이 99.5%, 수입비중이 99.7%에 달함.
- 중산업 분류로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분류코드 15)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가장 크지만, 그 비중은 2005년 37.7%(1억 4천만 달러)에서 2009년에는 12.8%(1억 9천만 달러)로 낮아졌음.
 - 이 산업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도 같은 기간 중 36.2%(9천만 달러)에서 22.8%(4억 6천만 달러)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장 큰 수입업종임.
 - 이에 따라 동 산업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무역수지는 2005년 5천만 달러 흑자에서 2009년 2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되었음.

-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분류코드 14) 현지법인의 수출입도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분류코드 15)과 비슷한 비중 추세를 보임.
 - 동 산업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05년 12.2%(5천만 달러)에서 2009년 8.1%(1억 2천만 달러)로 낮아졌음.
 - 동 산업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도 같은 기간 중 27.0%(7천만 달러)에서 13.3%(2억 7천만 달러)로 낮아졌음.
 - 동 산업 현지법인과 거래에서 무역적자는 2005년 2천만 달러 적자에서 2009년에는 1억 5천만 달러로 그 폭이 확대되었음.
- 2009년 중 두 번째로 수출비중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 제조업(분류코드 30)으로 2005년 8.1%(3천만 달러)에서 2009년 11.2%(1억 7천만 달러)로 높아졌음.
 - 동 산업의 수입 비중은 2009년에 0.1%에 불과하여 1억 7천만 달러의 흑자를 시현함.
- 베트남에서도 전통적인 사양산업으로 분류되는 의류 및 가죽 등의 업종 현지법인과 수입 비중이 축소되는 현상은 중국과 비슷함.
 - 베트남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이들 업종에서의 생산에서 점차 고부가가치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여타국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분석됨.

<표Ⅳ-2-16> 對베트남 현지법인 수출입 구조 추이

단위: %

산업 (코드)	수출					수입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	2006	2007	2008	2009
全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3	1.2	5.7	4.8	6.4	2.1	5.8	10.2	9.0	12.6	1.8
14	12.2	14.1	4.6	10.2	8.1	27.0	51.3	26.2	24.2	13.3
15	37.7	25.9	17.9	18.1	12.8	36.2	12.9	29.5	32.1	22.8
20	1.2	3.3	2.0	6.2	4.4	0.0	0.0	0.0	2.9	1.5
24	5.7	9.0	17.7	6.1	1.9	3.6	0.2	7.8	2.0	0.5
25	5.6	9.5	13.1	9.4	2.5	0.1	0.7	9.2	9.4	3.0
26	20.0	13.0	2.5	7.4	7.5	9.7	5.4	2.1	0.9	0.2
30	8.1	2.4	11.7	19.7	11.2	0.0	0.0	0.1	0.2	0.1
31	7.4	10.4	6.1	11.4	7.8	15.2	16.0	5.8	11.0	10.2
제조업	100.0	100.0	99.8	99.5	99.5	100.0	100.0	100.0	99.5	99.7
서비스	0.0	0.0	0.2	0.5	0.5	0.0	0.0	0.0	0.5	0.3

<표Ⅳ-2-17> 주요 업종별 對중국 현지법인 무역수지의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산업(코드)	2005	2006	2007	2008	2009
全산업	9,121	8,355	7,730	-1,052	-6,316
10	-16	-38	-26	-32	-26
13	56	-48	58	-29	-58
14	-72	-267	-294	-170	-134
15	15	-30	-221	-103	-125
16	-4	-13	-6	-14	-3
17	11	12	12	7	-11
18	0	-2	-4	-8	-6
19	0	0	0	-6	-5
20	70	209	282	317	205
21	-	8	9	8	23
22	-37	16	164	-184	-171
23	-95	-78	-73	-125	-119
24	1,262	1,088	620	251	234
25	-71	324	810	-903	-3,186

3. 기업 규모별 및 설립 형태별 분석³²⁾

(1) 기업규모별

- 기업 규모별로 추이를 보면, 대기업 현지법인의 비중이 매우 높은 가운데서도 중소기업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2005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대기업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의 97.8%에서 2009년 94.4%로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현지법인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함.
 - 수입의 경우에도 대기업 현지법인의 비중이 수출과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중 93.5%에서 감소하지만 2009년에 수출비중보다는 조금 낮지만 대부분인 88.5%를 차지함.
- 중소기업 현지법인의 수출 비중은 낮은 가운데서 2005년 2.2%에서 2009년에는 5.5%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수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현지법인의 수입 비중이 같은 기간 중 6.5%에서 11.1%로 높아져 수출 비중의 두 배에 달함.
 - 중소기업 현지법인의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역수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됨.
- 무역수지는 중소기업 현지법인과 거래에서 2006년 10억 8천만 달러의 흑자에서 2007년 5천만 달러의 적자로 전환되어 2008년 7억 달러로 적자폭이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2009년에는 9억 5천만 달러의 흑자로 재전환되었음.

32) 전체 현지법인과 수출입 추이를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이 절에서 구조는 절대액이 아닌 비중만으로 설명하고자 함.

- 무역수지의 경우에는 수출입과 달리 뚜렷한 추세를 찾을 수는 없었음.

<표IV-3-1> 기업규모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2009	130,350 (100.0)	123,008 (94.4)	7,163 (5.5)	179 (0.1)	55,966 (100.0)	49,540 (88.5)	6,211 (11.1)	216 (0.4)
2008	127,020 (100.0)	121,763 (95.9)	5,122 (4.0)	135 (0.1)	59,161 (100.0)	53,225 (90.0)	5,886 (9.9)	51 (0.1)
2007	120,630 (100.0)	115,760 (96.0)	4,813 (4.0)	58 (0.0)	44,500 (100.0)	39,580 (88.9)	4,866 (10.9)	54 (0.1)
2006	98,717 (100.0)	95,970 (97.2)	2,715 (2.8)	32 (0.0)	25,137 (100.0)	23,497 (93.5)	1,628 (6.5)	13 (0.1)
2005	90,985 (100.0)	88,954 (97.8)	2,030 (2.2)	1 (0.0)	25,137 (100.0)	23,497 (93.5)	1,628 (6.5)	13 (0.1)

주: ()안은 비중임.

<표IV-3-2> 기업규모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기업 규모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65,847	73,580	76,130	67,859	74,384
대기업	65,457	72,473	76,181	68,539	73,468
중소기업	402	1,087	-54	-764	952
기타	-12	19	3	84	-36

- 앞 장의 기업 규모별 매출입 구조에서는 추세를 찾기는 힘들었으나 한국과의 수출입 구조에서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원인은 기업 규모별에 따른 경영 능력 차이로 해석할 수 있음.

- 즉, 대기업 현지법인의 경우 모기업의 경영능력이나 글로벌 네트워크로 인하여 내수시장이나 제3국 시장 진출이 활발한 반면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양자 모두 상대적으로 약세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영능력 차이로는 중소기업 현지법인이 대기업 현지법인보다 모기업과 더 밀착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2) 설립 형태별

- 설립 형태별로 보면 지분 인수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 비중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현지법인 모두 통계가 가능한 2006년 이후 감소하다가 2009년 소폭 증가하였음.

- 쏜산업 기준으로 지분 인수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전체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21.3%(210억 6천만 달러)에서 2009년 13.5%(176억 4천만 달러)로 낮아졌음.

- 제조업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은 같은 기간 중 18.3%(71억 달러)에서 12.2%(50억 달러)로 낮아졌음.

- 반면, 지분 인수 방식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쏜산업 기준으로 2006년 1.1%(4천만 달러)에서 2009년 7.4%(41억 4천만 달러)로 크게 높아졌음.

- 제조업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도 같은 기간 중 1.1%(3천만 달러)에서 8.6%(31억 1천만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음.

- 비중보다는 수출입 절대액의 추이로 보면 수입 증가세가 크게 주목할만한 사항임.

- 지분인수 법인에 대한 수출은 2006년 210억 6천만 달러에서 2009년에는 176억 4천만 달러로 16.2% 감소한 반면,

- 수입은 같은 기간 중 4천만 달러에서 41억 4천만 달러로 거의 10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제조업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도 같은 기간 중 71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29.6% 감소한 반면 수입은 3천만 달러에서 31억 1천만 달러로 1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표IV-3-3> 지분 인수 현지법인의 수출입 비중 추이

단위:백만 달러, %

산업	수출				수입			
	2006	2007	2008	2009	2006	2007	2008	2009
소산업	21,059 (21.3)	19,562 (16.2)	14,747 (11.6)	17,642 (13.5)	423 (1.1)	608 (1.4)	3,072 (5.2)	4,143 (7.4)
제조업	7,098 (18.3)	4,890 (11.6)	4,533 (10.3)	4,996 (12.2)	279 (1.1)	575 (2.1)	2,042 (5.7)	3,114 (8.6)
서비스	13,961 (23.3)	14,672 (18.8)	10,212 (12.3)	12,339 (13.8)	133 (1.1)	33 (0.2)	1,027 (4.6)	864 (4.6)

주: 괄호 안은 전체 현지법인과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이러한 수출입 추세의 결과, 지분인수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는 무역수지가 다소 악화되는 추세를 보임.

- 소산업 기준으로는 2006년 206억 4천만 달러에서 2009년 135억 달러로 흑자 폭이 축소되었음.
- 지분 인수 제조업 현지법인과의 무역흑자도 전체 제조업 현지법인과 마찬가지로 흑자 폭이 축소되는 추세를 보임.

<표IV-3-4> 지분 인수 현지법인과의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소산업	20,637	18,954	11,675	13,500
제조업	6,819	4,315	2,492	1,883
서비스	13,829	14,639	9,185	11,475

- 지분 인수 현지법인과의 수출입 거래는 투자잔액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운데서도 수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됨.
- 상기 분석에 활용된 해외법인의 투자잔액이 전체 해외법인 투자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16.9%(61억 2천만 달러)에서 2009년 15.5%(113억 2천만 달러)로 낮아졌으나, 수출입 비중보다는 높음.
- 이는 지분인수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영업 개시부터 모기업과의 수출입 거래에 크게 의존하는 그린필드형과는 거래 구성비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됨.

4. 연속 제출 기업 분석: 최근 5년간

(1) 개요

- 5년간 연속으로 자료를 제출한 현지법인의 매출 및 수출입 활동을 분석하는 것으로 동 기간 중 발생한 해외직접투자 증감 부분을 제외한 현지법인의 영업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 현지법인과 수출입거래의 변화는 해외직접투자 확대에 따른 현지법인 수의 증가 및 영업규모의 증가와 해외직접투자 확대와 무관한 현지법인의 영업활동 증가의 두 부분으로 구분 가능
- 전체 현지법인의 영업활동과 이 장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신규 투자에 의한 수출입 활동 증가를 추측 가능함.
 - 다만, 분석에 앞서 5년간 연속으로 보고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경영실적이 우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2) 수출입 성장성

- 5년 연속으로 실적을 보고한 현지법인의 수출입을 전체 DB의 현지법인 그리고 한국 총수출입과 비교 분석을 시행한 결과, 제조업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 증가세는 전체 한국 수출에 못 미침.
- 2005-2009년 기간 중 5년 연속 보고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8.6%, 전체 DB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43.3%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 한국 전체 수출은 양자의 중간 수준인 27.8% 증가하였음.
 - 특히, 한국 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3.9% 감소하였던 2009년에 전체 DB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2.6% 증가하고, 5년 연속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은 8.2% 감소하여 對현지법인 수출이 전체 수출

안정세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즉, 對현지법인 수출의 최저라고 할 수 있는 5년 연속 보고 현지 법인에 대한 수출도 수출 감소기에 완충 역할을 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對현지법인 수출이 수출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가능함.

○ 다만, 제조업 현지법인만을 대상으로 추계할 경우에는 한국 수출 전체보다 부진하여 서비스업, 특히 도소매업의 수출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2005~2009년 기간 중 전체 DB 제조업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은 총수출 증가율인 27.8%를 크게 밑도는 4.4% 증가에 그쳤으며, 5년 연속 보고 제조업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은 같은 기간 중 오히려 18.3% 하락하였음.

<표Ⅳ-4-1> 5년 연속 보고 현지법인의 수출 추이 및 비교

연도	5년 연속 보고 현지법인				전체 DB		한국수출
	全산업		제조업		全산업	제조업	
	백만달러	증가율	백만달러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2009	77,960	-8.2	24,160	-28.4	2.6	-7.3	-13.9
2008	84,885	-6.3	33,727	5.2	5.3	4.0	13.6
2007	90,627	25.5	32,065	23.5	22.2	9.4	14.1
2006	72,237	0.6	25,964	-12.2	8.5	-1.0	14.4
2005	71,781	-	29,575	-	-	-	-
05~09	-	8.6	-	-18.3	43.3	4.4	27.8

주: 1)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2) 05~09는 2005년 대비 2009년의 증가율임.

○ 현지법인과 수입 추이를 분석한 결과, 對제조업 현지법인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05~2009년 기간 중 5년 연속 보고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이

92.4%, 전체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이 122.6%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중 한국 전체 수입은 이보다 낮은 23.7% 증가에 그침.

- 한국 전체 수입이 전년 대비 25.8% 감소하였던 2009년에 전체 DB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이 5.4% 감소하고, 5년 연속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은 16.7% 감소하여 對현지법인 수입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對현지법인 수입의 이러한 추세는 제조업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2005~2009년 기간 중 5년 연속 보고 제조업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이 418.4%, 전체 DB 제조업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이 367.6%나 증가하였음.

<표IV-4-2> 5년 연속 보고 현지법인의 수입 추이 및 비교

연도	5년 연속 보고 현지법인				전체 DB		한국 수입
	조선업		제조업		조선업	제조업	
	백만달러	증가율	백만달러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2009	36,245	-16.7	24,118	-11.8	-5.4	1.2	-25.8
2008	43,493	21.6	27,348	24.1	32.9	28.4	22.0
2007	35,778	10.6	22,038	3.4	13.1	5.6	15.3
2006	32,342	71.6	21,321	358.3	56.5	240.6	18.4
2005	18,843	-	4,652	-	-	-	-
05~09	-	92.4	-	418.4	122.6	367.6	23.7

주: 1)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2) 05~09는 2005년 대비 2009년의 증가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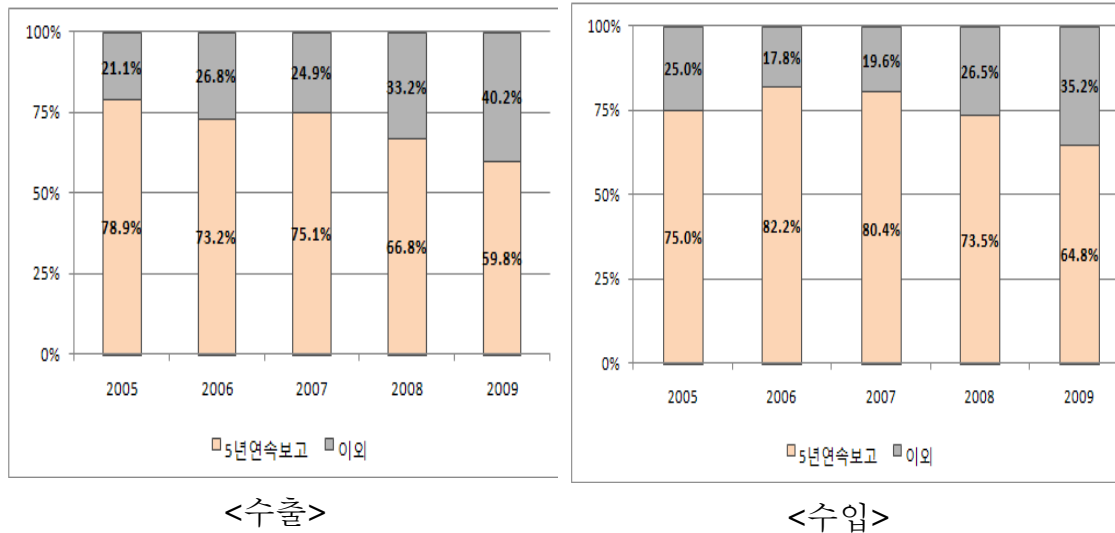
○ 이와 같은 최근 對현지법인 수출입 분석을 요약하자면, 수출에서는 도소매업, 수입에서는 제조업이 비중 확대에 크게 기여함.

- 5년 연속 보고 현지법인과 비교에서 신규 투자가 수출입의 확대에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수출입 축소기에도 해외 법인과의 수출입이 상대적으로 확대 추세를 보이면서 수출입 안정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됨.

<그림Ⅳ4-4-1> 5년 연속보고 현지법인의 수출입 비중 추이

단위: %



○ 모기업의 규모별 5년 연속 보고 현지법인 분석에서는 중소기업이 수출입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세계화를 통하여 기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005~2009년 기간 중 5년 연속 보고 중소기업 현지법인과 수출입은 각각 89.5%와 213.7% 증가한 반면 대기업 현지법인과 수출입은 이보다 매우 낮은 각각 6.9%와 89.0% 증가하였음.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도 對중소기업 현지법인과 수출입은 각각 67.5%와 34.2% 증가하여 대기업 현지법인과 수출입이 감소한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음.

○ 다만, 기업규모별 통계의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대기업은 해외법인의 수의 증가, 즉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하여도

세계화를 추진하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한된 수의 해외법인을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기 설립된 현지법인의 확대에 상대적으로 더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요인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중소기업의 외형 성장에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다른 관점에서는 한곳의 해외현지법인의 경영 악화 혹은 실패는 중소기업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함.

<표Ⅳ-4-3> 5년 연속 보고 현지법인의 모기업 규모별 수출입 추이

연도	수출				수입			
	백만 달러		증가율(%)		백만 달러		증가율(%)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2009	75,231	2,627	-9.7	67.5	33,746	2,489	-18.9	34.2
2008	83,311	1,568	-6.1	-15.3	41,630	1,855	23.1	-4.2
2007	88,698	1,852	25.4	24.5	33,829	1,936	10.0	21.3
2006	70,725	1,488	0.5	7.3	30,740	1,596	70.3	101.1
2005	70,395	1,386	-	-	18,049	793	-	-
05-09	-	-	6.9	89.5	-	-	87.0	213.7

주: 1)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2) 05-09는 2005년 대비 2009년의 증가율임.

(3) 무역수지

- 전체 DB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와 같이 쏠산업의 무역수지 흑자는 400억과 500억 달러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이에 비해, 제조업의 무역수지 흑자는 계속 축소되어 2009년에는 4천 2백만 달러의 흑자에 그침.

- 이는 對중국 현지법인 산업별 무역수지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전기전자 제조업(분류코드 26)의 무역수지가 2009년 적자로 전환된 데 기인함.

○ 국가별로는 5년 연속 실적을 보고한 중국현지법인과 무역수지가 전체 DB 현지법인 통계와 마찬가지로 급격히 악화되는 추세를 보여 對중국 현지법인과 무역 수지 추이가 이들 기업에 의해 주도 되는 것으로 평가함.

- 5년 연속 보고 중국 현지법인과 무역수지가 2009년 40억 1천만 달러의 적자로 전체 DB 법인과 적자 63억 2천만 달러보다 20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남.
- 베트남의 경우도 전체 D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역수지 악화 추세를 나타냄.

<표IV-4-4> 주요 중분류 산업별 무역수지

단위: 개사, 백만 달러

산업	기업수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산업	777	52,938	39,894	54,849	41,392	41,715
13 섬유	29	-95	-85	-143	-215	-82
14 의복	52	-63	-216	-296	-286	-211
20 화학	54	190	193	374	312	348
25 금속가공	39	173	766	941	1,425	-1,367
26 전기전자	99	9,377	8,434	7,615	2,057	-308
30 자동차	80	2,837	3,551	5,807	4,092	3,434
제조업	353	24,923	4,643	10,027	6,378	42
45 자동차판매	25	14,396	12,297	17,126	14,498	12,580
46 도매	12	294	318	271	343	974
47 소매	97	13,189	23,195	26,119	19,127	20,985
69 임대	26	-93	-100	-134	-165	5,322
서비스업	230	28,423	35,642	44,897	35,887	42,340

<표Ⅳ-4-5> 주요 국가별 무역수지

단위: 개사, 백만 달러

국가	기업수	2005	2006	2007	2008	2009
네덜란드	5	619	674	711	840	617
대만	8	4,556	5,501	7,182	6,385	6,071
독일	16	4,511	3,715	4,517	1,508	997
러시아	4	1	90	115	613	356
미국	93	15,072	12,231	20,101	14,258	16,478
베트남	46	129	57	39	-62	-170
브라질	4	977	1,448	1,457	1,583	1,684
싱가포르	10	12,345	-5,355	-2,918	710	393
영국	11	437	1,070	1,130	957	627
오스트레일리아	9	847	725	887	1,049	1,493
이탈리아	3	548	1,152	492	1,020	1,206
인도	5	15	31	2	91	151
인도네시아	26	-554	80	-529	-358	-1,613
일본	23	440	-376	-1,401	-1,867	-1,287
중국	372	7,823	6,590	5,711	33	-4,007
캐나다	7	333	633	993	901	976
태국	14	266	127	310	453	281
폴란드	6	732	1,225	1,580	1,784	470
프랑스	4	1,014	1,135	1,416	1,496	7,245
홍콩	25	-158	5,576	4,772	3,950	4,171

5. 모기업 산업별 분석

- “2. (1) 주요 산업별 추이”에서 소매업의 상당부분이 모기업이 제조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입을 모기업 산업분류를 중심으로 분석함.
 - 현지법인 산업 분류와 비교하여 의미 있는 부분만 분석함.
- 우선, 모기업 산업별 무역수지 추이를 보면 제조업은 현지법인 산업분류와는 달리 모기업 기준으로는 무역 흑자 폭이 감소되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음.
 - 모기업 산업별 분류로 제조업 무역 흑자는 2005년 551억 6천만 달러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09년에는 761억 5천만 달러로 증가하였음.
 - 특히, 전기전자 제조업(산업분류 코드 26)의 경우 2005년 234억 7천만달러에서 2009년 432억 4천만 달러로 오히려 흑자폭이 확대되어 전체 무역수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 자동차 제조업(산업분류 코드 30)의 경우에도 2009년 198억 3천만 달러로 현지법인 분류시의 76억 3천만 달러를 큰 폭 웃도는 등 모기업 분류시 흑자 폭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집계됨.
- 모기업 산업분류 무역수지 추이를 현지법인 산업분류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이 주로 소매업, 그 중에서도 무점포 소매업 현지법인을 통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다만, 전기전자의 경우 제조업 현지법인을 통한 역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자동차업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음.

- 국가별로는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은 개도국과는 달리 소매업을 경유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이 특징으로 미국은 소매업 현지법인, 개도국은 제조업 현지법인을 활용하는 현지시장 진출전략의 국가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음.

<표Ⅳ-5-1> 모기업 산업별 무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산 업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산업		65,629	59,126	76,041	67,859	74,245
13	섬유	-26	-20	-43	-51	-80
14	의복	-13	-48	-95	-52	-40
19	정유	347	440	620	675	750
26	전기전자	23,472	27,968	35,992	37,482	43,239
30	자동차	20,797	20,273	24,503	21,551	19,834
제조업		55,164	63,956	79,084	69,236	76,145
45	자동차판매	0	0	7	8	0
46	도매	-3,172	2,454	1,011	-459	-898
47	소매	781	1,203	1,258	1,187	759
서비스		-1,437	4,146	1,958	54	-8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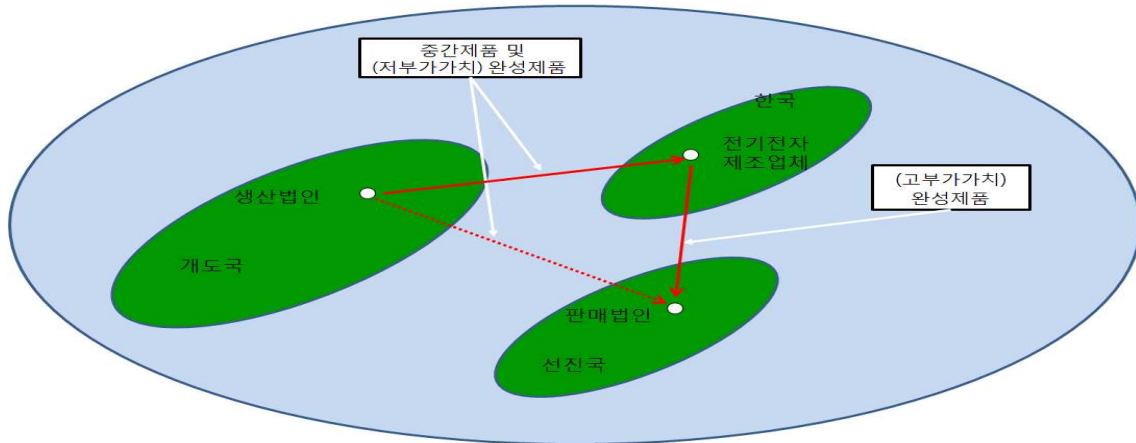
주: 전체 산업별 수출입은 <부록표>참조

○ 이러한 무역수지 추이의 배경에 있는 모기업 산업별 수출입 구조 추이를 살펴보면 제조업 의존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모기업 분류로는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 중 제조업 비중이 2005년의 77.3%에서 2009년에는 91.9%로 증가하였으며 수입 비중은 같은 기간 중 38.9%에서 45.8%로 높아졌음.
- 현지법인 산업 분류로는 제조업 비중이 같은 기간 중 42.9%에서 31.3% 감소하였고, 수입 비중은 30.7%에서 64.6%로 증가하였음.
- 모기업 분류로는 제조업의 수출 비중이 현지법인 산업분류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더욱 증가하였고 수입 비중은 현지법인 기준 산업 분류보다 낮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증가하였음.

- 이러한 비교에서 한국 제조업 기업은 수출입업무를 종합상사 등 중개기관을 통하기보다는 기업 내부의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함.

<그림 VI-2-2> 전기전자 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조



- 세부 산업별로도 현지법인 분류와는 반대로 전기전자 제조업의 수출비중이 2005년 36.6%에서 2009년 52.9%로 높아졌음.
- 다만, 수입 비중도 같은 기간 중 38.9%에서 45.8%로 높아졌음.
- 자동차 업종의 경우 수입에서 이와 같은 특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전자 업종에서 비교우위 및 경쟁력 구조 변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2005년 23.2%에서 2009년에는 15.7%로 하락하였는데 현지화의 영향으로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금액으로는 2005년 210억 1천만 달러에서 2007년 250억 6천만 달러까지 증가하였다가 2009년에는 204억 1천만 달러로 감소하였음.

<표Ⅳ-5-2> 모기업 산업별 수출 비중 추이

단위: %

산 업		2005	2006	2007	2008	2009
全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3	섬유	0.1	0.1	0.1	0.1	0.1
14	의복	0.1	0.1	0.0	0.1	0.1
19	정유	0.5	0.6	0.7	0.7	0.9
26	전기전자	36.6	39.4	43.0	49.8	52.9
30	자동차	23.2	21.0	20.8	17.7	15.7
제조업		77.3	84.0	86.1	85.4	91.9
45	자동차판매	0.0	0.0	0.0	0.0	0.0
46	도매	5.9	6.2	4.5	3.4	1.6
47	소매	1.8	2.2	1.8	1.6	0.9
서비스		9.4	9.6	6.6	5.4	3.0

주: 모든 중분류 산업 통계는 <부록 표 21>참조

<표Ⅳ-5-3> 모기업 산업별 수입 비중 추이

단위: %

산 업		2005	2006	2007	2008	2009
全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3	섬유	0.3	0.2	0.3	0.3	0.3
14	의복	0.3	0.3	0.3	0.2	0.3
19	정유	0.5	0.5	0.4	0.4	0.7
26	전기전자	38.9	27.5	35.5	43.5	45.8
30	자동차	0.9	0.8	1.3	1.4	1.0
제조업		59.4	47.6	55.2	66.2	77.6
45	자동차판매	0.0	0.0	0.0	0.0	0.0
46	도매	34.3	9.3	10.0	8.0	5.3
47	소매	3.3	2.3	2.0	1.5	0.7
서비스		39.8	13.5	13.6	11.7	8.6

주: 모든 중분류 산업 통계는 <부록 표 22> 참조

제 V 장

수출입 유발 효과 실증 분석

1. 이론 및 선행 연구

(1)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입 관계 기초 이론

1) 거시적 측면

-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국(home country)과 투자유입국(host country)간 생산요소(자본) 부존량을 변동시킴으로써 요소가격 및 산업구조,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주어 무역구조에 변화를 가져옴.
- 전통무역이론
 - 두 국가간 동일한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포함한 생산요소의 이동은 무역관계를 대체함.
 - Mundell(1957)은 모든 국가의 생산함수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해외직접투자 등 생산요소의 이동은 무역을 대체한다고 분석
 - 무역을 발생시키는 기본적인 원인은 양국간 부존자원에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해외직접투자 등을 통한 생산요소의 이동은 양국간 자원의 부존차이를 축소시킴으로 교역이 축소됨.
 - 두 국가간 생산기술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 자본의 국가간 이동은 무역을 보완하는 관계를 가지게 됨.
 - 한 국가의 자본생산성이 높은 경우 자본생산성이 높은 국가로 자본의 이동(해외직접투자)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본생산성이 높은 국가에서 더 많은 생산 및 수출이 이루어짐.

2) 미시적 측면 : 기업활동적 측면

- 직접적 효과 :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수출유발, 수출대체, 역수입, 수입전환 등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양국간 무역거래에 변화가 이루어짐.
 - 수출유발효과 : 수출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해외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본재, 중간재 및 부품 등을 국내(본국)로부터 수입함으로써 발생하여 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시킴.
 - 또한 투자대상국에서 유사산업과 연관산업이 출현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중간재 수출을 증가시키기도 함.
 - 수입전환효과 : 수출기업의 해외생산으로 국내생산시 수입되었던 투입요소들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함에 따라 수입이 전환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본국의 수입이 축소되어 무역수지를 개선시킴.
 - 수출대체효과 : 해외현지에 직접 생산·판매함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생산 수출하는 물량이 감소하는 효과로 본국의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특히, 해외현지 생산 판매가 투자국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수출대체효과는 확대됨.
 - 역수입효과 : 국내의 생산시설 이전으로 국내생산이 위축되고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로 수입되어 발생함에 따라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효과
 - 이 경우 국내산업이 위축되는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 발생
- 간접적(장기적) 효과 : 투자대상국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술향상, 홍보효과 등으로 통해 양국간 무역거래에 변화가 발생함.
 - 해외직접투자는 투자대상국에 단기적으로는 고용창출에 따른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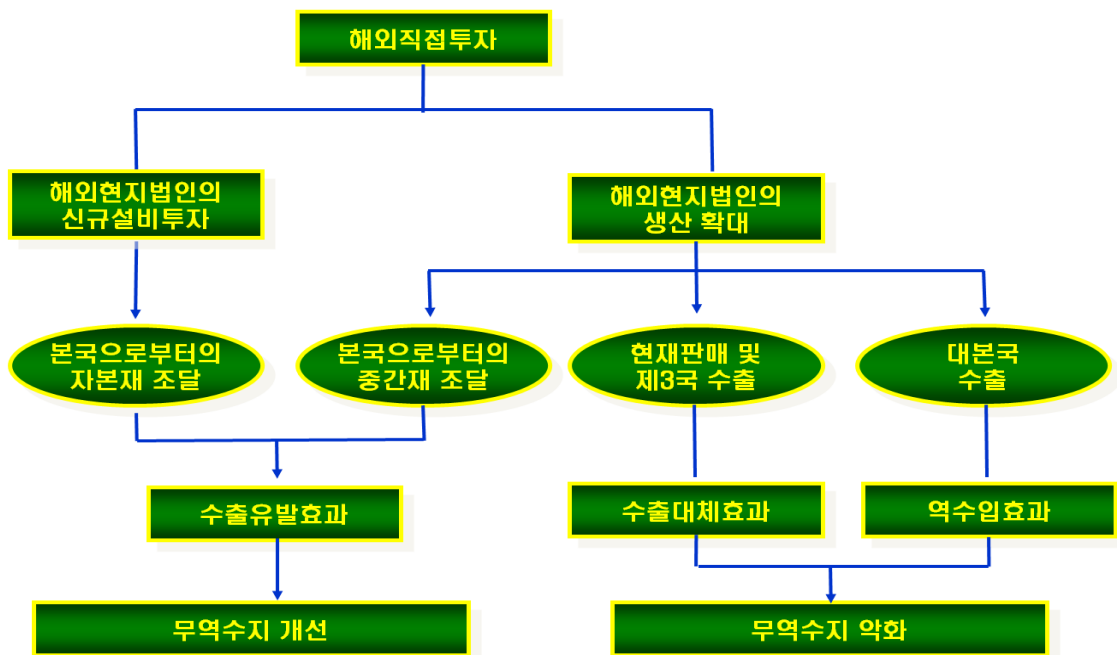
특증대와 장기적으로 기술이전에 따른 경제성장을 가져옴.

- 또한 해외직접투자는 투자대상국에서 모기업에 대한 홍보효과 등이 발생하여 모기업제품에 대한 수요가 창출됨.

<표 V-1-1> 해외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내용	본국영향
직접적 영향	중간재 조달	수출유발효과 · 현지법인이 중간재 및 부품을 본국에서 조달	수출증가
		수입대체효과 · 국내생산 기반 이전으로 중간재 및 부품수입 현지 조달	수입감소
	최종재 판매	수출대체효과 · 국내 생산후 수출에서 현재 생산·판매로 전환	수출감소
		역수입효과 · 투자대상국에서 생산후 국내 판매로 전환	수입증가
간접적 영향	투자대상국의 수요확대	· 투자대상국에 대한 홍보효과 증대 및 영업망 확대	수출증가
	투자대상국 경제성장	· 투자대상국의 소득증대 및 투자대상국에 대한 기술이전에 대한 경제 성장	수출 및 수입증가

<그림 V-1-1> 해외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개요도



(2) 해외직접투자 유형별 수출입 효과

1) 해외직접투자 유형

○ 해외직접투자는 크게 수평적 통합형 직접투자(horizontal integration)와 수직적 통합형 직접투자(vertical integration), 그리고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다각적 통합형 직접투자(conglomerate integration)로 유형화할 수 있음.

- 해외직접투자 초기에는 선진국간 해외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수평적 통합형 직접투자가 지배적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개도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며 수직적 통합형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수평적 통합형 직접투자는 무역장벽 해소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에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기반을 설립하여 생산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방식은 모기업의 통제를 받으나 어느 정도 독립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수직적 통합형 직접투자는 비용절감 등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세계적 차원에서 자원이용을 합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하는 것임.

- 이러한 투자의 경우 모기업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현지법인간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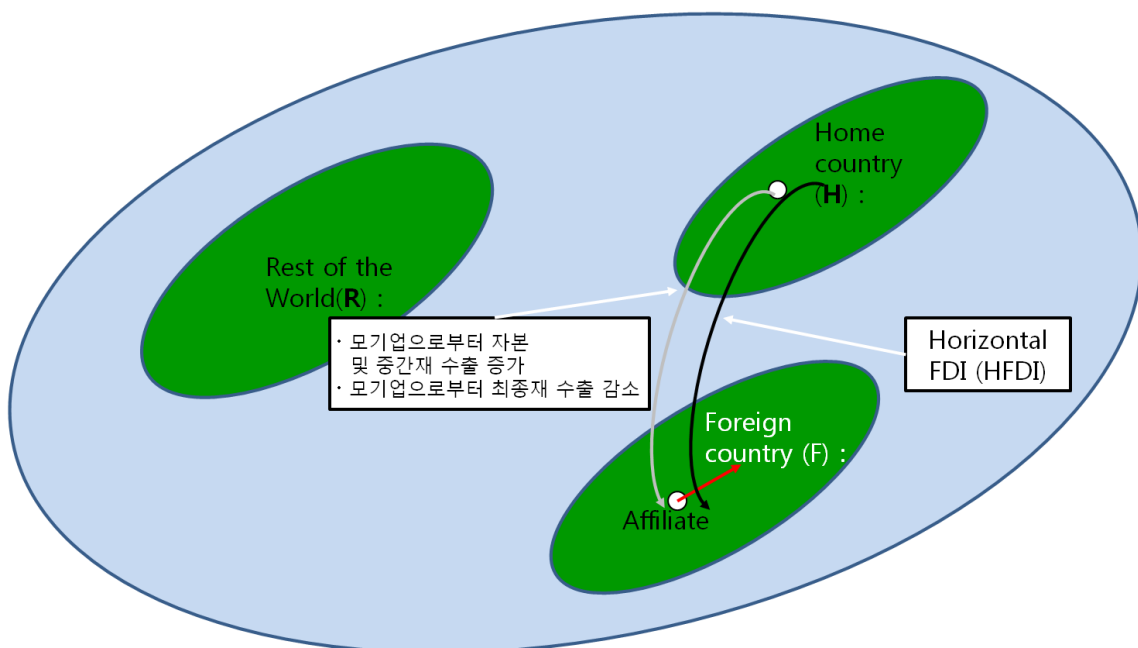
- 수직적 통합형 직접투자는 정보통신기술 혁신, 지리적 거래비용의 축소, 기업의 거대화 및 글로벌 경영의 확산 등으로 최근에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2) 해외직접투자 유형별 수출입 영향

○ 수평적 통합형 직접투자(horizontal integration)

- 시장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평적 통합형 직접투자는 현지생산법인에 대한 생산시설 설립을 위한 자본재 및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중간재) 판매 등으로 수출유발효과를 동시에 발생
- 그러나 본국에서의 수출이 현지법인 생산으로 대체됨에 따라 수출감소가 동시에 발생함.
- 투자대상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이 있었던 경우에는 투자대상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을 감소시켜 무역수지를 개선시킴.
- 또한 제 3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도 투자대상국으로 수입으로 전환됨으로써 전반적인 수입이 감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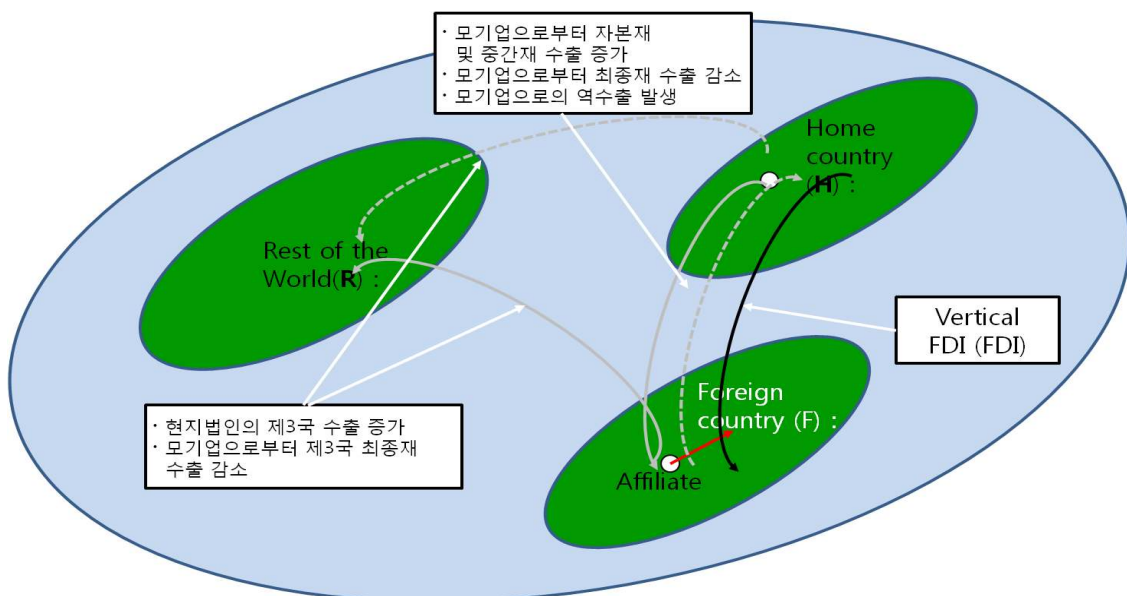
<그림 V -1-2> 수평적 통합형 직접투자의 수출입 구조



○ 수직적 통합형 직접투자(vertical integration)

- 글로벌 자원활용을 위한 투자는 수평적 통합형과 동일하게 투자 대상국에 대한 자본재 및 중간재 수출을 증가함.
- 특히, 투자대상국의 낮은 임금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의 경우에는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에 대한 수출이 확대됨.
- 그러나 해외법인이 점차 현지화가 되고 부품의 조달비용 절감을 위해 현지기업의 부품을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이 효과는 감소할 수 있음.
- 부품업체와 동반진출하는 경우 부품수출 증가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 생산법인의 제 3 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본국으로부터의 제 3국 수출규모는 축소됨.
- 국내의 생산시설을 폐쇄하고 생산기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국내로의 역수입을 발생시킴.

<그림 V-1-3> 수직적 통합형 직접투자의 수출입 구조



<표 V-1-2> 해외직접투자 유형별 무역에 미치는 효과

투자유형 및 목적		수출에 미치는 영향	수입에 미치는 영향
수출 개척 (수평적)		·최종재의 투자대상국으로의 수출 감소 ·중간재의 투자대상국으로의 수출 증가	·투자대상국으로부터 의 중간재 수입 감소
자 원 이 용 (수직적)	제3국 수출	·본국의 제3국 수출 감소 ·자본재 및 중간재의 투자대상국으로의 수출증가	·투자대상국으로부터 의 중간재 수입 감소
	본국 수출	·투자대상국으로의 자본재 및 중간재의 수출 증가	·투자대상국으로부터 최종재 수입 증가(역 수입 효과 ·제3국 수입의 대체효 과(수입전환효과)

3) 투자단계별 수출입 영향

- 해외직접투자의 수출입 영향의 상대적 크기는 투자 후 투자단계별
로 차이가 발생함.
- 투자 초기단계에는 생산시설 설립을 위한 자본재의 수출이 크게 발
생하고, 생산초기에 있어서도 원부자재에 대한 본국의존도가 높아
중간재 수출도 크게 나타남.
 - 한편, 생산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수출대체효과와 역수입 효과는
크게 발생하지 않아 전반적인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큼.
- 생산확대 및 현지화가 이루어지면서 현지법인의 투자국 및 제 3 국
에 대한 수출이 확대되면서 수출대체효과가 증가하고 역수입 등의
현상이 발생하게 됨.
 - 또한 현지화를 통한 원부자재의 본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짐에
따라 부품 및 중간재의 본국으로부터의 수출유발 효과도 낮아지
게 됨.

<표 V-1-3> 해외직접투자 단계별 무역에 미치는 효과

	투자초기 단계	생산개시 단계	현지화 진전 단계
수출유발효과 자본재 원부자재	크게 증가 없음	소폭증가 크게 증가	거의 증가하지 않음 소폭 증가
수출대체효과	없음	소폭증가	크게 증가
역수입효과	없음	소폭증가	크게 증가
무역수지효과	흑자	흑자폭 확대	흑자 감소 또는 적자 전환

(3) 실증 연구 사례

1) 해외연구 사례

○ 산업단위 분석

- Lipsey and Weiss(1981) : 미국기업의 해외생산과 수출이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힘(44개 투자국 대상 분석).
- Brainard(1997) : 63개 산업이 투자한 27개 국가를 분석한 결과 교역과 해외직접투자가 양(+)의 관계를 가짐을 밝힘.
- Sachs and Shatz(1994) :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기업내무역이 10% 증가할 경우 국가 전체 수출은 40% 증가함.

○ 기업단위 분석

- Lipsey and Weiss(1984), Lipsey et al.(1999) : 미국과 일본 초국적 기업 분석을 통해 해외직접투자와 교역이 양(+)의 관계를 가짐을 밝힘.

- Swedenborg(1979, 1982) : 스웨덴 기업 대상 분석을 통해 해외투자에 따른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 규모가 투자에 따른 최종재 수출 대체 규모를 초과하여 기업수출 증가에 긍정적 역할을 함을 밝힘.
- Head and Ries(2001) : 932개의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25년간 해외투자와 수출간 관계를 분석하여 수출과 해외직접투자가 양(+)의 관계를 가짐을 보임.
- Svensson(1996) : 스웨덴 기업 대상 분석을 통해 초국적 기업의 경우 1980년대에 수출과 해외직접투자가 음(-)의 관계였음을 보이고 있음.

2) 국내 연구사례

○ 기존 연구

- 김준동(1994) : 해외투자를 많이 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해외투자를 많이 한 지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힘.
- 유재원(1996) : 해외직접투자가 한국의 수출, 수입, 국내생산 그리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해외직접투자가 양국간 수출과 수입을 모두 촉진하는 효과 밝힘.
- Kim and Kang(1997) : 한국과 일본의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수출은 감소하지 않으며,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비용절감 성격이 강하고 일본의 경우 시장접근을 위한 성격이 강함을 보임.
- 김미아(1998) :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수출과 수입을 모두 증대시킴으로써 무역촉진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 이영광(2009) : 투자기업들의 현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점차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밝힘.

○ 본 연구의 차별성

- 기업수준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 김준동(1994)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업 또는 국가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것임.
 - 국가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중력모형을 가지고 분석함.
 - 김준동(1994)의 경우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본격화되기 이전의 자료를 활용하여 짧은 시계열 분석 및 한정된 기업 분석에 그침.
- 해외직접투자 형태를 생산법인과 판매법인으로 구분하여 양자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분석함.
 - 기존 분석의 경우 대부분 기업의 해외투자총액을 기준으로 분석

2. 실증 분석

(1) 분석모형

- 분석 모형은 기업의 수출결정 방정식을 차용하여 거기에 해외직접투자(생산법인과 판매법인)를 추가하는 형식을 취함.
 - 기업의 수출결정 방정식과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별 구분을 통해 분석한 기존의 논문은 Head and Ries(2001) 임.
- 수출결정요인 : 기업의 수출물량을 결정하는 요소는 기업규모, 기업경쟁력(기술경쟁력 및 노동생산성), 비용경쟁력 등임.
 - 기업규모 지표 : 고용인원(L)
 - 기업규모의 지표로는 기업자산규모, 고용인원, 생산액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생산액의 경우 수출물량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수라 사용하지 않았으며 기업자산규모는 산업특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고용인원을 사용함.
 - 생산성 지표 : 자본집중도(K/L), 노동생산성(VA/L)
 - 기술경쟁력(자본생산성)을 표현하는 변수로는 일반적으로 총자본투자효율, 자본집약도, 설비투자효율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본집중도를 활용함.
 - 생산성의 지표로는 1인당 매출액, 1인당 순이익, 1인당 부가가치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1인당 부가가치를 활용함.
 - 비용경쟁력 지표 : 평균임금(Pay/L)
 - 기업의 비용은 중간재 가격과 임금으로 구성되고, 일반적으로 같은 업종별 중간재 가격이 비슷하다고 볼 때, 기업의 비용경쟁력은 임금수준에 의해서 결정됨.

- 본 모형에서는 모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수출에 가격변수로 영향을 미치는 원/엔환율을 추가함.

○ 분석모형은 수출결정방정식에 해외투자잔액규모를 추가함.

분석모형

$$\begin{aligned} \text{총투자모형 : } \ln(x_{i,t}) = & \alpha \ln(ODI_{i,t-1}) + \gamma \ln(L_{i,t}) + \delta \ln(K_{i,t}/L_{i,t}) \\ & + \epsilon \ln(VA_{i,t}/L_{i,t}) + \zeta \ln(Pay_{i,t}/L_{i,t}) + \eta \ln(JKEXRate_t) + \mu_{i,t} \end{aligned}$$

$x_{i,t}$ = i 기업의 t 기의 수출(자료원: KISVALUE)
 $ODI_{i,t-1}$ = i 기업의 $t-1$ 기의 해외직접투자액(자료원: 수출입은행)
 $L_{i,t}$ = i 기업의 t 기의 고용인수(자료원: KISVALUE)
 $K_{i,t}$ = i 기업의 t 기의 자본스톡(유형자산)(자료원: KISVALUE)
 $VA_{i,t}$ = i 기업의 t 기의 부가가치(자료원: KISVALUE)
 $Pay_{i,t}/L_{i,t}$ = i 기업의 t 의 평균임금(자료원: KISVALUE)
 $JKEXRate_t$ = t 기의 평균원/엔환율(자료원: 한국은행)

○ 분석대상 : 모기업 기준 제조업 기업 전체

- 모기업 기준으로 4,545개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대상 기업중 NICE신용평가정보(KISVALUE)에서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상장 및 외감대상 기업)

○ 분석기간 : 2000년~2009년(10년간)

○ 분석방식 : 패널분석

- Pooling OLS 분석 : 기업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
-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 분석 : 기업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분석 방식
 - 기업별로 오차항의 분포가 다를 수 있음.

(2) 분석자료

○ 해외투자잔액은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를 활용함.

- 생산법인과 판매법인 투자잔액 변수에 1을 합하여 로그를 취함으로써 사용가능 통계의 손실을 방지함.
- 해외투자를 생산법인투자와 판매법인투자로 나누어 분석할 경우 각각의 투자건수가 분산되어 손실되는 통계가 많아짐.

○ 기업별 경영지표는 KISVALUE의 자료를 활용함.

○ 원/엔환율 자료는 한국은행 통계의 연간 평균 환율을 활용함.

<표 V-2-1> 분석자료의 요약 통계량

Variable	Mean	Std. Dev.	Min	Max	Observations
ln(수출액)	23.13106	2.890237	13.81551	31.94582	10,895
ln(총 투자 잔액)	14.00854	2.075403	0	22.52065	28,180
ln(생산법인투자잔액+1)	5.728648	6.992994	0	22.52065	45,450
ln(판매법인투자잔액+1)	0.836551	3.428066	0	21.41267	45,450
ln(고용자수)	4.691056	1.373501	0	11.35993	41,920
ln(원/엔환율)	6.918858	0.138823	6.672033	7.217443	49,995
ln(자본집약도)	17.87048	1.528258	4.422849	24.20965	41,724
ln(노동생산성)	17.83887	1.098866	6.907755	25.58741	39,384
ln(평균임금)	17.4697	0.595637	10.12352	24.55058	35,818

(3) 분석 결과

1) 총투자 효과 분석 결과

○ 분석결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1% 증가할 때 수출이 약 0.1%~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Pooling 분석의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1% 증가할 경우 해당기업의 수출이 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정효과 분석의 경우에는 0.1%로 나타남.

○ 분석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R^2 는 Pooling 분석의 경우 0.44, 고정효과 분석은 0.40으로 나와 본 연구의 수출효과 분석 모형이 전체적으로 설명력이 높음.

- R^2 는 $\frac{\text{회귀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변동}}{\text{전체 변동}}$ 으로 일반적으로 0.3 이상일 경우 모형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분석모형에서 예상하였던 변수별 계수의 부호와 모형분석 결과계수의 부호를 비교했을 경우에도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 모형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투자의 수출유발효과 등으로 양의 효과를 예상함.

- 기업의 규모를 표현하는 고용인수의 경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수출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함.

-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표현하는 자본집약도의 경우 집약도가 높을수록 수출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함.

-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생산성이 높을수록 수출에 긍정적 역할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 기업의 가격경쟁력 등을 표현하는 변수로 사용된 평균임금의 경우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함.

<표 V-2-2> 해외직접투자 수출유발효과 모형의 예상효과와 결과 비교

구 분	예상부호	Pooling 분석	고정효과 분석
ln_총투자잔액_(t-1)	+	+	+
ln_고용인수(t)	+	+	+
ln_자본집약도(t)	+	+	+
ln_노동생산성(t)	+	+	+
ln_평균임금(t)	-	-	+
ln_평균 원/엔환율(t)	+	+	+

- 해외투자의 수출효과 계수의 유의성을 판단하는 t-value 역시 높게 나와 수출효과 계수가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Pooling 분석의 t-value는 22.8로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고정효과 모형의 경우에도 t-value가 7.72로 이 역시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다른 변수들의 경우 Pooling 분석 평균임금만 제외하고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평균임금은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표 V-2-3> 총투자규모에 따른 수출유발효과 분석결과(Pooling 분석)

구분	Coef.	Std. Err.	t	P>t
ln_총 투자 잔액 _(t-1)	0.307178	0.013476	22.8	0
ln_고용인수(t)	0.762692	0.023128	32.98	0
ln_자본집약도(t)	0.333735	0.02355	14.17	0
ln_노동생산성(t)	0.417373	0.041652	10.02	0
ln_평균임금(t)	-0.07671	0.069072	-1.11	0.267
ln_평균 원/엔환 율(t)	0.105267	0.153975	0.68	0.494
cons	1.717288	1.398957	1.23	0.22

<표 V-2-4> 총투자규모에 따른 수출유발효과 분석결과(고정효과 분석)

	Coef.	Std.Err	t	P> t
ln_총 투자 잔액 _(t-1)	0.096846	0.012549	7.72	0
ln_고용인수(t)	0.997154	0.035243	28.29	0
ln_자본집약도(t)	0.04292	0.020842	2.06	0.04
ln_노동생산성(t)	0.248048	0.023491	10.56	0
ln_평균임금(t)	0.516706	0.045205	11.43	0
ln_평균 원/엔환 율(t)	0.312373	0.064789	4.82	0
cons	0.033714	0.92172	0.04	0.971

2) 산업별 분석결과

○ 분석대상 : 표준산업분류 2digit 기준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통계상 유의한 표본수를 확보한 12개 산업에 대하여 같은 모형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추정함.

○ 산업별 분석 결과

- 산업별 분석결과 섬유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양(+)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남.
 - 1차금속, 기타일반기계 제조, 전기장비 산업, 의복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수출유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산업들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자본재 및 부품·원부자재의 수출이 활성화되는 반면, 수출대체효과 및 역수출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섬유산업의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섬유산업의 경우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전 및 산업공동화로 국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 섬유산업과 의복산업이 서로 상반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섬유산업의 경우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의복산업의 경우에는 의복의 소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V-2-5> 총투자규모에 따른 산업별 수출유발효과 분석결과 (Pooling 분석)

산업	Coef.	Std.Err	t	P> t
전기전자	0.075839	0.026506	2.86	0.004
기타기계	0.27324	0.042679	6.4	0
자동차	0.225812	0.066331	3.4	0.001
전기장비	0.265062	0.067648	3.92	0
화학제품	0.11223	0.042965	2.61	0.009
1차금속	0.324091	0.038863	8.34	0
고무 및 플라스틱	0.207872	0.100746	2.06	0.04
금속가공	0.161723	0.081503	1.98	0.049
의복제조	0.96535	0.104486	9.24	0
정밀기기	0.086112	0.063556	1.35	0.177
식료품	0.211946	0.065192	3.25	0.001
섬유제조	-0.08702	0.046839	-1.86	0.066

<표 V-2-6> 총투자규모에 따른 산업별 수출유발효과 분석결과(고정효과 분석)

산 업	Coef.	Std.Err	t	P> t
전기전자	0.094727	0.027855	3.4	0.001
기타기계	0.125921	0.038936	3.23	0.001
자동차	0.072955	0.02772	2.63	0.009
전기장비	0.227104	0.064222	3.54	0
화학제품	0.12069	0.025308	4.77	0
1차금속	0.170239	0.062175	2.74	0.007
고무 및 플라스틱	0.070644	0.035548	1.99	0.049
금속가공	-0.00475	0.169459	-0.03	0.978
의복제조	0.118401	0.107999	1.1	0.276
정밀기기	0.007389	0.051229	0.14	0.886
식료품	0.146245	0.051371	2.85	0.005
섬유제조	-0.16803	0.072651	-2.31	0.023

3) 기업규모별 분석결과

○ 분석대상 : 대기업 453개업체, 중소기업 758개업체 대상

○ 기업규모별 분석결과

-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수출유발효과가 대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1% 증가할 경우 수출이 0.14% ~ 0.3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의 경우는 해외직접투자가 1% 증가할 경우 수출이 0.04% ~ 0.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경쟁력이 높고 수출규모가 많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의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다른 일반적 경쟁력이 낮은 상황에서 해외 직접투자가 수출증진 및 해외시장개척에 중요한 전략일 수 있음을 나타냄.

<표 V-2-7> 총투자규모에 따른 기업규모별 수출유발효과 분석결과

구 분		Coef.	Std.Err	t	P> t
대기업	Pooling	0.280815	0.017928	15.66	0
	고정	0.038769	0.014326	2.71	0.007
중소기업	Pooling	0.328743	0.020393	16.12	0
	고정	0.14431	0.021428	6.73	0

4) 투자유형별 분석결과

○ 투자유형별 분석

- 총해외직접투자 잔액을 생산법인 투자잔액과 판매법인 투자잔액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효과를 분석함.

투자 유형별 모형

$$\ln(x_{i,t}) = v_t + \alpha \ln(MODI_{i,t-1} + 1) + \beta \ln(RODI_{i,t-1} + 1) + \gamma \ln(L_{i,t}) \\ + \delta \ln(K_{i,t}/L_{i,t}) + \epsilon \ln(VA_{i,t}/L_{i,t}) + \zeta \ln(Pay_{i,t}/L_{i,t}) \\ + \eta \ln(JKEXRate_t) + \mu_{i,t}$$

$x_{i,t}$ = i 기업의 t 기의 수출(자료원: KISVALUE)

$MODI_{i,t-1}$ = i 기업의 $t-1$ 기의 생산법인 해외직접투자액(자료원: 수출입은행)

$RODI_{i,t-1}$ = i 기업의 $t-1$ 기의 판매법인 직접투자액(자료원: 수출입은행)

$L_{i,t}$ = i 기업의 t 기의 고용인수(자료원: KISVALUE)

$K_{i,t}$ = i 기업의 t 기의 자본스톡(유형자산)(자료원: KISVALUE)

$VA_{i,t}$ = i 기업의 t 기의 부가가치(자료원: KISVALUE)

$Pay_{i,t}/L_{i,t}$ = i 기업의 t 기의 평균임금(자료원: KISVALUE)

$JKEXRate_t$ = t 기의 평균원/엔환율(자료원: 한국은행)

- 투자유형별 분석 결과 판매법인에 대한 투자가 생산법인 투자보다 수출유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판매법인에 대한 1%의 투자잔액 증가는 수출을 0.013% ~ 0.11% 증가시킴.
 - 생산법인에 대한 1%의 투자잔액이 증가할 경우 수출은 0.025% ~ 0.06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분석방식에 따라 효과크기가 서로 다르게 나와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판매법인은 최종재의 수출을 중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수출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어 그 효과가 생산법인보다 크게 나타남.
- 생산법인의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중간재 및 자본재의 수출을 유발시키는 효과가 입증됨.

<표 V -2-8> 투자유형별 규모에 따른 수출유발효과 분석결과(Pooling 분석)

구 분	Coef.	Std.Err	t	P> t
ln_생산법인투자 잔액(t-1)	0.066622	0.003378	19.72	0
ln_판매법인투자 잔액(t-1)	0.108702	0.007249	15	0
ln_고용인수(t)	0.978015	0.01958	49.95	0
ln_자본집약도(t)	0.296767	0.021922	13.54	0
ln_노동생산성(t)	0.464607	0.038074	12.2	0
ln_평균임금(t)	0.318987	0.062419	5.11	0
ln_평균 원/엔환 율(t)	-0.03714	0.151425	-0.25	0.806
cons	-1.95372	1.349527	-1.45	0.148

<표 V -2-9> 투자유형별 규모에 따른 수출유발효과 분석결과(고정효과 분석)

구 분	Coef.	Std.Err	t	P> t
ln_생산법인투자 잔액(t-1)	0.025395	0.002797	9.08	0
ln_판매법인투자 잔액(t-1)	0.01292	0.011675	1.11	0.269
ln_고용인수(t)	1.159463	0.031101	37.28	0
ln_자본집약도(t)	0.042674	0.019123	2.23	0.026
ln_노동생산성(t)	0.289372	0.022167	13.05	0
ln_평균임금(t)	0.641974	0.041033	15.65	0
ln_평균 원/엔환 율(t)	0.297752	0.065966	4.51	0
cons	-2.69856	0.832966	-3.24	0.001

제VI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 세계화 추이

- 현지법인의 매출액 그리고 對현지법인 수출입 모두 미국 및 일본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향후 세계화의 필요성이 큼.
 - 매출/총수출 비율은 미국이 469.4%(2008년), 일본이 305.2%(2009년)인데 비해 한국은 102.1%(2009년)임.
 - 對현지법인 수출/총수출 비율은 일본이 77.9%(2009년)인데 비해 한국이 35.9%(2009년)로 1/2에 못 미치나 미국의 20.7%(2008년)보다는 높음.
- 현지법인의 매출 그리고 對현지법인 수출입이 국가 전체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세계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총수출 대비 해외법인의 매출액 비율은 2005년의 69.3%(제조업 현지법인은 29.8%)에서 2009년 102.1%(50.5%)로, 대해외법인 수출의 전체 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중 32.0%에서 35.9%로 상승함.
 - 다만, 對제조업 해외법인의 전체 수출비중은 동기간 중 13.7%에서 11.2%로 하락하였음.
 - 최근 해외직접투자액이 200억 달러 수준으로 GDP의 2%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현지법인의 매출 그리고 현지법인과의 수출입이 일본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경영성과

-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7.8배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국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음.
 - 이는 경영 성과 자체의 개선 결과이기도 하지만, 현지화의 또 다른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과거에는 모기업 실적을 지원하는 형태에서 점차 현지법인 독자적인 경영 실적 평가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현지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현지법인의 경영 실적이 개선 추세에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아직까지 일본에 비해 열악하여 향후 투자수익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해외투자의 목적이 점차 모기업의 수출 촉진에서 현지시장 진출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현지법인의 수익성 제고와 이를 통한 배당 지급 등도 해외직접투자의 중요 지표가 될 것임.
 -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을 통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더불어 배당금, 로열티 등을 통해 소득수지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지역별로는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지역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양호하여 최근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됨.

□ 수출입의 확대 균형과 안정성

- 對현지법인 수출과 수입 모두 한국의 전체 수출입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수출입의 확대 균형에 기여함.
 - 對현지법인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2.0%에서 2009년 35.9%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對현지법인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9.6%에서 2009년 17.3%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음.
 - 2005년~2009년 기간 중 對현지법인 수출 증가율이 전체 수출증가율 27.8%보다 높은 43%에 이름.
 - 제조업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중 3.0%에서 11.2%로 증가하여 수입 주체가 한국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음.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 해인 2009년 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3.9% 감소하였지만 對현지법인 수출은 오히려 2.6% 증가함으로써 수출의 안정성에 기여함.
 - 현지법인과외의 수출입은 내부 거래라는 성격으로 인해 환율 등 외부 충격에 일반 수출입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됨.

□ 무역수지

- 全산업의 무역수지는 2005년 이후 절대액이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제조업 무역수지는 악화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제조업 현지법인과외의 무역흑자는 2005년 313억 4천만 달러에서 2009년에는 46억 6천만 달러로 축소

- 전체 현지법인과의 무역 흑자는 600~700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무역흑자에 크게 기여
- 미국이 90년대 초반까지 현지법인과의 무역수지가 흑자이었다가 적자로 돌아선 사례를 고려시 추세화될 우려가 있음.
- 일본이 여전히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는 상당기간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제조업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무역수지 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점은 우려할 만한 것으로 그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산업별 특징

-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는 전자 부품 및 통신기기 업종과 자동차 제조업종이,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업이 매출과 수출입을 주도하였음.
- 전자 부품 및 통신기기업종에서 역수입이 증가하면서 제조업 현지법인과의 무역수지 악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 도소매업이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과 무역흑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모기업 산업분류로는 전기전자 제조업의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무역흑자도 개선되고 있는 등 현지법인 산업분류와는 상반된 결과로 집계됨.
- 이는 국내의 전기전자 제조 기업이 생산 현지법인을 통해 역수입

을 늘리는 반면 미국 등에서는 소매업을 통하여 수출을 확대하는 시장확대 전략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무역업 등 중개기업을 통한 수출입 비중이 줄고 있어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이 중개기관보다는 자체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수출입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지역 및 국가별 특징

- 수출에서는 북미와 유럽, 수입에서는 아시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무역 수지 측면에서는 미국 및 유럽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대규모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 및 베트남 현지법인과는 2008년 이후 적자로 전환
- 특히, 중국 및 베트남과는 역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5년간 연속 실적을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무역수지 적자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기업 규모별 및 형태별 특징

- 기업 규모별에서는 매출입 추이에서는 대기업 현지법인의 비중이 확대되는 반면 수출입에서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대비됨.
- 대기업 현지법인의 매출 비중은 2006년 79.8%에서 92.9%로 높아졌으며, 현지시장 개척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중소기업 현지법인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8%에서 2009년 5.5%로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중 6.5%에서 11.1%로 높아졌으며, 이는 중소기업이 역수입 의존도가 높고 소수의 현지법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큼을 의미함.

○ 지분인수 현지법인과 그린필드형 현지법인과 수출입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지분 인수 제조업 현지법인이 전체 현지법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음.

- 지분 인수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출 비중은 2006년 7.5%에서 2009년 17.5%로 높아졌으며, 이는 현지시장 개척에서 제조업 현지법인의 인수가 유효한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수출 효과

○ 기업 투자액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1% 증가할 때 수출이 약 0.1%~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분석에서도 섬유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양(+)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수출유발효과가 대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1% 증가할 경우 수출이 0.14% ~ 0.3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의 경우는 해외직접투자가 1% 증가할 경우 수출이 0.04% ~ 0.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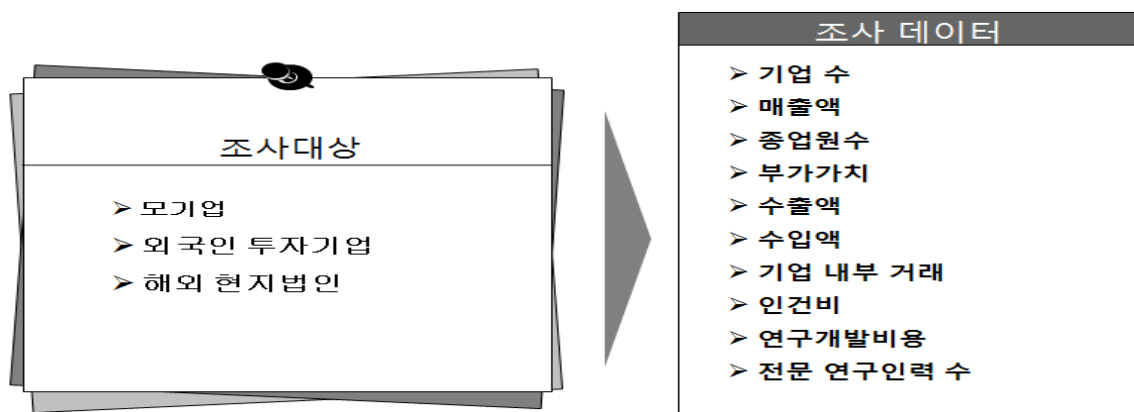
2. 정책 시사점

□ 현지법인 경영성과 모니터링 확대

○ 현지법인과 수출입이 한국 경제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지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OECD는 1990년 대 중반 세계화 지수 및 매뉴얼 작성 작업을 시작으로 현지법인의 경영실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및 현지법인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경영 통계를 매년 수집하여 홈페이지에 통계를 수록하고 있음³³⁾.
- 2000년대에는 OECD와 IMF가 공동작업³⁴⁾으로 현지법인 경영성과를 활용하여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회원국에 요청하고 있음.

<그림 VI-2-1> OECD 경영분석 통계 조사대상 및 데이터



33) 아직까지 OECD가 요구하는 통계 자료 작성 불가능한 국가가 많으나 점차 제출 국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한국은 2011년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해외 현지법인의 2009년 경영실적을 처음으로 제출한 바 있음.

34) OECD는 Benchmark Definition 4, IMF는 Balance of Payment Manual 6의 제정을 통하여 국제직접투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통계를 생산하고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현지법인 경영성과에 대한 통계 작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여 통계 개선 그리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함.
 - 정기적으로 현지법인과 수출입 등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기업 해외직접투자의 정보로 활용
- 또한, 국내 경제뿐만이 아니라 해외직접투자에서도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비스 현지법인의 경영 실적에 대한 조사를 분리하여 정교하게 조사하여야 함.
 - 서비스업 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실적 조사서를 제조업과 분리하고, 수출입 통계를 재화와 대기업 앞으로 용역 수출입으로 분리함으로써 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지원 정책의 효율성 모색

- 해외법인과 수출입이 전반적으로 한국의 수출입을 확대하고 안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해외직접투자의 지원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지역별, 산업별 수출입 효과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통하여 정책효과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산업과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주력 수출 업종으로서 무역수지와 수익성이 양호한 점을 감안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금융의 확대 등 지원책 고려
 -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많은 업종으로 한국으로부터의 부품 및 중간재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 물류 등 부품 및 중간재의 공급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투자대상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적극 개진할 필요

- 투자위험 보험 등 보험료의 산정시 급격히 해외직접투자 및 현지 법인 수출이 증가하는 지역, 특히 신흥국가의 경우 우대조항을 신설

□ 신흥국 정보 제공 확대 필요

- 신흥국 등 경영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의 성장, 정책 추이 및 산업구조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하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수익성으로 인해 개도국 등 신흥국에 대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국가의 투자 및 경영 환경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함.
 - 단계적으로 일개년도에 2~3개국을 집중분석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에 수록
 -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신흥국 시장 진출 전략에서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을 위한 직접투자 전략과도 같은 맥락임.
 - 투자에 따른 수출효과도 이들 국가에서 크게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아직 개도국 등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아 일반적인 정보 분석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맞춤형 정보의 제공을 강화하여야 함.
 - 기업의 해외 진출 컨설팅 결과 중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포상 기업에게 포상 관련 정보의 작성을 의뢰하고 게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대외비를 이유로 컨설팅업체의 정보 공개거부에 대한 대안)

□ 맞춤형 전문 인력 교육 제도 강화

- 현지 경영의 핵심인 글로벌 인력의 양성과 공급을 강화하되, 산업과 국가별 맞춤형 교육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함.
 - 주로 수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존 무역 인력양성 사업에서 마케팅, 인사 등 현지경영에 중점을 두어 글로벌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재편
 - 개도국의 경우 최근 현지인들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지 직원들과의 노사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해가 동반될 수 있게끔 개도국 현지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현지 대학 출신 한국인에게 채용을 우대하는 등의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

□ 중소기업 현지법인 경영 및 수출입 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현지시장 진출 경영 컨설팅을 강화하고 한국과의 수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매출 확장세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한국과의 수출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이 많이 높아졌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크고 현지법인의 경영성과도 대기업에 비해 열위함.
 - 따라서 경영 컨설팅, 금융 지원, 인력 양성 등 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특히, 해외현지법인과의 수출입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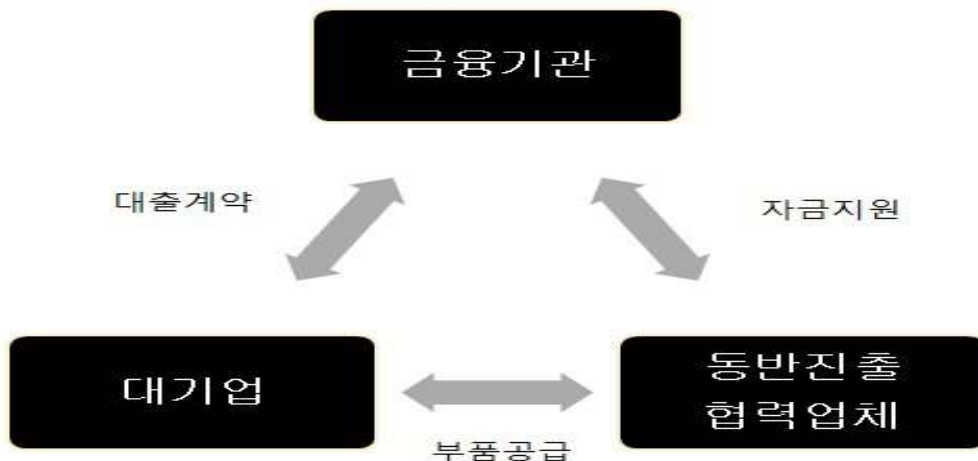
-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 역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입 제품이 한국 기업의 제품에 가깝고, 추가 가공을 거쳐 다시 수출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

□ 해외사업에서의 상생협력 구축

○ 해외에 동반 진출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의 구도가 개별 기업 간 경쟁에서 네트워크 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는 바,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 사업에 있어서도 상생협력이 중요
- 중소기업의 신용도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납품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대기업 신용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협력사들의 납품대금 조기결제 및 유동성을 확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그림 VI-2-2> 동반진출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구조



□ M&A 지원 강화

- 지분 인수(M&A)의 경우 에너지 자원 확보, 선진 기술 습득, 현지시장 진출 용이성 등 이외에도 신설법인 설립 방식보다 매출 증가세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M&A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선진국 기업 M&A의 경우 모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가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일정 범위에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국제 M&A의 실태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조사하여 기업에 공개
 - 현지시장 진출이 중국 등 신흥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될 필요성이 있는 반면 이들 국가의 제도가 불투명하여 M&A의 위험성은 더욱 높음.
 - 따라서 제도의 불투명성, 금융 기법, 정부 제도 활용 방법, 중개기관 등에 중점을 두어 조사

□ 무역수지 악화 분야의 모니터링과 구조조정 대응

- 무역수지가 최근에 악화되는 추세에 있는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구조조정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주요 해외직접투자 업종인 전기전자에서 현지제조업 법인과 무역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전기전자의 특정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이러한 기업이 집약되어 있는 공단 혹은 지역은 공동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필요시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90년대 초 의복 및 신발 산업의 해외투자 러시로 특정 지역에서 공동화 현상이 야기되었던 경험을 고려
- 다만, 최근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광업의 경우 현지법인 으로부터의 수입액이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수입선이 한국 기업으로 변화된데 따른 것이므로 예외 적용
- 정기적으로 산업단지 등 제조업 밀집지역에서 특정 세부 업종에서 고용, 업체 동향 등에서 구조조정 여부에 대한 정기모니터링 제도를 구축
 - 특히, 전기전자 등에서 역수입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해외투자를 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면 산업단지내 전기전자 중소기업을 최종재 공급기업, 부품 공급기업 그리고 해외투자 유무 등으로 분류하여 반기별로 출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급변하는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입안
- 과거 의복산업의 해외직접투자시 모기업은 패션 등 고부가가치 직종으로 업종 전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종 전환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나 교육훈련을 구조조정 업종에 대한 맞춤형으로 실시

□ 무역에 대한 시각 조정과 통상 협력

- 한국 수출에서 현지법인과의 수출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입에 대한 시각 조정이 필요
 - 수출의 경우 모기업과 현지법인간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환율 등 전통적인 수출 영향 요인의 영향력 저하
 - 수입도 한국 현지법인에 의한 것이 많아짐으로써 단순한 외국 제품이라는 시각을 탈피할 필요가 있음. 즉, 수입 감소가 한국 모기

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커짐.

○ 해외법인의 활동이 수출입의 확대 균형에 크게 기여하여 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통상 협상에서 이를 제기

- 수출입의 확대 균형을 모색하는 정책 방안에서 해외직접투자의 역할을 제시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모색
- 특히,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는 수입이 상당 부분 한국 기업에 의해 행하여진다는 면을 강조함으로써 통상협상에서 투자 환경 개선의 지렛대로 활용

○ 이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 중 주로 무역에 치중되어 있는 표현 및 조항을 해외진출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음.

- 대외무역법 제4조 2항에서 “1. 무역의 진흥”을 “1. 무역의 진흥 및 해외진출”로, “2. 무역 관련....”을 “2.... 무역 및 해외진출 관련” 으로 개정 고려: 1항과 2항에서는 표현을 고치지 않더라도 하부 문장에서 개정하여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동 시행령 5조 1항 “6. 무역 관련 시설에 대한...”을 “6. 무역 및 해외진출 관련 시설에 대한...”으로 개정하여 해외진출 관련 시설 포함을 명문화: 이와 관련 5조 2항 “무역연수원”에 “무역전문인력”을 “무역 혹은 해외진출 전문인력”으로 개정
- 제7조 “3. 무역 관련 협상 추진 방안 ...”를 “무역 및 해외진출 관련 협상 추진방안”으로 개정함.
- 대외무역법에서는 “통상”을 해외직접투자 즉 해외진출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도록 사용되고 있으므로 통상이라는 표현은 바꿀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통상(commerce)은 일반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거래로 정의됨.

<참고 문헌>

- 문휘창(2006)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다양한 투자동기를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 국제경영리뷰 제 11 권 제 1 호.
- 양평섭(2007) “중국의 대한국 공산품 수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 국제지역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하병기(2009), 「한국 다국적 기업의 기업내 무역 현황과 결정요인 분석」,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년 9월
- 하병기(2004), 「제조업 해외투자의 평가와 과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496, , 2004년 12월
- 하병기(2001), 「국제직접투자와 산업구조조정」, 산업연구원 이슈페이퍼 2001-102, 2001년 12월
- 한국수출입은행(2010), 공공기관의 해외직접투자동향, 2010년 6월
- 한국은행(2002)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2년 10월호
- 한혜정 외(2010)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 KIEP 연구보고서 10-02.1111
- Dunning, J. H.(1993),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he Global Economy*,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Forte, R.(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Substitution or Complementarity? A Survey" CETE Working Paper3 no. 140
- Head, K. and Ries, J.(2001) "Overseas Investment and Firm Exports"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9(1)
- IMF(1993), *Balance of Payments Manual: Fifth Edition*

IMF(2004), *Revision of the Balance of Payments Manual-Fifth edition*

Kommerkollegium(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s for Swedish Multinational Enterprises"

OECD(1996), *OECD Benchmark Defini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hird Edition*

OECD(2008), *OECD Benchmark Defini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ourth Edition*

부 록 표

1. 현지법인의 산업 중분류별³⁵⁾ 매출액

단위: 백만 달러

업종	2005	2006	2007	2008	2009
01	4.5	2.3	18.4	15.8	24.4
02	59.5	20.7	2.7	7.4	10.1
03	12.3	14.6	13.2	20.2	14.4
05	867.7	974.4	989.7	1,382.5	4,147.8
06	53.6	200.4	500.4	1,499.5	1,938.2
07	532.9	592.6	702.7	1,083.2	1,312.4
08		0.0	0.0	151.1	206.6
10	764.1	1,095.4	1,695.6	2,318.5	2,616.3
11	8.9	25.7	29.6	122.3	98.3
12		0.0	0.0	2.6	23.8
13	1,148.5	1,385.1	1,983.6	1,990.6	1,585.8
14	978.0	1,668.1	2,159.6	2,157.7	2,006.0
15	1,035.4	49,802.8	1,348.0	1,418.3	1,404.5
16	109.2	91.3	96.2	82.6	95.2
17	219.4	387.8	397.6	441.5	349.6
18	8.0	3.7	5.0	13.8	11.7
19	15,076.2	23,702.4	24,757.9	25,859.4	20,728.8
20	2,194.4	3,851.6	6,313.6	6,783.6	6,873.4
21	44.0	54.4	125.5	183.2	197.4
22	1,350.6	1,427.5	2,202.9	2,380.1	3,322.6
23	470.0	732.1	846.9	1,170.0	953.5
24	4,299.7	5,310.1	6,816.3	7,417.3	6,678.4
25	13,042.3	17,408.5	24,346.2	24,686.1	29,142.6
26	26,762.2	33,302.2	37,692.9	47,608.8	51,571.1
27	137.0	928.0	1,409.1	1,512.7	1,539.4
28	618.8	1,170.0	1,736.1	5,334.8	5,306.6
29	1,565.8	2,618.4	2,401.9	3,919.8	3,512.0
30	13,933.0	19,192.8	37,921.7	26,522.1	40,874.5
31	434.4	591.4	886.6	2,634.1	3,082.2
32	17.5	17.5	28.5	23.3	104.4
33	439.1	924.6	661.5	919.9	1,352.5
35	9.5	8.8	19.4	29.5	12.0
38				0.1	1.4
41	102.1	349.5	905.1	1,723.4	1,684.6

35) 산업 중분류명은 참고자료 1 참조(이하 동일)

업종	2005	2006	2007	2008	2009
42	0.0	1.9	58.1	543.1	128.8
45	19,886.2	23,218.4	27,214.8	24,391.9	24,767.5
46	2,748.4	3,185.7	3,801.4	8,640.0	8,391.8
47	84,250.7	93,529.8	108,702.7	132,912.0	124,347.9
49		0.7	10.4	12.4	12.6
50	934.6	2,626.4	3,645.9	5,277.7	1,989.9
51	253.9	338.0	354.3	531.7	442.7
52	1,285.8	4,344.8	5,951.1	6,186.9	5,980.9
55	162.8	186.7	259.8	302.6	218.6
56	7.3	11.7	19.9	22.1	26.1
58	199.3	201.3	407.5	613.4	454.3
59	32.0	18.1	1.9	45.1	49.9
60		7.6	0.6	25.9	32.2
61	45.9	70.1	148.0	1,545.2	84.5
62	14.4	14.4	178.2	246.4	244.4
63	20.6	15.8	16.8	109.5	80.6
64	15.8	0.0			0.0
66			0.1	0.0	
68	156.5	74.4	176.5	208.9	272.3
69	623.9	989.2	1,310.1	1,236.6	7,042.7
70		0.0	1.8	8.9	33.9
71	25.0	31.5	115.9	3,182.0	2,344.4
72	145.8	100.3	163.2	453.1	622.2
73	0.0		13.7	18.8	21.1
74			0.3	2.1	
75	5.8	65.2	554.6	555.2	606.5
85	1.6	5.4	14.1	20.7	22.4
86	1.1	0.9	184.3	3.7	3.2
87		0.0			
90		0.1			65.6
91	38.4	80.2	128.8	149.9	172.9
95		0.3	0.2	6.1	24.0
96	0.7	15.5	6.5	6.1	5.8
全산업	197,155.2	296,989.3	312,456.0	358,673.2	371,271.9

2. 현지법인의 산업 중분류별 영업이익

단위: 백만 달러

업종	2005	2006	2007	2008	2009
01	-0.2	-1.8	-0.9	-1.7	-3.6
02	3.6	1.8	0.2	0.0	1.7
03	-0.2	-0.9	-0.5	-0.5	-3.7
05	333.2	313.0	332.6	363.3	1,465.1
06	5.0	116.8	154.4	47.5	-163.4
07	150.5	90.1	162.3	416.7	487.9
08		-0.1	-0.5	44.0	22.7
10	6.8	-3.0	47.0	149.1	160.4
11	-0.6	-4.9	-6.2	-32.6	-36.8
12		0.0	-1.5	-7.4	-1.6
13	-32.1	-15.7	109.8	-7.4	62.8
14	4.5	35.8	51.7	-1.9	49.0
15	-20.2	327.7	22.5	12.2	29.5
16	6.6	2.4	-0.3	2.1	-2.6
17	-8.5	12.5	28.5	16.9	20.0
18	0.8	0.9	2.0	0.5	-2.7
19	34.5	22.2	11.6	57.1	132.8
20	70.1	156.1	-95.6	14.4	295.0
21	-19.4	-26.8	-46.3	-48.0	14.3
22	102.1	-1.6	48.4	-49.1	56.7
23	-98.6	-46.4	-18.3	-24.7	-66.1
24	24.2	251.9	142.3	246.3	42.2
25	268.8	436.8	617.5	418.1	1,246.9
26	540.7	524.2	1,111.5	916.1	2,025.1
27	-3.9	-1.7	37.0	26.5	58.8
28	-2.4	-0.3	-109.1	-93.0	154.0
29	23.8	69.7	139.9	64.3	117.7
30	193.0	191.3	639.4	686.8	1,995.9
31	29.3	-17.4	-87.1	-6.2	-241.6
32	0.0	-0.7	-1.9	-5.1	-1.9
33	-6.4	-2.3	1.1	3.2	17.3
35	-3.2	-4.4	-7.2	-10.9	-34.1
38				-0.3	-0.3
41	4.6	-12.7	10.1	99.8	82.6
42	0.0	0.5	4.0	156.6	-1.6
45	142.2	261.6	178.6	36.9	356.6

업종	2005	2006	2007	2008	2009
46	22.7	0.4	-53.8	-110.2	24.9
47	-85.6	687.5	1,337.4	990.5	754.9
49		-0.4	0.6	0.4	-1.5
50	63.4	135.5	180.4	-139.5	-197.4
51	13.8	11.6	-7.3	-28.9	-10.1
52	16.5	45.7	30.2	29.8	15.7
55	35.3	47.3	64.3	57.9	30.0
56	-1.5	-1.6	-6.6	-3.4	-5.8
58	-9.6	-37.3	-15.0	-64.7	6.7
59	-6.6	-4.6	-0.1	-4.9	-7.5
60		-2.7	-0.2	-1.2	-5.9
61	6.3	-1.8	38.4	17.3	-61.6
62	-0.6	0.2	2.7	0.7	3.9
63	2.7	-1.4	-20.5	-28.0	-25.7
64	14.7	-1.6			0.0
66			-0.4	-1.1	
68	38.8	14.0	21.4	-2.3	-75.0
69	-31.8	28.6	18.0	42.7	141.4
70		-10.0	-13.0	-28.2	-99.0
71	-41.1	-17.9	-8.1	-208.8	-447.2
72	-5.1	0.8	6.5	7.2	9.3
73	-0.7		-54.7	-28.4	-4.2
74			0.0	0.1	
75	-0.8	-0.1	17.8	12.6	29.4
85	-0.2	-2.8	-5.2	-9.7	-7.1
86	0.3	-0.4	-10.7	-2.2	-0.7
87		-0.1			
90		-0.2			-2.3
91	-4.4	-8.8	-13.4	-5.9	-7.1
95		-0.1	-0.3	-0.2	1.5
96	-0.9	-0.4	-1.3	-2.0	-1.7
총산업	1,774.1	3,554.0	4,984.0	3,978.9	8,392.8

3. 현지법인의 산업 중분류별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 달러

업종	2005	2006	2007	2008	2009
01	-0.4	-2.0	-1.6	-4.7	-4.5
02	1.6	-19.2	0.0	0.3	1.1
03	0.4	-0.7	-0.5	-2.0	-4.7
05	211.5	190.7	217.5	163.5	719.3
06	-60.8	32.0	101.7	38.6	190.5
07	83.3	54.4	83.7	215.4	277.1
08		-0.1	-1.0	14.4	-4.6
10	-18.9	-17.8	18.3	131.6	166.8
11	-0.9	-5.0	-7.8	-35.0	-41.2
12		-0.1	-1.8	-7.3	-3.4
13	-65.9	-51.9	109.7	-10.0	165.2
14	-18.3	11.3	20.7	-22.1	33.8
15	-22.2	298.3	9.8	-6.0	15.1
16	1.2	2.0	-2.2	-2.7	-3.3
17	-16.3	-21.3	15.6	6.8	12.4
18	0.7	0.9	1.9	0.3	-2.8
19	35.3	31.1	-14.4	32.6	102.4
20	22.5	90.3	-182.1	-225.0	-46.1
21	-21.9	-12.5	-77.6	-51.8	-0.1
22	99.1	-19.6	36.3	-100.9	-66.4
23	-117.4	-68.9	-112.8	-75.3	-237.9
24	-52.0	212.4	47.1	16.1	-72.2
25	191.4	353.0	527.5	273.6	1,188.2
26	237.9	402.8	827.7	153.9	1,906.9
27	25.0	-16.4	112.9	17.0	32.4
28	-7.2	-9.9	-115.6	-204.6	47.4
29	20.1	57.6	134.6	25.8	100.1
30	159.6	105.6	411.1	267.5	1,516.7
31	-0.5	1.1	-59.2	-156.5	-230.3
32	0.0	-0.8	-2.0	-5.2	-2.7
33	-4.2	-19.9	-3.5	-8.1	3.0
35	-3.9	-4.9	-9.4	-21.8	-47.1
38				-0.2	-0.2
41	0.4	-65.2	20.1	87.8	-16.0
42	0.0	-0.6	3.1	89.6	-3.6
45	38.7	110.3	79.8	-152.3	7.3

업종	2005	2006	2007	2008	2009
46	5.3	-34.0	17.4	-373.1	-190.8
47	-150.7	749.1	1,160.3	536.7	409.3
49		-0.4	0.8	0.8	-1.7
50	54.5	130.5	107.8	-107.3	-227.3
51	9.7	5.1	-8.1	-34.1	-8.3
52	8.7	17.3	8.4	-397.5	-23.0
55	33.4	23.6	64.3	25.6	-11.9
56	-1.5	-1.6	-6.6	-4.9	-6.7
58	-13.6	-49.4	-53.7	-116.0	-52.8
59	-12.9	-7.3	-0.1	-3.6	-7.3
60		-2.8	-0.3	-1.0	-5.8
61	5.0	-1.9	41.3	-264.8	-61.8
62	-3.5	0.2	22.1	3.4	3.9
63	2.6	-1.7	-21.9	-35.3	-35.1
64	14.7	-1.6			0.0
66			-0.4	-1.1	
68	14.9	14.7	81.1	-79.7	-156.6
69	-42.7	-22.6	0.4	-3.8	63.4
70		-6.9	-13.9	-29.5	-100.5
71	-38.8	-18.6	-41.0	-597.3	-678.8
72	0.1	-0.4	2.6	-10.0	-15.3
73	-0.5		-55.1	-31.3	-5.7
74			0.0	0.1	
75	-2.9	0.0	15.4	4.2	21.6
85	0.2	-2.1	-8.2	-9.9	-7.6
86	0.2	-0.4	-14.3	-2.3	-0.6
87		-0.1			
90		-0.1			-6.9
91	-8.3	48.3	-23.4	-18.3	-3.5
95		-0.9	-0.3	-1.1	0.8
96	-1.0	3.7	-2.8	-3.3	-2.8
총산업	590.7	2,457.0	3,459.1	-1,111.1	4,586.6

4. 2009년 산업 중분류별 수출입 현황

산업	기업수	수출		수입		수지
		백만 달러	비중 (%)	백만 달러	비중 (%)	백만 달러
全산업	3,654	130,350	100.0	55,966	100.0	74,384
01	26	1	0.0	6	0.0	-4
02	3	0	0.0	0	0.0	0
03	3	6	0.0	11	0.0	-5
05	86	307	0.2	257	0.5	50
06	20	0	0.0	47	0.1	-47
07	18	17	0.0	905	1.6	-888
08	9	0	0.0	2	0.0	-2
10	86	43	0.0	170	0.3	-128
11	6	3	0.0	16	0.0	-13
12	2	14	0.0	0	0.0	14
13	95	239	0.2	365	0.7	-126
14	153	457	0.4	929	1.7	-472
15	64	441	0.3	845	1.5	-404
16	9	6	0.0	20	0.0	-14
17	11	15	0.0	26	0.0	-11
18	5	1	0.0	7	0.0	-6
19	8	5,137	3.9	6,464	11.5	-1,327
20	171	957	0.7	486	0.9	471
21	26	38	0.0	6	0.0	32
22	55	1,081	0.8	1,076	1.9	5
23	46	54	0.0	158	0.3	-104
24	121	1,196	0.9	345	0.6	851
25	128	3,139	2.4	5,650	10.1	-2,510
26	396	15,695	12.0	15,216	27.2	479
27	51	397	0.3	729	1.3	-332
28	89	1,299	1.0	812	1.5	487
29	122	1,247	1.0	560	1.0	686
30	306	8,072	6.2	439	0.8	7,633
31	41	1,144	0.9	1,538	2.7	-394
32	10	7	0.0	15	0.0	-7
33	75	109	0.1	262	0.5	-153
35	18	0	0.0	0	0.0	0
38	1	1	0.0	0	0.0	1

산업	기업수	수출		수입		수지
		백만 달러	비중 (%)	백만 달러	비중 (%)	백만 달러
41	94	41	0.0	130	0.2	-89
42	17	3	0.0	14	0.0	-11
45	50	13,655	10.5	107	0.2	13,547
46	148	3,797	2.9	2,232	4.0	1,566
47	251	60,640	46.5	14,056	25.1	46,583
49	3	0	0.0	0	0.0	0
50	47	155	0.1	454	0.8	-299
51	9	49	0.0	68	0.1	-19
52	43	4,924	3.8	385	0.7	4,539
55	42	0	0.0	2	0.0	-2
56	17	0	0.0	0	0.0	0
58	60	13	0.0	17	0.0	-4
59	10	11	0.0	0	0.0	11
60	6	2	0.0	0	0.0	2
61	19	0	0.0	15	0.0	-15
62	7	0	0.0	8	0.0	-8
63	10	10	0.0	0	0.0	10
64	1	0	0.0	0	0.0	0
68	272	0	0.0	0	0.0	0
69	84	5,556	4.3	237	0.4	5,319
70	17	7	0.0	5	0.0	2
71	49	0	0.0	797	1.4	-796
72	18	358	0.3	31	0.1	327
73	6	0	0.0	1	0.0	-1
75	21	0	0.0	19	0.0	-19
85	16	0	0.0	10	0.0	-10
86	5	0	0.0	0	0.0	0
90	1	0	0.0	0	0.0	0
91	55	3	0.0	3	0.0	0
95	4	0	0.0	10	0.0	-10

5. 현지법인의 산업 중분류별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산업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90,985	98,717	120,630	127,020	130,350
01	0	0	0	1	1
02	0	0	0	0	0
03	10	4	10	10	6
05	13	24	261	1	307
06	0	0	0	0	0
07	0	0	0	0	17
08	-	0	0	0	0
10	6	93	29	17	43
11	0	0	0	0	3
12	-	0	0	4	14
13	275	255	373	425	239
14	403	471	579	533	457
15	372	205	466	414	441
16	21	14	16	19	6
17	25	19	20	22	15
18	0	0	0	0	1
19	11,963	5,982	7,637	10,192	5,137
20	423	547	816	919	957
21	1	26	25	21	38
22	442	591	841	602	1,081
23	4	25	72	133	54
24	1,765	1,429	1,395	1,237	1,196
25	2,037	2,887	4,265	3,661	3,139
26	12,685	14,811	15,807	14,844	15,695
27	40	428	430	816	397
28	281	428	573	910	1,299
29	696	1,065	975	1,490	1,247
30	7,443	8,970	7,594	6,447	8,072
31	80	281	271	1,088	1,144
32	4	0	6	7	7
33	102	156	125	186	109
제조업	39,068	38,681	42,316	43,989	40,791
35	0	0	0	0	0
38	-	-	-	0	1
41	0	0	5	4	41
42	0	0	2	5	3

산업	2005	2006	2007	2008	2009
45	14,516	12,694	18,192	16,631	13,655
46	959	1,324	1,061	2,616	3,797
47	35,228	43,643	53,128	57,933	60,640
49	-	0	0	0	0
50	275	16	6	65	155
51	0	6	44	63	49
52	766	2,090	5,408	5,232	4,924
55	0	0	3	0	0
56	0	0	0	0	0
58	14	11	6	10	13
59	21	12	0	16	11
60	-	0	0	3	2
61	0	5	2	0	0
62	0	0	0	0	0
63	0	0	2	36	10
64	0	0	-	-	0
66	-	-	0	0	-
68	0	0	0	0	0
69	49	82	111	144	5,556
70	-	0	0	0	7
71	0	0	0	16	0
72	66	124	27	238	358
73	0	-	0	0	0
74	-	-	0	0	-
75	0	0	39	7	0
85	0	0	0	0	0
86	0	0	0	0	0
87	-	0	-	-	-
90	-	0	-	-	0
91	0	0	9	0	3
95	-	0	0	0	0
96	0	0	0	0	0
서비스	51,894	60,007	78,044	83,019	89,227

6. 현지법인의 업종 중분류별 수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산업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25,137	39,340	44,500	59,161	55,966
1	3	1	8	4	6
2	1	0	0	0	0
3	10	12	12	16	11
5	189	141	103	290	257
6	0	0	0	0	47
7	290	256	203	619	905
8	-	0	0	1	2
10	17	52	59	89	170
11	0	0	1	0	16
12	-	0	0	0	0
13	279	323	412	551	365
14	646	1,050	1,183	1,113	929
15	317	191	758	675	845
16	17	27	21	29	20
17	14	6	8	15	26
18	0	2	4	8	7
19	0	14,751	12,961	11,863	6,464
20	154	247	351	414	486
21	8	9	6	4	6
22	121	124	211	295	1,076
23	95	87	95	132	158
24	427	402	341	519	345
25	1,187	1,380	1,623	3,162	5,650
26	3,681	5,720	7,150	12,804	15,216
27	39	452	694	745	729
28	34	145	369	254	812
29	237	574	650	770	560
30	265	375	487	679	439
31	136	246	196	1,319	1,538
32	5	2	21	10	15
33	51	158	200	241	262
제조업	7,727	26,322	27,802	35,691	36,135
35	0	0	0	0	0
38	-	-	-	0	0
41	0	4	12	18	130

산업	2005	2006	2007	2008	2009
42	0	0	0	290	14
45	72	96	94	107	107
46	265	229	300	2,265	2,232
47	16,164	11,628	15,173	18,487	14,056
49	-	0	0	0	0
50	52	231	243	518	454
51	0	4	20	74	68
52	179	173	172	361	385
55	0	0	4	5	2
56	0	1	0	0	0
58	2	2	1	10	17
59	0	1	0	0	0
60	-	0	0	0	0
61	8	5	0	1	15
62	1	0	1	8	8
63	0	0	0	0	0
64	15	0	-	-	0
66	-	-	0	0	-
68	0	0	0	0	0
69	148	213	263	326	237
70	-	0	1	1	5
71	8	0	13	16	797
72	3	13	7	10	31
73	0	-	0	1	1
74	-	-	0	0	-
75	0	8	63	29	19
85	0	1	2	12	10
86	0	0	0	0	0
87	-	0	-	-	-
90	-	0	-	-	0
91	0	0	0	0	3
95	-	0	0	0	10
96	0	0	0	0	0
서비스	16,917	12,608	16,371	22,540	18,603

7. 현지법인의 산업 중분류별 수출입 구조 추이

단위: %

산업	수출 비중					수입비중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5	0.0	0.0	0.2	0.0	0.2	0.8	0.4	0.2	0.5	0.5
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7	0.0	0.0	0.0	0.0	0.0	1.2	0.7	0.5	1.0	1.6
10	0.0	0.1	0.0	0.0	0.0	0.1	0.1	0.1	0.2	0.3
1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3	0.3	0.3	0.3	0.3	0.2	1.1	0.8	0.9	0.9	0.7
14	0.4	0.5	0.5	0.4	0.4	2.6	2.7	2.7	1.9	1.7
15	0.4	0.2	0.4	0.3	0.3	1.3	0.5	1.7	1.1	1.5
16	0.0	0.0	0.0	0.0	0.0	0.1	0.1	0.0	0.0	0.0
17	0.0	0.0	0.0	0.0	0.0	0.1	0.0	0.0	0.0	0.0
1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9	13.1	6.1	6.3	8.0	3.9	0.0	37.5	29.1	20.1	11.5
20	0.5	0.6	0.7	0.7	0.7	0.6	0.6	0.8	0.7	0.9
2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2	0.5	0.6	0.7	0.5	0.8	0.5	0.3	0.5	0.5	1.9
23	0.0	0.0	0.1	0.1	0.0	0.4	0.2	0.2	0.2	0.3
24	1.9	1.4	1.2	1.0	0.9	1.7	1.0	0.8	0.9	0.6
25	2.2	2.9	3.5	2.9	2.4	4.7	3.5	3.6	5.3	10.1
26	13.9	15.0	13.1	11.7	12.0	14.6	14.5	16.1	21.6	27.2
27	0.0	0.4	0.4	0.6	0.3	0.2	1.1	1.6	1.3	1.3
28	0.3	0.4	0.5	0.7	1.0	0.1	0.4	0.8	0.4	1.5
29	0.8	1.1	0.8	1.2	1.0	0.9	1.5	1.5	1.3	1.0
30	8.2	9.1	6.3	5.1	6.2	1.1	1.0	1.1	1.1	0.8
31	0.1	0.3	0.2	0.9	0.9	0.5	0.6	0.4	2.2	2.7
3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3	0.1	0.2	0.1	0.1	0.1	0.2	0.4	0.4	0.4	0.5
제조업	42.9	39.2	35.1	34.6	31.3	30.7	66.9	62.5	60.3	64.6
3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42	0.0	0.0	0.0	0.0	0.0	0.0	0.0	0.0	0.5	0.0
45	16.0	12.9	15.1	13.1	10.5	0.3	0.2	0.2	0.2	0.2
46	1.1	1.3	0.9	2.1	2.9	1.1	0.6	0.7	3.8	4.0

산업	수출 비중					수입비중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	2006	2007	2008	2009
47	38.7	44.2	44.0	45.6	46.5	64.3	29.6	34.1	31.2	25.1
50	0.3	0.0	0.0	0.1	0.1	0.2	0.6	0.5	0.9	0.8
51	0.0	0.0	0.0	0.0	0.0	0.0	0.0	0.0	0.1	0.1
52	0.8	2.1	4.5	4.1	3.8	0.7	0.4	0.4	0.6	0.7
5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5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5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5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9	0.1	0.1	0.1	0.1	4.3	0.6	0.5	0.6	0.6	0.4
71	0.0	0.0	0.0	0.0	0.0	0.0	0.0	0.0	0.0	1.4
72	0.1	0.1	0.0	0.2	0.3	0.0	0.0	0.0	0.0	0.1
75	0.0	0.0	0.0	0.0	0.0	0.0	0.0	0.1	0.0	0.0
8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8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9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9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서비스	57.0	60.8	64.7	65.4	68.5	67.3	32.0	36.8	38.1	33.2

8. 현지법인의 산업 중분류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산업	2005	2006	2007	2008	2009
全산업	65,847	59,377	76,130	67,859	74,384
1	-3	0	-8	-2	-4
2	-1	0	0	0	0
3	-1	-8	-2	-6	-5
5	-176	-117	157	-289	50
6	0	0	0	0	-47
7	-290	-256	-203	-619	-888
10	-11	41	-30	-72	-128
11	0	0	-1	0	-13
13	-4	-68	-39	-126	-126
14	-244	-580	-604	-580	-472
15	56	14	-292	-262	-404
16	4	-13	-6	-10	-14
17	11	13	12	7	-11
18	0	-2	-4	-8	-6
19	11,963	-8,769	-5,324	-1,670	-1,327
20	269	300	465	505	471
21	-7	17	19	17	32
22	322	467	630	307	5
23	-91	-62	-23	2	-104
24	1,338	1,027	1,054	718	851
25	851	1,507	2,642	498	-2,510
26	9,005	9,091	8,657	2,040	479
27	1	-24	-264	71	-332
28	247	283	205	656	487
29	460	491	325	720	686
30	7,178	8,595	7,107	5,768	7,633
31	-56	35	75	-231	-394
32	-1	-2	-16	-3	-7
33	51	-2	-75	-55	-153
제조업	31,341	12,359	14,513	8,297	4,656
35	0	0	0	0	0
41	0	-4	-7	-14	-89
42	0	0	2	-286	-11
45	14,444	12,598	18,098	16,524	13,547
46	694	1,095	761	352	1,566

산업	2005	2006	2007	2008	2009
47	19,064	32,015	37,955	39,447	46,583
50	223	-215	-238	-453	-299
51	0	2	23	-11	-19
52	587	1,917	5,236	4,870	4,539
55	0	0	-1	-5	-2
56	0	-1	0	0	0
58	12	9	5	0	-4
59	21	10	0	16	11
61	-8	0	2	-1	-15
62	-1	0	-1	-8	-8
63	0	0	2	36	10
68	0	0	0	0	0
69	-99	-131	-152	-183	5,319
71	-8	0	-13	0	-796
72	63	111	20	228	327
75	0	-8	-25	-23	-19
85	0	-1	-2	-12	-10
86	0	0	0	0	0
91	0	0	9	0	0
96	0	0	0	0	0
서비스	34,978	47,399	61,673	60,479	70,624

9. 산업 중분류별 對중국 현지법인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산업	2005	2006	2007	2008	2009
全산업	14,058	17,004	18,780	19,903	18,943
1	0	0	0	1	1
2		0	0	0	
3	10	4	10	10	6
5		0	0	0	0
6			0	0	0
7			0	0	0
10	1	6	3	1	1
11	0	0	0	0	0
13	194	143	262	291	157
14	123	190	290	288	132
15	207	65	284	230	184
16	5	2	2	1	5
17	25	19	19	22	15
18	0	0	0	0	1
19	0	0	0	0	0
20	140	350	528	567	525
21		8	10	10	27
22	82	135	372	103	70
23	0	9	14	7	25
24	1,409	1,184	776	571	481
25	585	1,473	1,501	1,418	861
26	8,625	9,209	9,447	8,928	9,062
27	28	400	376	739	330
28	253	263	289	224	665
29	398	641	781	950	948
30	1,811	2,377	2,661	3,246	2,715
31	49	103	45	482	384
32	4	0	5	6	4
33	7	50	96	122	36
제조업	13,945	16,628	17,760	18,208	16,629
35	0	0	0	0	
41	0	0	0	3	14
42	0	0	0	0	0
45	0	153	682	654	711
46	47	77	165	861	1,317
47	20	97	66	62	164

산업	2005	2006	2007	2008	2009
49		0	0	0	0
50	0	8	0	0	0
51	0	6	44	63	47
52	0	0	0	13	25
55	0	0	0	0	0
56	0	0	0	0	0
58	12	7	0	0	2
59		0	0	0	0
61	0			0	0
62				0	0
63				0	0
64		0			
66			0	0	
68	0	0	0	0	0
69	24	25	14	16	24
70				0	0
71	0	0	0	0	0
72	1		0	4	2
75	0	0	39	6	0
85	0	0	0	0	0
86	0	0	0	0	0
91	0	0	0	0	0
95			0		0
96	0	0	0	0	0
서비스	103	372	1,010	1,683	2,307

10. 산업 중분류별 對중국 현지법인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산업	2005	2006	2007	2008	2009
全산업	4,932	8,639	11,031	20,955	25,259
1	1	0	7	3	4
2		0	0	0	
3	10	9	12	10	7
5		0	0	0	0
6			0	0	0
7			0	0	0
10	17	44	28	33	27
11	0	0	0	0	0
13	138	191	204	320	216
14	190	446	566	459	266
15	191	95	505	332	309
16	9	15	7	15	8
17	14	6	7	15	26
18	0	2	4	8	7
19	0	0	0	6	5
20	69	141	246	251	320
21		0	1	2	4
22	118	119	208	287	240
23	95	87	86	132	144
24	146	96	155	320	247
25	655	1,149	691	2,321	4,047
26	2,530	4,268	5,627	11,638	14,087
27	39	449	690	744	726
28	19	97	291	201	641
29	231	563	628	750	531
30	261	326	473	652	417
31	98	193	62	845	769
32	3	2	21	9	15
33	30	126	165	199	138
제조업	4,854	8,417	10,666	19,538	23,190
35	0	0	0	0	
41	0	0	0	6	55
42	0	0	0	0	0
45	0	0	0	0	0
46	0	25	119	1,070	1,629
47	28	110	76	136	141

산업	2005	2006	2007	2008	2009
49		0	0	0	0
50	12	40	48	46	46
51	0	4	16	74	67
52	0	2	2	0	4
55	0	0	0	0	0
56	0	0	0	0	0
58	0	2	1	0	0
59		0	0	0	0
61	8			0	0
62				8	8
63				0	0
64		0			
66			0	0	
68	0	0	0	0	0
69	18	28	34	42	54
70				0	0
71	0	0	0	1	38
72	0		0	6	5
75	0	2	49	15	1
85	0	0	0	0	0
86	0	0	0	0	0
91	0	0	0	0	0
95			0		10
96	0	0	0	0	0
서비스	67	213	345	1,403	2,057

11. 산업 중분류별 對중국 현지법인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산업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산업	25,137	39,340	44,500	59,161	55,966
1	0	0	-7	-1	-3
2		0	0	0	
3	-1	-6	-2	-1	-1
5		0	0	0	0
6			0	0	0
7			0	0	0
10	-16	-38	-26	-32	-26
11	0	0	0	0	0
13	56	-48	58	-29	-58
14	-66	-256	-276	-170	-134
15	15	-30	-221	-103	-125
16	-4	-13	-6	-14	-3
17	11	12	12	7	-11
18	0	-2	-4	-8	-6
19	0	0	0	-6	-5
20	70	209	282	317	205
21		8	9	8	23
22	-37	16	164	-184	-171
23	-95	-78	-73	-125	-119
24	1,262	1,088	620	251	234
25	-71	324	810	-903	-3,186
26	6,095	4,941	3,820	-2,709	-5,025
27	-11	-49	-315	-4	-395
28	234	166	-2	23	24
29	168	78	153	200	417
30	1,550	2,051	2,188	2,594	2,298
31	-48	-90	-17	-363	-385
32	1	-2	-16	-3	-11
33	-23	-76	-69	-76	-101
제조업	9,090	8,212	7,094	-1,330	-6,562
35	0	0	0	0	
41	0	0	0	-3	-41
42	0	0	0	0	0
45	0	153	682	653	711
46	46	52	46	-209	-312

산업	2005	2006	2007	2008	2009
47	-8	-14	-10	-74	24
49		0	0	0	0
50	-12	-32	-48	-46	-46
51	0	2	28	-11	-21
52	0	-2	-2	13	21
55	0	0	0	0	0
56	0	0	0	0	0
58	12	5	-1	0	2
59		0	0	0	0
61	-8			0	0
62				-8	-8
63				0	0
64		0			
66			0	0	
68	0	0	0	0	0
69	6	-3	-20	-26	-30
70				0	0
71	0	0	0	-1	-37
72	0		0	-2	-4
75	0	-2	-10	-9	-1
85	0	0	0	0	0
86	0	0	0	0	0
91	0	0	0	0	0
95			0		-10
96	0	0	0	0	0
서비스	37	159	664	280	250

12. 산업 중분류별 對베트남 현지법인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업종	수출					수입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산업	369	380	721	738	1,496	254	328	625	850	2,038
1	-	-	-	0	-	-	-	-	0	-
10	0	3	1	2	2	0	0	5	1	16
13	4	22	34	47	31	15	34	56	107	37
14	45	54	33	75	122	69	168	164	206	272
15	139	98	129	134	191	92	42	184	273	464
17	-	0	0	0	-	-	0	1	0	-
18	-	-	-	-	0	-	-	-	-	0
20	5	13	14	46	66	0	0	0	25	30
21	1	3	5	3	3	0	0	0	0	0
22	-	2	0	4	495	-	0	1	3	830
23	-	-	0	0	0	-	-	0	0	0
24	21	34	128	45	29	9	1	49	17	10
25	21	36	95	69	38	0	2	57	80	62
26	74	49	18	55	113	25	18	13	8	4
27	0	1	0	5	6	0	1	1	0	0
28	0	0	74	3	43	0	1	42	6	73
29	1	17	52	13	53	0	0	0	0	7
30	30	9	85	146	167	0	0	0	2	1
31	27	40	44	84	116	38	52	36	93	208
32	-	0	0	2	-	-	0	0	2	-
33	0	0	7	2	14	6	7	14	23	16
제조업	369	380	719	734	1,489	254	328	625	845	2,031
38	-	-	-	0	1	-	-	-	0	0
41	-	0	0	0	0	-	0	0	0	0
42	-	0	2	4	3	-	0	0	2	2
46	-	-	0	0	0	-	-	0	0	2
47	-	-	-	0	0	-	-	-	2	2
50	-	-	-	-	0	-	-	-	-	0
51	-	-	-	-	2	-	-	-	-	0
52	-	-	0	0	0	-	-	0	0	0
55	0	0	0	0	0	0	0	0	0	0
56	-	-	0	0	0	-	-	0	0	0
58	-	-	-	0	0	-	-	-	0	0
59	-	-	-	0	0	-	-	-	0	0
68	0	0	0	0	0	0	0	0	0	0
69	-	-	-	0	0	-	-	-	0	0
70	-	-	-	-	0	-	-	-	-	0
75	-	0	0	-	-	-	0	0	-	-
91	0	0	0	0	0	0	0	0	0	0
서비스	0	0	2	4	7	0	0	0	4	7

13. 산업 중분류별 對베트남 현지법인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산업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산업	25,137	39,340	44,500	59,161	55,966
1	0	0	-7	-1	-3
2		0	0	0	
3	-1	-6	-2	-1	-1
5		0	0	0	0
6			0	0	0
7			0	0	0
10	-16	-38	-26	-32	-26
11	0	0	0	0	0
13	56	-48	58	-29	-58
14	-66	-256	-276	-170	-134
15	15	-30	-221	-103	-125
16	-4	-13	-6	-14	-3
17	11	12	12	7	-11
18	0	-2	-4	-8	-6
19	0	0	0	-6	-5
20	70	209	282	317	205
21		8	9	8	23
22	-37	16	164	-184	-171
23	-95	-78	-73	-125	-119
24	1,262	1,088	620	251	234
25	-71	324	810	-903	-3,186
26	6,095	4,941	3,820	-2,709	-5,025
27	-11	-49	-315	-4	-395
28	234	166	-2	23	24
29	168	78	153	200	417
30	1,550	2,051	2,188	2,594	2,298
31	-48	-90	-17	-363	-385
32	1	-2	-16	-3	-11
33	-23	-76	-69	-76	-101
제조업	9,090	8,212	7,094	-1,330	-6,562
35	0	0	0	0	
41	0	0	0	-3	-41
42	0	0	0	0	0
45	0	153	682	653	711
46	46	52	46	-209	-312

산업	2005	2006	2007	2008	2009
47	-8	-14	-10	-74	24
49		0	0	0	0
50	-12	-32	-48	-46	-46
51	0	2	28	-11	-21
52	0	-2	-2	13	21
55	0	0	0	0	0
56	0	0	0	0	0
58	12	5	-1	0	2
59		0	0	0	0
61	-8			0	0
62				-8	-8
63				0	0
64		0			
66			0	0	
68	0	0	0	0	0
69	6	-3	-20	-26	-30
70				0	0
71	0	0	0	-1	-37
72	0		0	-2	-4
75	0	-2	-10	-9	-1
85	0	0	0	0	0
86	0	0	0	0	0
91	0	0	0	0	0
95			0		-10
96	0	0	0	0	0
서비스	37	159	664	280	250

14. 對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수출입 추이

구분		기업수	수출		수입		수지
			백만달러	비중 (%)	백만달러	비중 (%)	백만달러
全 산 업	2009	125	946	15.8	2,580	27.9	-1,634
	2008	120	1,034	13.0	1,175	10.4	-142
	2007	92	855	14.8	1,328	14.6	-473
	2006	80	730	15.0	673	7.6	58
	2005	43	410	8.1	919	11.2	-509
제 조 업	2009	81	922	15.4	1,506	16.3	-584
	2008	83	1,029	13.0	538	4.8	491
	2007	67	853	14.8	1,124	12.3	-271
	2006	63	727	14.9	417	4.7	311
	2005	33	408	8.1	609	7.4	-201

15. 對홍콩 현지법인 수출입 추이

구분		기업수	수출		수입		수지
			백만달러	비중 (%)	백만달러	비중 (%)	백만달러
全 산 업	2009	137	7,363	37.4	3,497	235.1	3,866
	2008	122	8,382	42.4	4,672	210.2	3,710
	2007	97	7,280	39.0	2,617	122.2	4,662
	2006	75	8,888	46.8	2,481	118.1	6,407
	2005	61	6,655	42.9	6,186	302.8	469
제 조 업	2009	48	1,027	5.2	425	28.6	602
	2008	50	1,179	6.0	986	44.3	194
	2007	46	543	2.9	494	23.0	49
	2006	36	240	1.3	291	13.9	-51
	2005	26	228	1.5	51	2.5	177

16. 對인도 현지법인 수출입추이

구분		기업수	수출		수입		수지
			백만달러	비중 (%)	백만달러	비중 (%)	백만달러
全 산 업	2009	72	1,080	13.5	83	2.0	997
	2008	56	1,136	12.7	408	6.2	728
	2007	53	1,444	21.9	58	1.2	1,386
	2006	20	832	15.0	59	1.6	773
	2005	10	252	5.5	0	0.0	252
제 조 업	2009	57	1,045	13.0	15	0.4	1,030
	2008	45	1,059	11.8	20	0.3	1,040
	2007	44	1,399	21.2	3	0.1	1,396
	2006	18	818	14.8	44	1.2	774
	2005	9	252	5.5	0	0.0	252

17. 對대만 현지법인 수출입추이

구분		기업수	수출		수입		수지
			백만달러	비중 (%)	백만달러	비중 (%)	백만달러
全 산 업	2009	27	9,731	102.4	1,038	10.5	8,693
	2008	25	10,476	91.4	896	8.4	9,580
	2007	22	11,753	90.2	832	8.3	10,921
	2006	18	8,327	64.1	696	7.5	7,631
	2005	11	4,925	45.3	369	4.6	4,556
제 조 업	2009	10	37	0.4	8	0.1	28
	2008	11	7	0.1	0	0.0	7
	2007	9	11	0.1	0	0.0	10
	2006	7	50	0.5	0	0.0	50
	2005	3	2	0.0	0	0.0	2

18. 對슬로바키아 현지법인 수출입추이

구분		기업수	수출		수입		수지
			백만달러	비중 (%)	백만달러	비중 (%)	백만달러
全 산 업	2009	31	1,403	44.7	38	60.4	1,364
	2008	30	421	12.2	320	396.9	101
	2007	22	2,455	90.7	0	0.5	2,455
	2006	15	35	2.8	0	0.4	35
	2005	10	405	58.5	0	0.0	405
제 조 업	2009	29	1,402	44.7	38	60.4	1,364
	2008	28	421	12.2	320	396.8	101
	2007	20	2,455	90.7	0	0.1	2,455
	2006	13	35	2.8	0	0.0	35
	2005	8	403	58.2	0	0.0	403

19. 對오스트레일리아 현지법인 수출입추이

구분		기업수	수출		수입		수지
			백만달러	비중 (%)	백만달러	비중 (%)	백만달러
全 산 업	2009	40	2,523	48.1	31	0.2	2,492
	2008	38	1,866	36.1	66	0.4	1,800
	2007	32	1,967	41.9	36	0.3	1,931
	2006	30	1,599	34.1	54	0.5	1,545
	2005	17	868	22.8	61	0.6	807
제 조 업	2009	2	284	5.4	0	0.0	284
	2008	5	305	5.9	5	0.0	300
	2007	6	360	7.7	8	0.1	352
	2006	6	215	4.6	5	0.0	210
	2005	4	1	0.0	0	0.0	1

20. 對폴란드 현지법인 수출입추이

구분		기업수	수출		수입		수지
			백만달러	비중 (%)	백만달러	비중 (%)	백만달러
全 산 업	2009	32	1,299	31.3	108	46.0	1,191
	2008	24	2,057	50.0	185	60.3	1,872
	2007	24	2,132	60.8	275	91.3	1,857
	2006	17	1,415	54.1	143	53.0	1,271
	2005	6	837	71.2	105	90.3	732
제 조 업	2009	31	1,286	31.0	108	46.0	1,178
	2008	23	1,050	25.5	185	60.3	865
	2007	23	1,354	38.6	275	91.3	1,079
	2006	16	1,273	48.7	143	53.0	1,130
	2005	5	717	61.0	105	90.3	612

21. 모기업 산업 중분류별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산업	2005	2006	2007	2008	2009
全산업	90,598	98,258	120,258	126,604	129,823
00	123	274	1,142	1,109	1,394
01	0	0	0	1	1
03	10	4	10	23	15
05	11,963	5,982	7,637	10,468	5,205
06	0	0	0	0	0
08	0	0	0	0	0
10	26	123	81	91	101
11	0	0	0	0	3
12	0	0	0	4	14
13	50	75	79	99	81
14	63	50	49	94	140
15	272	255	599	507	438
16	0	1	5	0	1
17	23	154	152	154	9
18	36	11	5	1	727
19	460	632	817	887	1,146
20	559	475	712	722	498
21	2	13	17	19	38
22	1,375	1,808	2,503	2,487	2,504
23	14	13	26	36	62
24	2,641	2,749	3,515	3,464	2,764
25	505	1,075	1,795	1,307	1,371
26	33,185	38,741	51,710	63,031	68,666
27	883	1,041	520	793	138
28	6,585	11,101	13,845	7,905	16,983
29	949	1,413	510	1,986	1,422
30	21,013	20,598	25,061	22,390	20,410
31	201	609	678	1,344	1,031
32	959	968	9	18	5
33	196	679	813	763	728
제조업	69,999	82,584	103,499	108,104	119,278
35	152	177	1	1	71
41	0	0	4	41	17
42	0	0	32	1	0
45	0	0	17	9	0
46	5,386	6,079	5,439	4,258	2,034

산업	2005	2006	2007	2008	2009
47	1,605	2,119	2,156	2,065	1,122
49	0	0	0	0	0
50	275	7	0	68	153
52	0	15	89	91	87
55	0	0	0	0	0
56	0	0	0	0	0
58	4	2	13	29	23
60	0	1	0	3	2
61	5	8	11	0	6
62	16	20	35	41	44
63	0	1	1	1	1
66	0	0	0	0	0
68	0	0	5	9	11
70	0	1	0	0	3
71	2	13	12	21	54
72	0	0	0	0	0
73	0	0	6	19	12
75	0	3	0	147	105
86	0	24	22	10	11
91	0	0	0	0	0
95	0	0	0	0	0
96	34	60	101	44	149
97	0	0	25	17	2
서비스	8,504	9,413	7,969	6,898	3,930

22. 모기업 산업 중분류별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산업	2005	2006	2007	2008	2009
全산업	24,969	39,132	44,217	58,745	55,578
00	149	437	886	1,055	1,045
01	0	0	4	3	3
03	10	9	16	49	27
05	6	14,760	12,869	11,909	6,553
06	29	17	16	17	18
08	0	11	0	0	0
10	20	103	232	228	226
11	0	0	0	0	16
12	0	0	0	0	0
13	76	95	121	150	161
14	76	98	144	146	180
15	261	346	939	782	873
16	4	3	12	5	5
17	26	18	16	29	37
18	29	62	0	0	758
19	113	193	196	212	397
20	238	322	272	310	273
21	1	1	2	2	3
22	145	157	268	621	1,843
23	14	10	24	84	140
24	1,388	643	1,587	1,679	1,069
25	163	786	1,348	745	792
26	9,714	10,773	15,718	25,549	25,427
27	82	441	651	720	690
28	1,414	3,035	1,044	4,120	6,823
29	327	573	679	1,045	637
30	216	326	558	840	576
31	86	189	147	1,067	1,612
32	254	61	22	7	16
33	189	395	433	527	579
제조업	14,834	18,628	24,415	38,868	43,133
35	22	45	6	6	218
41	0	0	2	4	48
42	8	6	41	1	4
45	0	0	9	1	0
46	8,558	3,625	4,428	4,718	2,932

산업	2005	2006	2007	2008	2009
47	824	916	898	877	363
49	0	0	0	0	0
50	228	397	391	954	820
52	2	14	108	71	87
55	0	0	0	0	0
56	0	0	0	0	0
58	2	2	14	2	50
60	0	0	0	0	0
61	8	7	0	1	75
62	7	2	3	8	8
63	0	0	0	0	0
66	0	0	0	0	0
68	0	0	5	2	12
70	0	3	0	0	3
71	16	1	1	15	25
72	0	0	0	0	0
73	0	0	4	7	10
75	0	1	2	4	87
86	0	6	16	56	9
91	0	0	0	0	0
95	0	0	0	0	0
96	26	32	38	51	19
97	8	7	42	49	1
서비스	9,941	5,267	6,011	6,844	4,799

23. 모기업 산업 중분류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산업	2005	2006	2007	2008	2009
全산업	65,629	59,126	76,041	67,859	74,245
00	-26	-163	256	54	349
01	0	0	-4	-2	-2
03	0	-5	-6	-26	-12
05	11,957	-8,778	-5,232	-1,441	-1,348
06	-29	-17	-16	-17	-18
08	0	-11	0	0	0
10	6	20	-151	-137	-125
11	0	0	0	0	-13
12	0	0	0	4	14
13	-26	-20	-42	-51	-80
14	-13	-48	-95	-52	-40
15	11	-91	-340	-275	-435
16	-4	-2	-7	-5	-4
17	-3	136	136	125	-28
18	7	-51	5	1	-31
19	347	439	621	675	749
20	321	153	440	412	225
21	1	12	15	17	35
22	1,230	1,651	2,235	1,866	661
23	0	3	2	-48	-78
24	1,253	2,106	1,928	1,785	1,695
25	342	289	447	562	579
26	23,471	27,968	35,992	37,482	43,239
27	801	600	-131	73	-552
28	5,171	8,066	12,801	3,785	10,160
29	622	840	-169	941	785
30	20,797	20,272	24,503	21,550	19,834
31	115	420	531	277	-581
32	705	907	-13	11	-11
33	7	284	380	236	149
제조업	55,165	63,956	79,084	69,236	76,145
35	130	132	-5	-5	-147
41	0	0	2	37	-31
42	-8	-6	-9	0	-4
45	0	0	8	8	0
46	-3,172	2,454	1,011	-460	-898

산업	2005	2006	2007	2008	2009
47	781	1,203	1,258	1,188	759
49	0	0	0	0	0
50	47	-390	-391	-886	-667
52	-2	1	-19	20	0
55	0	0	0	0	0
56	0	0	0	0	0
58	2	0	-1	27	-27
60	0	1	0	3	2
61	-3	1	11	-1	-69
62	9	18	32	33	36
63	0	1	1	1	1
66	0	0	0	0	0
68	0	0	0	7	-1
70	0	-2	0	0	0
71	-14	12	11	6	29
72	0	0	0	0	0
73	0	0	2	12	2
75	0	2	-2	143	18
86	0	18	6	-46	2
91	0	0	0	0	0
95	0	0	0	0	0
96	8	28	63	-7	130
97	-8	-7	-17	-32	1
서비스	-1,437	4,146	1,958	54	-869

참고자료

참고자료 1. 표준산업 분류표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01	농업	Agriculture
02	임업	Forestry
03	어업	Fishing
B 광업(05~08) Mining and quarrying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Mining of Coal,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06	금속 광업	Mining of Metal Ores
07	비금속광물 광물; 연료용 제외	Mining of Non-metallic Minerals, Except Fuel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Mining support service activities
C 제조업 (10~33) Manufacturing		
10	식품 제조업	Manufacture of Food Products
11	음료 제조업	Manufacture of Beverages
12	담배 제조업	Manufacture of Tobacco Products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Manufacture of Textiles, Except Apparel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wearing apparel, Clothing Accessories and Fur Articles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Tanning and Dressing of Leather, Manufacture of Luggage and Footwear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Manufacture of Wood Products of Wood and Cork; Except Furniture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Pulp, Paper and Paper Products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Printing and Reproduction of Recorded Media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Coke, hard-coal and lignite fuel briquettes and Refined Petroleum Products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Manufacture of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except pharmaceuticals, medicinal chemicals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Manufacture of Pharmaceuticals, Medicinal Chemicals and Botanical Products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Rubber and Plastic Products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24	1차 금속 제조업	Manufacture of Basic Metal Products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Manufacture of Fabricated Metal Products, Except Machinery and Furniture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Manufacture of Electronic Components, Computer, Radio, Televis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and Apparatuses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Manufacture of Medical, Precision and Optical Instruments, Watches and Clocks
28	전기장비 제조업	Manufacture of electrical equipment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Manufacture of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Transport Equipment
32	가구 제조업	Manufacture of Furniture
33	기타 제품 제조업	Other manufacturing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y36) Electricity, gas, steam and water supply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36	수도사업	Water Supply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Sewerage, waste management, materials recovery and remediation activities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Sewage, Wastewater and Human Waste Treatment Services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재료 재생업	Waste Collection, Disposal and Materials Recovery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Remediation activities and other waste management services
F 건설업(41~42) Construction		
41	종합 건설업	General Construction
42	전문직별 공사업	Special Trade Construction
G 도매 및 소매업(45~47) Wholesale and retail trade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Sale of Motor Vehicles and Parts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Wholesale Trade and Commission Trade, Except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Retail Trade, Except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H 운수업 (49~52) Transportation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Land Transport ; Transport Via Pipelines
50	수상 운송업	Water Transport
51	항공 운송업	Air Transport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Storage and support activities for transportation
I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55	숙박업	Accommodation
56	음식점 및 주점업	Food and beverage service activities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63)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58	출판업	Publishing activities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Motion picture, video and television programme production, sound recording and music publishing activities
60	방송업	Broadcasting
61	통신업	Telecommunications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Computer programming, consultancy and related activities
63	정보서비스업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K 금융 및 보험업 (64~66)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64	금융업	Financial Institutions, Except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65	보험 및 연금업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Activities Auxiliary to Financial Service and Insurance Activities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69) Real estate activities and renting and leasing		
68	부동산업	Real Estate Activities
69	임대업; 부동산 제외	Renting and leasing; except real estate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70	연구개발업	Research and Development
71	전문서비스업	Professional Services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Other Scientific Technical Services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n.e.c.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75)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business support services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Landscape Services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Business Support Services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 compulsory social security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 Compulsory Social Security
P 교육 서비스업 (85) Education		
85	교육 서비스업	Education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86	보건업	Human Health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Social Work Activities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91) Arts, sports and recreation related services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Creative, Arts and Recreation Related Services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Sports activities and amusement activities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96) Membership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s		
94	협회 및 단체	Membership Organizations
95	수리업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Other Personal Services Activities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Activities of households as employers: undifferentiated goods-and services-producing activities of households for own use		
97	가구내 고용활동	Private Households with Employed Persons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Undifferentiated goods- and services-producing activities of private households
U 국제 및 외국기관 (99) Activities of extraterritorial organizations and bodies		
99	국제 및 외국기관	Extra-Territorial Organizations and Bodies

참고자료 2. 지역분류표

국명		국명	
한글표기	영문표기	한글표기	영문표기
1. 아시아	Asia	2. 대양주	Oceania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
방글라데시	Bangladesh	피지	Fiji
부탄	Bhutan	뉴질랜드	New Zealand
브루나이	Brunei	파푸아뉴기니	Papua New Guinea
캄보디아	Cambodia	사모아	Samoa
중국	China	솔로몬제도	Solomon Islands
홍콩	Hong Kong	통가	Tonga
인도	India	바누아투	Vanuatu
인도네시아	Indonesia	서사모아	Western Samoa
일본	Japan	미국령사모아	American Samoa
라오스	Laos	프랑스령폴리네시아	French Polynesia
마카오	Macao	괌	Guam
말레이시아	Malaysia	키리바시	Kiribati
몰디브	Maldives	마셜제도	Marshall Islands
몽골	Mongolia	미크로네시아연방	Micronesia
미얀마	Myanmar	뉴칼레도니아	New Caledonia
네팔	Nepal	북마리아나	Northern Mariana
파키스탄	Pakistan	팔라우	Palau
필리핀	Philippines	합계	18개국
싱가포르	Singapore		
스리랑카	Sri Lanka	3. 북미	North America
대만	Taiwan	캐나다	Canada
타이	Thailand	미국	U.S.A.
동티모르	Timor-Leste	그린란드	Greenland
베트남	Vietnam	생피에르미클론	St. Pierre and Miquelon
합계	25개국	합계	4개국

국명		국명	
한글표기	영문표기	한글표기	영문표기
4. 중남미	Latin America	푸에르토리코	Puerto Rico
앤티가 바부다	Antigua and Barbuda	세인트킷츠네비스	St. Kitts and Nevis
아르헨티나	Argentina	세인트루시아	St. Lucia
아루바	Aruba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바하마	Bahamas	수리남	Suriname
바베이도스	Barbados	트리니다드토바고	Trinidad and Tobago
벨리즈	Belize	우루과이	Uruguay
버뮤다	Bermuda	베네수엘라	Venezuela
볼리비아	Bolivia	프랑스령기아나	French Guiana
브라질	Brazil	과데로프	Guadeloupe
케이만군도	Cayman Islands	마르티니크	Martinique
칠레	Chile	미국령버진제도	Virgin Islands(U.S)
콜롬비아	Colombia	영국령버진제도	Virgin Islands(U.K)
코스타리카	Costa Rica		
쿠바	Cuba		
도미니카연방	Dominica, Commonwealth		
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 Republic		
에콰도르	Ecuador		
엘살바도르	El Salvador		
그레나다	Grenada		
과테말라	Guatemala		
가이아나	Guyana		
아이티	Haiti		
온두라스	Honduras		
자메이카	Jamaica		
멕시코	Mexico		
네덜란드령안틸제도	Netherlands Antilles		
니카라과	Nicaragua		
파나마	Panama		
파라과이	Paraguay		
페루	Peru		
		합계	43개국

국명		국명	
한글표기	영문표기	한글표기	영문표기
5. 유 럽	Europe	네덜란드	Netherlands
알바니아	Albania	노르웨이	Norway
아르메니아	Armenia	폴란드	Poland
오스트리아	Austria	포르투갈	Portugal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루마니아	Romania
벨라루시	Belarus	러시아연방	Russia
벨기에	Belgium	슬로바키아	Slovak Republic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Bosnia-Herzegovina	슬로베니아	Slovenia
불가리아	Bulgaria	스페인	Spain
크로아티아	Croatia	스웨덴	Sweden
키프로스	Cyprus	스위스	Switzerland
체코	Czech Republic	타지키스탄	Tajikistan
덴마크	Denmark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에스토니아	Estonia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핀란드	Finland	터키	Turkey
프랑스	France	영국	U. K.
그루지야	Georgia	우크라이나	Ukraine
독일	Germany	안도라	Andorra
그리스	Greece	채널아일랜드	Channel Islands
헝가리	Hungary	페로아일랜드	Faroe Islands
아이슬란드	Iceland	지브롤터	Gibraltar
아일랜드	Ireland	맨아일랜드	Isle of Man
이탈리아	Italy	리히텐슈타인	Liechtenstein
카자흐스탄	Kazakstan	모나코	Monaco
키르기즈스탄	Kyrgyzstan	몬테네그로	Montenegro
라트비아	Latvia	산마리노	San Marino
리투아니아	Lithuania		
룩셈부르크	Luxembourg		
마케도니아	Macedonia		
몰타	Malta		
몰도바	Moldova		
		합계	56개국

국명		국명	
한글표기	영문표기	한글표기	영문표기
6. 아프리카	Africa	말 리	Mali
알 제 리	Algeria	모 리 타 니	Mauritania
앙 골 라	Angola	모 리 셔 스	Mauritius
베 냉	Benin	모 로 코	Morocco
보 츠 와 나	Botswana	모 잠 비 크	Mozambique
부 르 키 나 파 소	Burkina Faso	나 미 비 아	Namibia
부 룬 디	Burundi	니 제 르	Niger
카 메 룬	Cameroon	나 이 지 리 아	Nigeria
카 보 베 르 데	Cape Verde	르 완 다	Rwanda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	상 투 메 프 린 시 페	Sao Tome and Principe
차 드	Chad	세 네 갈	Senegal
코 모 로	Comoros	세 이 셸	Seychelles
콩 고 인 민 공 화 국	Congo, Rep.	시 에 라 리 온	Sierra Leone
콩 고 민 주 공 화 국	Congo, Democratic Rep.	소 말 리 아	Somalia
코 트 디 부 아 르	Côte d'Ivoire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지 부 티	Djibouti	세 인 트 헬 레 나	St. Helena
이 집 트	Egypt	수 단	Sudan
적 도 기 니	Equatorial Guinea	스 와 질 란 드	Swaziland
에 리 트 리 아	Eritrea	탄 자 니 아	Tanzaniae
에 디 오 피 아	Ethiopia	토 고	Togo
가 봉	Gabon	튀 니 지	Tunisia
감 비 아	Gambia	우 간 다	Uganda
가 나	Ghana	자 이 르	Zaire
기 니	Guinea	잠 비 아	Zambia
기 니 비 사 우	Guinea-Bissau	짐 바 브 웨	Zimbabwe
케냐	Kenya	마 요 뜨	Mayotte
레 소 토	Lesotho	레 위 니 옹	Reunion
라 이 베 리 아	Liberia		
리 비 아	Libya		
마 다 가 스 카 르	Madagascar		
말 라 위	Malawi		
		합 계	66개국

국명		국명	
한글표기	영문표기	한글표기	영문표기
7. 중 동	Middle East		
바 레 인	Bahrain		
이 란	Iran		
이 라 크	Iraq		
이 스 라 엘	Israel		
요 르 단	Jordan		
쿠 웨 이 트	Kuwait		
레 바 논	Lebanon		
오 만	Oman		
팔 레 스 티 나	Palestine		
카 타 르	Qatar		
사우디 아라비아	Saudi Arabia		
시 리 아	Syria		
아 랍 에 미 리 트	U.A.E		
예 멘	Yemen		
합 계	14개국		

국명		국명	
한글표기	영문표기	한글표기	영문표기
1. 아시아	Asia	2. 대양주	Oceania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
방글라데시	Bangladesh	피지	Fiji
부탄	Bhutan	뉴질랜드	New Zealand
브루나이	Brunei	파푸아뉴기니	Papua New Guinea
캄보디아	Cambodia	사모아	Samoa
중국	China	솔로몬제도	Solomon Islands
홍콩	Hong Kong	통가	Tonga
인도	India	바누아투	Vanuatu
인도네시아	Indonesia	서사모아	Western Samoa
일본	Japan	미국령사모아	American Samoa
라오스	Laos	프랑스령폴리네시아	French Polynesia
마카오	Macao	괌	Guam
말레이시아	Malaysia	키리바시	Kiribati
몰디브	Maldives	마셜제도	Marshall Islands
몽골	Mongolia	미크로네시아연방	Micronesia
미얀마	Myanmar	뉴칼레도니아	New Caledonia
네팔	Nepal	북마리아나	Northern Mariana
파키스탄	Pakistan	팔라우	Palau
필리핀	Philippines	합계	18개국
싱가포르	Singapore		
스리랑카	Sri Lanka	3. 북미	North America
대만	Taiwan	캐나다	Canada
타이	Thailand	미국	U.S.A.
동티모르	Timor-Leste	그린란드	Greenland
베트남	Vietnam	생피에르미클론	St. Pierre and Miquelon
합계	25개국	합계	4개국

국명		국명	
한글표기	영문표기	한글표기	영문표기
4. 중남미	Latin America	푸 에 르 토 리 코	Puerto Rico
앤 티 가 바 부 다	Antigua and Barbuda	세인트킷츠네비스	St. Kitts and Nevis
아 르 헨 티 나	Argentina	세 인 트 루 시 아	St. Lucia
아 루 바	Aruba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바 하 마	Bahamas	수 리 남	Suriname
바 베 이 도 스	Barbados	트리니다드토바고	Trinidad and Tobago
벨 리 즈	Belize	우 루 과 이	Uruguay
버 뮤 다	Bermuda	베 네 수 엘 라	Venezuela
볼 리 비 아	Bolivia	프 랑 스 령 기 아 나	French Guiana
브 라 질	Brazil	과 데 로 프	Guadeloupe
케 이 만 군 도	Cayman Islands	마 르 티 니 꼬	Martinique
칠 레	Chile	미 국 령 버 진 제 도	Virgin Islands(U.S)
콜 롬 비 아	Colombia	영 국 령 버 진 제 도	Virgin Islands(U.K)
코 스 타 리 카	Costa Rica		
쿠 바	Cuba		
도 미 니 카 연 방	Dominica, Commonwealth		
도 미 니 카 공 화 국	Dominican Republic		
에 콰 도 르	Ecuador		
엘 살 바 도 르	El Salvador		
그 레 나 다	Grenada		
과 테 말 라	Guatemala		
가 이 아 나	Guyana		
아 이 티	Haiti		
온 두 라 스	Honduras		
자 메 이 카	Jamaica		
멕 시 코	Mexico		
네덜란드령안틸제도	Netherlands Antilles		
니 카 라 과	Nicaragua		
파 나 마	Panama		
파 라 과 이	Paraguay		
페 루	Peru		
		합 계	43개국

국명		국명	
한글표기	영문표기	한글표기	영문표기
5. 유 럽	Europe	네덜란드	Netherlands
알바니아	Albania	노르웨이	Norway
아르메니아	Armenia	폴란드	Poland
오스트리아	Austria	포르투갈	Portugal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루마니아	Romania
벨라루시	Belarus	러시아연방	Russia
벨기에	Belgium	슬로바키아	Slovak Republic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Bosnia-Herzegovina	슬로베니아	Slovenia
불가리아	Bulgaria	스페인	Spain
크로아티아	Croatia	스웨덴	Sweden
키프로스	Cyprus	스위스	Switzerland
체코	Czech Republic	타지키스탄	Tajikistan
덴마크	Denmark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에스토니아	Estonia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핀란드	Finland	터키	Turkey
프랑스	France	영국	U. K.
그루지야	Georgia	우크라이나	Ukraine
독일	Germany	안도라	Andorra
그리스	Greece	채널아일랜드	Channel Islands
헝가리	Hungary	페로아일랜드	Faroe Islands
아이슬란드	Iceland	지브롤터	Gibraltar
아일랜드	Ireland	맨아일랜드	Isle of Man
이탈리아	Italy	리히텐슈타인	Liechtenstein
카자흐스탄	Kazakstan	모나코	Monaco
키르기즈스탄	Kyrgyzstan	몬테네그로	Montenegro
라트비아	Latvia	산마리노	San Marino
리투아니아	Lithuania		
룩셈부르크	Luxembourg		
마케도니아	Macedonia		
몰타	Malta		
몰도바	Moldova		
		합계	56개국

국명		국명	
한글표기	영문표기	한글표기	영문표기
6. 아프리카	Africa	말 리	Mali
알 제 리	Algeria	모 리 타 니	Mauritania
앙 골 라	Angola	모 리 셔 스	Mauritius
베 냉	Benin	모 로 코	Morocco
보 츠 와 나	Botswana	모 잠 비 크	Mozambique
부 르 키 나 파 소	Burkina Faso	나 미 비 아	Namibia
부 룬 디	Burundi	니 제 르	Niger
카 메 룬	Cameroon	나 이 지 리 아	Nigeria
카 보 베 르 데	Cape Verde	르 완 다	Rwanda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	상 투 메 프 린 시 페	Sao Tome and Principe
차 드	Chad	세 네 갈	Senegal
코 모 로	Comoros	세 이 셸	Seychelles
콩 고 인 민 공 화 국	Congo, Rep.	시 에 라 리 온	Sierra Leone
콩 고 민 주 공 화 국	Congo, Democratic Rep.	소 말 리 아	Somalia
코 트 디 부 아 르	Côte d'Ivoire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지 부 티	Djibouti	세 인 트 헬 레 나	St. Helena
이 집 트	Egypt	수 단	Sudan
적 도 기 니	Equatorial Guinea	스 와 질 란 드	Swaziland
에 리 트 리 아	Eritrea	탄 자 니 아	Tanzaniae
에 디 오 피 아	Ethiopia	토 고	Togo
가 봉	Gabon	튀 니 지	Tunisia
감 비 아	Gambia	우 간 다	Uganda
가 나	Ghana	자 이 르	Zaire
기 니	Guinea	잠 비 아	Zambia
기 니 비 사 우	Guinea-Bissau	짐 바 브 웨	Zimbabwe
케냐	Kenya	마 요 뜨	Mayotte
레 소 토	Lesotho	레 위 니 옹	Reunion
라 이 베 리 아	Liberia		
리 비 아	Libya		
마 다 가 스 카 르	Madagascar		
말 라 위	Malawi		
		합 계	66개국

국명		국명	
한글표기	영문표기	한글표기	영문표기
7. 중 동	Middle East		
바 레 인	Bahrain		
이 란	Iran		
이 라 크	Iraq		
이 스 라 엘	Israel		
요 르 단	Jordan		
쿠 웨 이 트	Kuwait		
레 바 논	Lebanon		
오 만	Oman		
팔 레 스 티 나	Palestine		
카 타 르	Qatar		
사우디 아라비아	Saudi Arabia		
시 리 아	Syria		
아 랍 에 미 리 트	U.A.E		
예 멘	Yemen		
합 계	14개국		